

한동대학교

진로가이드북

Why
change
the
World?



한동대학교

진로가이드북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과를 모르는 승부를 갖기도 하고, 로봇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인간을 치료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더욱 다양한 학문에 대한 융합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과 공학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함과 동시에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문사회계열의 학문과 법학 연구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계를 배우는 동시에 법을 공부하고 싶진 않나요? 진로가이드북은 여러분이 다각도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자아 발견 기회와 대학의 전공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한동대학교 진로가이드북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찾아 떠나봅시다!



Contents

SELF-DISCOVERY

자기발견	05
나를 돌아보기	06
가치관과 진로	10

FIND THE WAY

진로 탐색	13
글로벌리더십학부	14
인문사회계열	17
경영경제학부	
국제어문학부	
법학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언론정보문화학부	
이공계열	77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기계제어공학부	
생명과학부	
전산전자공학부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ICT 창업학부	
창의융합교육원	149

"오늘의 너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내일의 너로 가는 첫 걸음이다."

Discovering who you are today is the first step to being who you will be tomorrow.

- Destiny's Odyssey

진로(進路)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앞으로 나아갈 길' 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진로(career)라는 말이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 간다'는 의미의 'carro'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진로가 유년기에서 시작하여 청·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은퇴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되는 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진로는 단지 '돈을 버는 일'보다 더 넓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질 진로란 자아 실현, 배움의 즐거움, 보람과 성취감, 섬김의 기쁨 등의 총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현림, 김봉환, 김병숙, 최웅용 (2003). 현대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SELF-DISCOVERY

자기발견

STEP 1 / 나를 돌아보기

STEP 2 / 가치관과 진로

'SELF-DISCOVERY' 자기발견 내용은 2013년 한동교육개발센터에서 발간한 '비전과 전공 탐색' 책자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한 콘텐츠입니다.

STEP1. 나를 돌아보기

이름

나이

1.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진로탐색을 위해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들입니다. 아래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 못하는 일도 적어보세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잘 못하는 일

2. 내 꿈의 변화(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동안 여러분의 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래의 표를 작성해 보세요.

시기	OO가 되고 싶어	이유
예) 13살(초등학교 6학년)	예) 가수	예) 노래 부르는 것이 재미있었다.



3. 삶의 연혁 분석

삶의 연혁 분석이란, 자신의 과거를 분석해서 현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무심코 지나온 과거의 일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개선점과 가능성을 발견하여,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 봅시다.

브레인스토밍 노트

자신의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 위주로 떠올려 봅시다. 자랑스럽거나 후회스러웠던 일, 행복했거나 슬펐던 일, 칭찬을 받은 일, 낙심한 일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일단 나열해서 적어 보세요. 그리고 10대 뉴스를 뽑아봅시다.

뉴스 1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2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3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4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5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6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7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8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9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뉴스 10	* 나의 이야기: *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이: 세
<impact> 부정적 -5 -4 -3 -2 -1 0 +1 +2 +3 +4 +5 긍정적		

4. 적용하기

이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생각이나, 겪었던 경험들은 긍정적이었을 수도, 부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알게 된 것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도 모르게 위축된 부분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자만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개선점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반응	대응	결과	개선방안
긍정적 사건	(예시)초등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기분 좋았음	자신 있어 노력을 게을리 함	중학교 와서 수학성적이 떨어지고 흥미없음	기초부터 연습해서 다시 도전
부정적 사건	(예시)중학교시절, 공부보다 그림에 시간을 쏟아 부모님께 혼남	슬픔, 두려움, 실망	흥미를 잃고 미술을 포기함	뚜렷한 목적 없이 공부를 하고 있음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디자인이라는 학문에 도전

STEP 2. 가치관과 진로

다음으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시다.

사람은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생각들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가치관도 진로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환경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가치를 발견해 가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목록표에 나와 있는 가치들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져왔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가치 또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체크해보세요.

번호	가치 목록	내용	체크
1	능력 발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가지는 것	
2	다양성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게 일하는 것	
3	보수	많은 돈을 버는 것	
4	안정성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5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6	지도력 발휘	다른 사람들을 이끌면서 일하는 것	
7	더불어 일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8	사회봉사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9	발전성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0	창의성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11	자율성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2. 이외에 진로선택에 있어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적어보세요.

①

②

3. 지금까지 생각해본 가치와 관련된 직업을 떠올려보세요!

"삶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당신이 찾아가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The greatest challenge in life is discovering who you are;
the second greatest is being happy with what you find.

A big part of this is your decision to stay true to your own goals and dreams.

— ANGEL CHERNOFF

자, 이제 여러분은 진로 탐색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에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인데요!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전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은 전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학습 내용, 전문가 및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조언, 직업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었던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읽어가며 진로를 탐색해 가시길 바랍니다.

한동대학교는 신입생 100%가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1년간 글로벌리더십학부(GLS)에서 원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게 됩니다. 이후 2학년부터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성적과 관계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행복한 대학생활을 상상하며 즐겁게 진로를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FIND THE WAY

진로 탐색

14 글로벌리더십학부

17 인문사회계열

18 경영경제학부

- 18 경영학 전공
- 24 경제학 전공

30 국제어문학부

- 30 국제지역학 전공
- 36 영어 전공

42 법학부

- 42 한국법 전공
- 48 US & International Law 전공

54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 54 상담심리학 전공
- 60 사회복지학 전공

66 언론정보문화학부

- 66 언론정보학 전공
- 72 공연영상학 전공

77 이공계열

78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 78 건설공학 전공
- 84 도시환경공학 전공

90 기계제어공학부

- 90 기계공학 전공
- 96 전자제어공학 전공

102 생명과학부

- 102 생명과학 전공

108 전산전자공학부

- 108 컴퓨터공학 전공
- 115 전자공학 전공

122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 122 제품디자인 전공
- 127 시각디자인 전공

133 ICT 창업학부

- 133 ICT융합 전공
- 138 ICT창업 전공
- 142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149 창의융합교육원

- 150 학생설계융합 전공*
- 151 글로벌융합 전공*
- 153 글로벌한국학 전공
- 157 수학통계 전공
- 160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계열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글로벌 리더십 학부

"예수님을 닮은
글로벌 리더"



Global Leadership School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전원 무전공, 무학과(부)로 입학하여 글로벌리더십학부에 소속됩니다. 즉, 글로벌리더십학부는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만이 속한 학부입니다. 글로벌리더십학부에 소속된 1년 동안 학생들은 국제화, 지식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기초 인문 및 수학·과학 교육, 신앙 및 인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1년간의 교양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생 개인은 국제화된 미래사회의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닦으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는 전공탐색의 시간을 갖습니다. 글로벌리더십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2학년 진학 시 성적과 인원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적성에 맞으며, 자신이 원하는 전공·학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A

글로벌리더십학부,
이것이 궁금하다!

Q. 글로벌리더십학부는 전공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1년 동안 무엇을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초교양 & 전공탐색

한동대학교는 실무형 인재 양성,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기초학문(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글쓰기를 포함한 실무영어 및 중국어, ICT융합기초(컴퓨터 프로그래밍)를 필수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찾기 위하여 법학입문, 경제학입문, ICT융합입문 등 각 전공의 개론(입문) 과목을 수강하면서 전공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Q. 무전공 무학과로 입학을 하더라도 2학년 전공 선택 시 성적에 따라 원하는 학부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신입생들은 1학년 교양기초 과정을 마친 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내기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고, 전공역량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한동대의 교육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각 학부에서는 신입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 학부를 선택하는 학생 수에 따라 학부의 크기가 자체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고등학교 때 문과였던 학생입니다. 이과에 속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한동대학교에는 고등학교 때 선택했던 계열과 상관없이 원하는 전공을 무엇이든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즉, 문과에 속했던 학생이 이과 계열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이과에 속했던 학생이 문과계열의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해 약 55.3%의 학생이 다른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Q. 복수전공 제도가 궁금합니다.

A. 87% 복수전공! 나머지는 심화전공!

한동대학교는 복수전공 제도를 토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87%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두 가지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한 가지 전공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심화전공'을 선택하여 하나의 전공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심화전공을 제공하는 전공에 한함). 한 가지 이상의 전공을 공부하는 복수전공 제도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전문성을 위한 기초역량기르기, 토론!

토론학회 베네딕트

토론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토론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메뉴 선택과 같이 가벼운 일에서부터 가치, 이념적 대립이 발생하는 이슈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딕트에서는 사회에서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과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논제를 세우고 찬반을 나누어 아카데미식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논제에 대한 확장적 분석과 자료수집을 통해 각 학회원들의 논리력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자 하며, 토론이 실제 이뤄지는 장에서는 주장, 반박, 질문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베네딕트는 평소에 생각은 많이 하지만 자신 없는 것을 극복하길 원하는 분들,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공부를 하길 원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한동인들의 구호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작은 관심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고민들로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토론학회 베네딕트.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인문사회 계열

경영경제학부

경영학 전공

경제학 전공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영어 전공

법학부

한국법 전공

US & International Law 전공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언론정보문화학부

언론정보학 전공

공연영상학 전공

경영경제 학부

경영학 전공 / 경제학 전공

"Seize the day,
God's way"



우리는 모두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과 국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는 직장까지 모두가 조직입니다. 경영은 이러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그 구성원을 풍요롭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는 가장 뛰어난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재무회계, 마케팅, 경영정보시스템, 생산관리, 인사관리 등의 분야를 공부합니다. 나아가 실무적인 수업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과제, 팀 활동 등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영은 특히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활발한 전공으로서 전산, 기계, 생명, 공연, 예술, 법, 심리, 사회복지 등 다른 모든 전공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강하여 경영학 안에서도 자세하고 심도 있게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심화 트랙입니다.

Finance Track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금융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시장과 기업의 재무 상황을 과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웁니다.

* 관련 과목: 회계학, 재무관리론, 투자론, 경영분석학 등

Accounting Track 기업이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에서 돈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 관련 과목: 세무회계, 세법, 원가관리회계, 고급회계, 회계감사 등

Marketing/Strategy Track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마케팅 전략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과목: 마케팅관리론, 마케팅조사론, 소비자행동론, 브랜드 관리 마케팅전략, 마케팅실무, 의사결정분석론 등

MIS/OM Track 한동대 경영학 전공에서 특성화의 주력으로 삼는 분야로 기업의 전산적인 운영 관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 관련 과목: 경영정보시스템, 경영과학, 생산관리, 경영IT실무, 프로젝트 관리론 등

대표 강의



회계실무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까지 회계의 순환과정을 공부하며 회계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명강의입니다.

마케팅 관리론 Marketing is everything!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 같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활동은 마케팅임을 배울 수 있는 명강의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론 평온한 일상 속에 내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기획하여 실제로 해결까지 실습하는 수업! 경영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생생한 체험형 수업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Global Management (GM) GM은 100%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경영학 전공입니다. 한동에 속한 외국인 학생들 중 대다수가 GM 또는 UIL(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수업, 프로젝트, 음악, 운동 등을 함께하면서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실습 (G-BEX)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기업 조사 및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 중국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이스라엘, 프랑스 파리 등의 기업에 방문하고 조사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지 대학과 협력하며 한동대 교수님의 지도하에 미국 학생들과 공동으로 미국 기업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학회 소개

ACTs	본 학회 ACTs는 회계사(CPA)시험 준비반으로 한국회계사 시험 준비와 미국회계사 시험 준비를 돕는 교내 유일의 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지정석을 제공해주고, 자발적인 출석체크와 모의고사, 스터디 등을 통하여 수험생활을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정보공유와 합격생의 네트워킹을 도모하여 향후 회계 재무 금융 분야 진출에 도움을 줍니다.
Colorz	Colorz는 '미래 크리스천 마케팅 리더들의 모임'(Future Christian Marketing Leader's Network)이며, Christian, Marketing, Network 세 가지를 비전으로 삼는 평생 동역자의 모임입니다. 컬러즈에서 자신의 사고를 창의적으로 다듬는다면 각 분야에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되실 것이라 자부합니다.
IMC	한동대학 유일 ERP와 BI를 주제로 공부하는 경영, 전산학회 IMC(IT Management Consulting)입니다. 저희 학회는 IT기술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목하며 또한 급변하는 IT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회원의 대부분이 경영학, 컴퓨터공학, ICT연계 전공자이며 실제로 두 전공을 같이 융합하고자 합니다. 매 학기마다 신입회원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회 내 활동으로 공모전, 세미나 등이 진행됩니다. 저희 학회원에게는 해당 분야로 진출하신 졸업생 선배님들의 도움과 방학 중 국내외 ERP기업 인턴 및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COA	COA = Co(함께)+Action(실행)= 함께 실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경영전략컨설팅 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전략&컨설팅 기본 교육(최고의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Logical Thinking"스터디), 비즈니스 Basic 스터디(PPT 논리 구성 / 발표 Speech), 지역 실천 컨설팅 프로젝트("경영의 눈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CASE. 18-2 "환호 청년창업 존")를 수행합니다.

LAMB	국제개발경영학회는 지난 2000년부터 LAMB 공동체로 시작하여 2008년에 정식 학회로 발족하였으며 총체적 선교의 비전을 가진 선교 학문 공동체입니다. 학회원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학기 중에는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 및 기도회에 참여하며 프로젝트 관련된 주제로 스터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학 중 3주동안 한국, 몽골, 네팔,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설립 자문, 소규모 기업자문, 마을기업 설립 자문,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 시장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이 헌신하게 될 전문 영역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NFGS	NFGS(Nehemiah Finance for Good Society)는 Finance, Accounting 지식을 배우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한동재무학회입니다. 2013년에 처음 학회를 시작하여, 재무에 대한 전반적 지식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valuation case와 study material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실제 기업재무에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매 학회 모임마다 성현모 교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재무를 배우고 또한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과 워크숍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과학학회	경영과학, 생산관리 또는 컨설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연구주제를 정하여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김우성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경영과학과 생산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실제 기업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연구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며 학부과정에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 경영과학, 생산관리 그리고 산업공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청지기투자학회	청지기투자학회는 청지기 투자 이념으로 기업분석 및 가치투자를 공부하는 기업형 학회를 지향합니다. 다양한 관심분야와 재능을 가진 팀원들의 협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의 내재가치와 시장에서의 왜곡현상을 분석하여 투자하는 분석지향형 투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회원들은 매 학기와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 기업/산업 리서치, 오픈세션, 리서치대회 참가, 애널리스트 포럼, 기업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 사모펀드를 통해 분석한 기업들의 주식과 각종 금융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말 열리는 SI의 밤을 통해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경계의 밤 한동대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세 구성원의 만남이 있는 경영경제학부 내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재학생들은 먼저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졸업생들은 교수님들과 재학생들로부터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워서 남주자!”라는 초심을 상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영 트렌드 탐방 경영환경 트렌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방문, 그들의 전략을 경영진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전공 공부를 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증권분석사, 공정관리기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

국제 전문자격증 AICPA(미국공인회계사), CMA(미국관리회계사), CISA(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FA(공인재무분석사) 등

※ 졸업 후 진로 ※

경영을 전공하면 주로 기업으로 진출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MBA(경영학석사) 학위를 통해서 경영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정부기관 행정고시, 7/9급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경영지원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LG CNS, POSCO, 현대·기아자동차 등

금융 신한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사회기업 및 NGO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컴패션, 밀알복지재단, 더 브릿지, 히즈빈스, 아노키 등

졸업생 취업



공기업/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도시철도공사, 정부청사 관리행정,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일반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NHN(네이버), 대우인터내셔널, LG전자, LG화학, POSCO, KT, 한화, 한국타이어,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HTNS관세법인, 현대세무회계컨설팅,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Lee&Kent Law Office, 한국오라클, 안철수연구소, 대양상선, 금호석유화학, 현대중공업, 금호화학, AC Nilson, 마이크로소프트 등

금융기관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신용보증기금, 롯데캐피탈, 삼성카드, 신한맥쿼리금융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아시아인베스트먼트, 브이아이피투자자문, 삼성증권, SK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등

무역/유통 롯데쇼핑, GS리테일, 신세계, 씨제이오쇼핑, 이마트, 하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테스코, FOREVER21, 그루폰코리아, 씨제이올리브영, 대양상선, 현대로지엠, 이랜드 등

광고 제일기획, 나스미디어, 키스톤마케팅컴퍼니, Zenith Optimedia, 매케인에릭슨, 매크로메트릭스, 원더맨인터내셔널,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연세대학교 의과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Washington University MBA, Purdue University MBA, Columbia University, Pittsburgh University, Wisconsin University, Carnegie Mellon 등

※ 졸업생 이야기 ※



오준영(07) - LG화학

경영학은 기업이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한동

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교내의 모임과 활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조직)의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생활 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협업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동 생활을 할 때 수업을 통해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벗어나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여 균형 있는 학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팀 모임부터 동아리, 학회 등 다양한 조직 활동은 일에 대한 본질과 기업(조직)이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아가 경영학이 실무에 초점이 맞춰진 학문인 만큼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식의 범위를 점차 확장하여 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르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곽한나(12)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학생 때는 취업에 필요한 것이 누구

나 감탄할 정도의 스펙, 다양한 대외활동, 학문적 탁월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시절에는, 특출 나게 나를 표현할 만한 스펙이 없음에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하지만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를 한 이후에 저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이 깔려있는 조직이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혼자 튀기보다는 서로 보조를 맞춰가며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를 뽑고 싶어 합니다. 입사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저의 채용 과정을 돌아보면 한동에서 배운 ‘같이 하는 방법’이 채용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4인1실 기숙사를 쓰며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친구들과 맞춰가려던 노력들, 경영학 조별과제를 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원들과 협력하던 시간들 모두 ‘관계’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경험들이, ‘나는 누구와도 잘 맞춰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취업 면접에 갈 때마다 스스로가 조직 친화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고, 3군데의 회사에 동시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는 삶 속에서 소통과 배려를 어느 곳보다 잘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찾기 힘든 귀한 능력입니다. 한동의 모든 제도 속에 이 한동 특유의 전인교육이 숨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 안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정필원(15)

경영을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함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새롭게 사고 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며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저는 경영을 배우며 그저 회사의 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동체 문화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영학의 중요성은 계속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영에 대한 단순한 지식 뿐만이 아니라 실무지식도 함께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동의 경영학과를 추천합니다. 사회의 각지에 진출해계신 선배님들과의 활발한 교류, 글로벌 경영실습(G-BEX)를 통해 실무와 현장에 대해 생생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 학회들이 있어서, 진로 준비하기에도 용이합니다. 한동에서 함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예린(17)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

키자” 이것은 제가 고1부터 가졌던 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후에, 직접 전공을 체험해보고 본인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곧바로 한동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이끄심 덕분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때는 저와 맞는 전공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홍보단에 들어가 여러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전공수업들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2학년에 올라갈 때, 경영학과 시각디자인이라는 2개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을 선택한 후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공수업을 들으며,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었고 앞으로가 막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전공의 선배와 친구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학과 교수님들 입니다. 교수님들께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전공 수업들과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마케팅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전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한동은 막연한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마케팅’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한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경영경제 학부

경영학 전공 / 경제학 전공

"Seize the day,
God's way"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에 마주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한히 욕망하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가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등장하고,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고민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사회과학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가 사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분야는 미시경제, 거시경제, 노동경제, 계량경제, 공공경제, 법경제 등 매우 다양합니다. 경제학이 사회과학 중에서 과학성이 높은 학문인 만큼,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수리적인 사고로 사회현상을 분석·정리할 수 있고 수학적 모형을 응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에서는 차가운 머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미시 분야 중심의 심화전공

경영경제 수학 및 통계, Calculus I·II·III, 선형대수 등의 수학적 기초 위에 게임 및 정보이론, 재정학, 국제경제학, 산업조직론, 계량 및 노동경제학, 고급 미시경제학 등 미시적인 경제학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거시, 계량 분야 중심의 심화전공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트랙으로 경영경제 수학 및 통계, Calculus I·II·III, 선형대수 등의 수학적 기초 위에 금융경제, 국제금융, 경제발전, 계량경제, 계량분석응용, 재정학, 게임 및 정보이론 등의 심화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대학원 진학

경영경제 수학 및 통계, Calculus I·II·III,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실해석학 등의 더욱 탄탄한 수학적 기초를 3학년 이전에 확립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경제학 과목들을 수강하며, 분석적인 과목을 많이 듣도록 권장하는 트랙입니다. 탄탄한 수학과 경제학의 기본기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등 공기업 입사 준비

경영경제 수학 및 통계학, 재무관리, 투자론, 선형대수학의 바탕 위에 미·거시 경제학의 기초를 탄탄히 한 후, 최대한 많은 경제 과목들을 수강합니다. 4학년 1학기까지 주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마지막 학기는 해당 기업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 준비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 등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시험 과목 중 범위가 방대하고 공부하기 까다로운 학문으로 손꼽히며,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꽃

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제학 수업을 통해 배우는 여러 과목들은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 강의



경제학 입문

경제에 대한 주요 개념을 익히고, 생소했던 경제학이 얼마나 삶과 관련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강의입니다.

Microeconomics

실생활에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를 경제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한정된 재화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게임 및 정보이론

자신의 선택뿐 아니라, 다른 주체의 선택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계량경제학

현실에 나타나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이론과 연결 지어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국제금융시장 견학

한국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경제학 전공의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의 경우, 교수님과 함께 홍콩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진행함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학생들의 견문을 넓혔습니다.

뛰어난 선배들과의 교류 & 함께하는 공부

열심히 공부하여 경제학도로서 전문성을 키우려는 열정만 있다면, 학회에 지원하여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경제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여러 주요 기관에 진출한 선배들과 교류하고, 뛰어난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선배 및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멘토링 시스템

고등학교 때 경제와 관련된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임원단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관련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멘티)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배(멘토)를 매치시켜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학부는 실력 있는 TA 보강을 통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이론경제학회	이론경제학회는 학문하는 자의 진정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미시경제학, 게임이론 등 미시 경제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또한 신입 학회원을 대상으로 경제수학과 미시경제학 스터디를 하며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주제를 심도있게 공부하고 교수님과의 프로젝트와 R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 경제 세미나에 참여하며 대학원에서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과 연대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경제연구학회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각종 금융이슈 및 정책을 거시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거시경제학 스터디를 통해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학기 중에는 한국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함께 탐구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싶으시거나, 금융기관 및 관련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학우님들을 초청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크게 취업을 하는 경우와 진학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 있는 경제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여 경제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도 있고, 기업체의 기획부서 또는 컨설턴트 회사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도는 기업과 기업의 경제 환경 및 시장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주로 기획부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기관 진출

- 경제이론 및 분석 분야: 학계, 국책 및 민간연구소
- 국제경제 및 통상 분야: 국제무역, 국제기구
- 경제정책 분야: 중앙 및 지방정부, 한국은행 등 공기업
- 재무 및 금융 분야: 금융계, 기업 재무전문가

사기업 진출

- 산업 및 기업경제 분야: 일반기업, 애널리스트 (경제분석가)
 - 정보기술 분야: 정보기술산업, 벤처기업
- 그 외 경영, 경제, 세무 등의 상경계열은 모든 사기업에 진출 가능

졸업생 취업



공기업/정부기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SH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녹색성장연구소,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시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공무원 등

일반기업

히베스터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랜드, 삼성에버랜드, 케이티, SK텔레콤, LG화학, JYP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앤엠, 유니타스브랜드, 한화, 금호석유화학 등

금융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브이아이피투자자문, 글로벌아시아인베스트먼트,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맥쿼리금융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NGO

기아대책, 좋은씨앗,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서울대학교 경제대학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제대학원, 한동국제법률대학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Washington University, University of Westminster, LeTourneau University 등

※ 졸업생 이야기 ※



강재연(11) - KB국민은행

내 삶도, 내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님을 교
내 신앙프로그램(Handong Disciple

School)과 경영학부 내의 학회(청지기투자학회)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동 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태 신앙이던 저는 HDS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십자가를 인정하며 사는 축복은 HDS가 아니었다면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동대학교 경영학부 내에 속한 청지기투자학회를 통해 재물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청지기적 정신을 철저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영하는 대상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경영자로서 가져야 본분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해 기뻐하실지 묻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동에서 생활하며 마음을 채워주는 삶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한동 생활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동의 특별한 교육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성재(07)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실**

저는 사회적 기업인 히즈빈스에서 일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은 본래 철학에서 시작하였지만, 수학과 통계학에 능통해야 하고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부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 다. 그러나 한동에서 좋은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힘이 되어주 고 기쁨이 되어준 친구들, 그리고 먼저 길을 닦아 놓으시고 뒤에서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졸업생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에서 얻은 ‘배워서 남주자’는 가르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저의 꿈은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말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Cool head but, warm heart)’을 지닌 경제학자가 되어 제3세계 국가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르게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동에서의 삶과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며, 한동에서 만난 동역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또 하나의 한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임현일(13학번)

저는 경제학 입문 시간에 'Cool head, Warm heart'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치관과 일치했기 문입니다. 세상 여러 곳에 'Cool head'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Cool head와 Warm heart를 모두 가져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 자체가 나눔과 지성을 함께 강조하지만, 경제학과는 특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주저 없이 경제학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전공과 기초 소양을 배웁니다.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란, 우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Cool head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기아, 빈곤 문제에 초점을 맞춘 '아마티아 센'이라는 경제학자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 들께서는 정말로 Warm heart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Cool head와 Warm heart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지성을 가진 인재가 되고싶으신 분들은, 한동의 경제학을 경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창균(13학번)

오랜 기도 끝에 한동을 선택하고, 1년여에 걸친 탐색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GLS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그저 평화롭기만 한 한동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과제, 팀프로젝트, 시험뿐 아니라 신앙공동체, 기도모임 그리고 팀모임까지 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던 한 학기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특히 새내기 시절엔, 정신 차려보니 불쑥하고 전공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한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진지했고, 쉽지 않았던 여러 선택의 순간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이 순간을 피할 수 없었고, 나름의 고민 끝에 경영경제학부를 선택했습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과 시장의 작동원리를 공부합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짊어지게 될 책임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도 경제학과 더불어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 많은 길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를 선별해내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마케팅, 회계학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투자, 생산관리, 인사, 조직 관리 등 기업 관리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전공선택과 같이 앞날에 대한 초석을 놓는 일은 기껏해야 스물 한 살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설렘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회를 이끄는 동력으로 발돋움할 반짝이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망설임 없이 경영경제학부로 초대합니다.



국제어문 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 영어 전공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



국제지역학은 민족국가가 형성된 근대부터 21세기 세계화 시대까지 국제 질서뿐 아니라 국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 및 지역 간의 관계를 정치, 사회, 경제적 안목을 통해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또한 정치사상, 정치이론, 비교정치학,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학을 개괄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국제정치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웁니다.

국제지역학 전공은 전공 입문 과목인 정치학개론을 시작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세계 전체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론적 접근을 배우는 국제관계학 트랙이며, 두 번째는 하나의 지역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국제지역학 트랙입니다. 이 두 트랙을 통해 각 정치현상마다 드러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국제관계학 트랙

처음 수강하게 되는 국제관계학입문 수업에서는 국제정치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이론적 배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 정치적 특성을 비교하며 여러 가지 정치적 개념을 배우는 비교정치학으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공 공부를 시작하면 미국대외정책론이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경제, 국제 이데올로기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국제지역학 트랙

지리적, 정치적으로 구분된 지역을 두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도구 삼아 중국, 일본, 유럽, 중동 사회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강의



정치학개론 (전공 입문 수업)

수강생들로 하여금 정치적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추고 현실 정치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과목입니다.

국제관계학입문 (전공 입문 수업)

현대 국제관계 형성의 원인과 전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중요한 국제정치 이론을 입문의 형태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지역학입문

학제적 접근으로 국제정치와 시장경제, 사회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계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배우며, 동시에 각 지역의 특색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비교정치학개론

둘 이상의 국가들에 나타나는 정치현상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연구하며 다양한 정치 행위자 및 정치제도 등을 배움으로써 정치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중국사회의 이해

현대 중국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친 전반적인 개괄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기초적 이해력을 배양하고, 중국사회를 다각적 시각을 갖고 이해하도록 돕는 개론 과목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전문가 선배들과의 만남!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전공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진출한 선배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현장실습에 참여한 후배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배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국제 기구, 기업, NGO 등에서 일하거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선배들 역시 매 학기 전공새내기 캠프 등에 방문하여 후배들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는 말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동인을 ‘남’으로 규정하지 않아 우리는 한 식구임을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따뜻한 교수님!

학생들을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와 조언은 지식을 넘어 지혜로 다가옵니다. 국제지역학 전공의 교수님들은 각 교수님마다의 특징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에 따라 배우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의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뜻을 품은 동역자와의 만남!

동료 학생들과 함께 각종 국제 관련 대회에 참가하고 아 웃리치를 떠남으로써 같은 소망과 비전을 품는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기쁨입니다. 이런 협력과 배움을 통해 국제지역학 학생들은 매해 모의유엔대회(MUN) 및 각종 국제 관련 대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 관련 대회에서의 수상!

2006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외교통상부 장관상)
2007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우수상
2008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최우수상 • 세계협상대회 우승(London)
2009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KOICA단장상) 및 장려상
2010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우수상, 명예상
2011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2012	• 대학 간 모의재판 승리(한동대vs한양대) • 국제환경법 모의재판 한국대표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우수상 및 장려상
2013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준우승(한동국제법률대학원 우승) • 모의유엔대회(MUN) 우수상 및 장려상
2014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최우수상 •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대상(법무부장관상) 및 최우수서면상
2015	• 유엔인권이사회 모의대회 외교부 장관상(1등상)
2016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및 최우수변론서상
2017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



학회 소개

한동국제정치학회	국제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학회로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제관계의 역사와 흐름을 공부합니다. 본 학회는 지성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자신과 서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동국제기구학회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분쟁, 난민, 빈곤,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작동 메커니즘을 배워가는 단체입니다. 학기마다 특정 주제를 정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고, 명사초청 세미나를 통해 한동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한동지역학회	지역학회는 학기 중 구체적인 국가 및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과 관련된 지역 개론서 탐독 및 지역연구 방법론 학습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방학이 되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필드 리서치를 통해 지역연구를 실습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학회는 지역학을 통한 선교 현장의 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선교 전략의 수립을 지향하는 선교지역연구 전문 학회입니다.
소수민족지역연구학회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분쟁 상황을 깨닫고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성경적인 비전을 가진 단체입니다.
중국학회	중국에 관심이 있고, 중국을 알아가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전공새내기 캠프

국제지역학 전공을 지망하는 1학년 학생과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 헤매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지역학 전공의 교수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맛보기 강의를 진행해주시며 재학생 선배, 졸업생 선배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현장실습(Global Training Research, GTR)

미국 또는 유럽의 여러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각 기구에서 일하는 한동대 동문 및 전문가들을 만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GTR 현장 방문 전에는 국제기구 세미나(Global English Society, GES)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실습 참여자들이 각 국가를 대변하여 토론하고 여러 국제기구를 조사하면서 각 기구의 설립 의의를 찾아가는 사전 준비 활동입니다. 참여 학생은 국제기구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며, 실질적인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국제기구나 제3세계를 돕는 NGO, 정부 또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UN, OECD, UNESCO, The World Bank 등을 들 수 있으며, 대학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대학이나 국내의 국제학 관련 대학원, 국제정책대학원(KDI),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국제기구 UN, OECD, UNESCO, UNAI, UN미래포럼 등

NGO 기아대책,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캠페션, 이랜드복지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팀 앤텀인터네셔널, 세이브엔케이, ODA WATCH 등

공사/공기업/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교육개발원, 한-아세안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협력개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관광공사, 연금관리공단 등

일반기업 삼성, LG, 현대, 포스코, CJ,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바이텍코리아, 성주인터네셔널, 이룸 등

외국계·다국적 기업 한국IBM, 코카콜라,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지멘스 코리아, Li&Fung-홍콩, 원기업-카타르, Daido Steel-일본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Harvard University,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Graduate School 등

그 외 국제정책대학원(KDI),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 한동국제지역대학원 등



✧ 졸업생 이야기 ✧



노현주(07) - KOTRA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에서 국제관계학과 영어통번역학을 공부하고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한국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 선택의 계기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넓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 한동 '글로벌' 대학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는 다소 막연하고도 순진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교수님들의 전공 수업과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경험하면서 4년 동안 참 재미있게 공부하면서도 나만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졸업 후 계획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전공 수업들은 단순히 주입식 수업이 아닌 토론·논문 발표·팀워크가 어우러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회 활동과 UN모의대회 등을 통해 아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연계전공과 팀 제도, I-house, 영어예배 등을 활용하여 평소 관심이 있었던 국제경제 분야의 수업을 청강하기도 하며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타 대학과 확실히 구별되는 한동대학교만의 특성과 국제어문학부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Generalist이자 Specialist로서 나만의 강점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KOTRA는 83개국 123개의 해외 무역관에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한동에서 배우고 훈련했던 지식과 경험들이 일상 업무뿐 아니라 중요한 해외 지원 업무 때 쓰이는 것을 문득 느끼며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Global Bridge Builder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넓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국제어문학부에서 재미있게 준비하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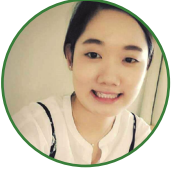


민경인(01) - NGO 기아대책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대책 국제사업부 아시아팀에서 긴급구호와 필리핀

지역 개발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필리핀 타클로반 긴급구호 재건사업과 필리핀 각 지역의 지역개발(식수, 교육, 보건, 의료, 농업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P.T.(Personal Transformation), 즉 개인의 변화가 C.T.(Community Transformation) 라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기아대책의 비전이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큰 범주에서 개별 사업에 담길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기획하는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PDM(Project Design Manag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다녀왔던 아웃리치의 경험(이스라엘, 중국, 일본, 그리스, 케냐, 카자흐스탄)이 국제적인 감각을, 팀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좋은 공동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험이 공유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Why not change the world?"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큰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꿈을 향한 열정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유리(15)

국제어문학부는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

화시키고자 하는 한동의 슬로건과 꼭 맞는 학부입니다. 단순히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동안은 세계 질서가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지만, 이곳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세계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학 공부를 통해 특정 지역의 문화, 정치, 생활양식 등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국제 사회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배운 지식을 세상 속에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구체적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각자 분야를 정하여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도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려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조금 시간이 걸릴 지라도 예비하신 길을 걷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 삼아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국제어문학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양구원(17)

국제 정세를 보면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와, 시시각각 발생하는 변

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이해하려는 학문이 “국제지역학”입니다. 하지만, 저희 한동대학교의 국제지역학은 타 대학과 분명히 다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히 국제 정세와 질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다스림을 찾으려고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는 나아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도 의미가 확장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와 국제관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저희 학부의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따로’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희 국제지역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RC제도나 팀제도 등 공동체기반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있는 한동대답게,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도 팀플이나 토의, 토론, 협력 연구 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무 지식과 영성을 겸비하신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배워가며 세계 속에서 “함께”의 가치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짚그릇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쓰신다고 합니다. 국제지역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오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짚그릇으로 빚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국제어문 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 영어 전공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



언어학, 영문학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배양하여 영어 전공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통번역, TESOL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Perspectives (관점), Basic Competence (기본역량), Foundation (토대), Application (응용)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영어 전공 과정에서 영역별로 소정의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통합적인 영어 전공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언어학

언어 구사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무의식적 문법체계의 지식을 내포하며 그 작동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 언어학입니다. 언어학은 언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언어의 본질과 습득, 언어가 사회와 문화와 갖는 상관관계, 언어와 인지 등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언어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간 언어에 내재하는 언어의 작동 원리 (principles and rules)의 체계를 이해하게 되며 외국어의 학습과 교육에 관한 여러 주요 문제들을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영문학

영문학에서는 문학의 기본 요소와 장르별 특성 및 역사적 맥락을 공부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은 후 토론하고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서양) 문학사를 관통하는 보편적 주제를 중심으로 삶과 문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찰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학 이론을 고찰하여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적 소양을 기릅니다. 강의실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거나 문학 이론을 습득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통·번역

통·번역 분야에서는 앞서 배운 언어학과 영문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를 사용하여 이론을 넘어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둡니다. 통역의 경우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에 대해 성찰, 토론, 연설, 발표 등을 훈련함으로써 스피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소통역할을 기르게 됩니다. 나아가 통역 내의 암기훈련, 내용기록, 순차통역 등의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번역의 경우 다양한 번역이론과 전략을 이해하고 장르에 국한 받지 않는 여러 텍스트를 직접 번역하는 훈련을 통하여 번역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TESOL

TESOL에서는 영어구사력을 기반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을 연마하고 언어의 원리와 활용

을 탐구하는 언어학적 지식 및 교육 철학에 대한 지식을 넓힙니다. 언어학적 분석을 토대로 언어습득과 외국어 학습에 관한 다양한 원리들을 비교 검토해보며, 사회 속에서의 언어 사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나아가 영어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교수법과 접근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재로만 공부하는 TESOL을 넘어서 수업을 계획하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익히게 되고 강의실 내·외의 현장에서 실제 교사로서 체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언어학

Intro to Linguistics, Syntactic Analysis of Modern English,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 Sentences and their Uses,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 Sound Patterns, Form and Meaning in the English Language

영문학

Understanding Literature: Reading, Reacting, Writing, Themes in Fiction, Themes in Poetry, Themes in Drama, Studies in Literary Thoughts

통번역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Interpretation in the Global Context, Translation in the Global Context, Literature and Translation

TESOL

Introduction to TESOL, TESOL Methodology, Special Topics in TESOL,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and Korean

한동인의 전공 자랑



당신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다면 갖추어야 할 근간이 되는 소양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인문적 깊이와 너비를 지닌 이해, 타자와 소통하는 마음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어문학부의 영어 전공은 바로 그 인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마음과 말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영성과 지성, 인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형 인재를 지향하는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인문적 소양과 영어 구사력 강화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려 깊고 창의적인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에 따라 영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공을 연계하든 전공하는 학생들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영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공과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전공은 어떤 전공보다도 폭 넓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영어 전공 교과과정이 시대에 발맞추어 전공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영어 전공 교과과정을 통하여 영어 구사력을 향상시키는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길러내어 인문적인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 영역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회 소개

한동번역학회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낯익스적 차이점, 문화적 이질감 등을 최소화 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회입니다. 한영 번역, 영한 번역을 통해 Bilingual적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정예로만 모집하여 학회 사람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학교 생활을 할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학회	언어학 수업의 심화과정을 공부하며, 언어 체계 및 언어와 관련된 역사, 문화 등을 함께 알아가는 학회로 전반적인 언어 교양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두 권 가량의 책을 정해 학회원들이 함께 읽고 발표 및 토론을 하며 생각을 나누고 자체적으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Salus	영문학 작품을 영어로 읽는 학회로 함께 모여 읽고 생각을 나누어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하는 사람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통해 넓은 세상과 삶의 가치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그런 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동교육학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동인으로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문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사랑, 겸손, 봉사를 계승하는 한동 최초의 교육학회입니다.
한동통역학회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회원들의 통역 능력을 향상시키며 교내·외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여 통역 봉사를 통해 학회원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Global Life(글로벌 라이프) 매년 겨울 방학에 국제어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열기도 하며 졸업생의 특강을 듣기도 합니다. 이 행사는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모여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의 정체성을 새로이 새기며 굳게 다지는 자리입니다.

학술축제 매년 가을학기에 국제어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로, 전공별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개인별 및 팀별로 페이퍼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페이퍼는 학부 교수님들의 평가를 거쳐 심사되며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Global Training and Research(국제탐방실습) 국제어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의 주요지역을 2~3주간 탐방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영어 전공을 마친 졸업생의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영어 전공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폭넓은 사고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어 굳이 특정 분야로만 진로를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졸업 후 영어 구사를 요구하는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NGO/사회적기업

월드비전, 유니세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한국컴패션, 세이브엔케이, 팀앤티 인터내셔널, 굿피플, G&M 글로벌 문화재단, 향기내는 사람들 등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WATCH, 국제엠네스티, 한-아시안센터, 정부기관 등

학교기관

한동대학교, 한동국제학교, 꿈의학교, 명지초등학교, 구학초등학교, 육민관중학교, 인하대학교, 동서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기업/금융/재단/언론 등

POSCO, LG전자, 코오롱, 영국전자, 싱가포르항공,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Nam June Paik Art Center, 극동방송, 미래한국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동국제법률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동대학교국제개발 대학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장로회신학 대학원, 총신대학교신학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Harvard University, Vanderbilt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Northern Iowa, University of Sussex,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eTourneau University,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Graduate School,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등

✧ 졸업생 이야기 ✧



이인환(99) - 우송정보대학교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슬로건에 마음
이 두근거려 포항으로 내려왔고, 산과

바다가 보이는 캠퍼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빛진 자로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며 학부 때 영어 통역, 영어학 수업을 UIL과 같이 수강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의 구조를 배우고 마치 유학온 것처럼 강도 높은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실력을 집중적으로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잡은 영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교육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전공을 선택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금은 대전의 한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어학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영어역량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줄 때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 교육을 통하여 나누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동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스승님들처럼 저도 학생들을 섬기길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동에서 고민하고 꿈을 꾸고, 자신만의 소명을 발견하길, 한없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손정은(12) - 월드비전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
는 국제어문학부 졸업생 손정은입니

다. 저는 지금 르완다 루치로라는 콩고 국경 지역에서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로 파견된 저는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동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에는 늘 정답이 없지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모으는 힘은 여러 국제 이슈들을 두고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토론했던 국제·어문수업들을 통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답을 외우기 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 나누는 수업이 한동의 자랑이자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지혜’도 한동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케냐, 에티오피아, 말라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지혜는 한동에서 마주치고 함께 공부했던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준 선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우미를 하며 만났던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지금 제가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동에서의 시간은 제 삶 곳곳에 녹아져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취업보다 더 큰 인생의 길을 배울 수 있는 한동대학교를 많은 신입생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제예나(14)

한동대학교 영어 전공은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

는 글로벌 시대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고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는 단순히 스펙을 위한 공부가 아닌,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영어와의 만남을 갖는 것을 목표로 저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언어적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는 언어학, 영문학, 통번역, TESOL이라는 트랙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공 과목 들뿐만 아니라, 번역 학회, 교육 학회, 통역학회, Salus(영문학작품감상학회) 등이 있어서 자신의 관심사를 계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전공과 연계하여 해외의 주요지역을 탐방하고자 한다면, Global Training and Research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에서 공부하며 영어가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언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언어인 영어를 전공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다보면 학부의 목표인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될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 후배 여러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언어 그 이상의 것을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김나연(17)

저는 한동의 '배워서 남주자'라는 문구에 이끌려서 한동에 오게 되었

고, 이것이 한동 내에서 정말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를 전공하면서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전공은 여학에 강점이 있는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 선했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전공을 통해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로 살아가기 위한 영문학과 언어학, 영어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어 문화 속의 사람들과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영어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를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어떤 전공과도 잘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있는 모든 전공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영어 전공에서 무엇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시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Vision & Vocation>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한 조를 이루어 교수님과 영어전공의 진로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국내에서만 영어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영어 전공을 선택할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공 새내기로 지내는 1년동안,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일 좋아하던 영문학 외에 언어학과 영어 교육을 함께 공부하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고,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로 살길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한동대학교의 영어 전공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법학부

"공법을 물같이
정의의 하수같이"



한국법 전공 / US&International Law 전공

법학부는 '한국법'과 'UIL (미국법·국제법)'의 두 전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성과 목표에 따라 알맞은 전공 조합을 통해 법률적 소양을 길러 국내·외에서 법률가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한국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 즉 공익과 사익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입니다. 공법은 헌법, 형법, 행정법, 사회법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사법은 민법, 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경제법, 자주적 분쟁해결 등이 포함됩니다.

2학년	민법의 기초, 헌법1, 형법1, 헌법2, 형법2, 재산법
3학년	법사회학, 계약법, 기업법1, 사회법, 행정법, 헌법소송, 소송법1, 통일법제론1, 불법행위법, 기업법2, 소송법2, 경제법, 행정학개론
4학년	기독교법사상, 자주적 분쟁해결, 법철학, 법과 정치, 친족 상속법, 행정구제법, 기독교적 분쟁해결론
심화	개별연구(법학부), 개별연구 2, Capstone Project, 법학특론, 현장실습(법학부), 자유·정의·평화·법1, 자유·정의·평화·법2

대표 강의



민법의 기초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법은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입니다. 민법 기초과목을 통해 출생, 성년, 각종 계약 체결이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 및 다양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법사회학

법사회학은 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역사적인 법사회학자들 (에밀 뒤르켐,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엘리네크 등)의 이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작용, 법의 생성 과정, 법 의식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명강의입니다.

자주적 분쟁해결

자주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은 법원의 소송 외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입니다. 강의 시간에 특정 사례를 직접 조정하고 중재하는 실습을 통해 보다 더 생생하게 ADR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통일법제론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도 없던 법 과목으로 한동대학교가 첫 시행한 강의입니다. 이후 서울대 학부에도 강의를 개설되면서 통일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독일의 통일 과정, 통일에 대한 법적 접근방식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 방향



한국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한국법의 기초되는 법 과목을 모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1학년 때 법학입문 과목을 듣고, 헌법, 형법, 민법의 기초,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친족상속법, 소송법 등의 과목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철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법철학, 법사회학, 헌법소송, 기독교법사상, 법학교전강독 과목 등을, 민법의 한 분야인 ADR(자주적 분쟁해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주적 분쟁해결과 기독교적 분쟁해결 과목을, 사회의 각 분야에 어떻게 법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은 기업법, 행정법, 경제법, 통일법제론, 행정구제법 등의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법학부에는 각 과목마다 이론과 봐야할 판례들이 많이 있고, 공부할 분량이 많은 학부로 유명하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단단 작성 방법을 잘 습득하여 공부한다면 충분히 모두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법학부의 자랑은 교수님!

한동대 법학부에서는 매우 탁월하신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십니다. 법학부의 교수님들께서는 제자들의 지적 발달과 더불어 인성과 관계 성장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시간 할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오피스 문은 열려 있어서 학생들은 과목에 대한 문의 이외에도 자신의 비전이나 개인적인 상담을 위한 방문에 주저하지 않고, 교수님께서도 그런 학생들을 반겨주십니다.

선배에게 배우는 법학!

법학부는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스터디 매니저가 되어 후배들을 위해 각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법 이론에 대한 해석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동료들 만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법을 넘어 미국법과 국제법까지!

한동대학교의 법학부는 한국법과 UIL(미국법 및 국제법)의 두 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국법과 미국법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 두 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법적 사고를 기르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회 소개



한동아시아인권법학회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회입니다. 인권의 실상과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굳히는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법학회 (INAL)	통일의 이념을 꿈꾸는 학회로 영문명은 INAL (Institution of Northeast Asian Law)입니다. 은혜, 화합, 정의(Grace, Reconciliation, Justice)를 모토로 하는 법학회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에서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조화를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학회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조화를 위해 우선된 문제의식은 바로 분단된 한국이라 생각하여 북한과 통일을 중심으로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분쟁해결학회	분쟁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대안적 분쟁해결(ADR)인 협상, 조정, 중재 등을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 현장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동해안 지역 에너지 분쟁 프로젝트(2015~현재), 열송학사 분쟁해결시스템 설계 프로젝트(2014~현재)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법학회	우리 인류 역사에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찾는 일은 언제나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동산을 떠나 인간이 마주한 것은 자연, 주변인, 그리고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경쟁과 생존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바로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법학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경제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 위에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제법을 통해 '경쟁 제한'이나 '부당공동행위', '재벌(경제력 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사안을 탐구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함께 공부합니다.
공직법학회	공직법학회는 공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학우들이 모여 시험을 준비하는 학회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아침 모임과 시험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우들을 위해서 학기 초에 합격생을 모시고 공무원 시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만 학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 로스쿨, 세무사 등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으신 학우들 누구나 학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학부장 교수님과의 여행

법학부는 졸업여행과는 또 다르게 교수님과 함께 국내의 역사적인 관광지를 1박 2일 다녀오는 여행을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와 역사에 대한 공부를 토대로 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 시간입니다.

법학부의 날

법학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선후배, 동기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법학부의 날'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BBQ 파티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학부 MT

법학부 MT에는 다른 학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수님들이 참석하시지만, 특별히 매번 교수님들께서 아끼는 책을 추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물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뜻과 추억이 담긴 책 선물 이벤트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과 배움의 시간이 되어왔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고시, 5급·7급·9급 공무원 시험 외에도 언론 기관, 금융기관이나 각종 기업체, 사회단체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졸업생 취업



법률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소명, 지방법원 검사 등

법률 관련 기관

지방법원, 분쟁조정위원회, 특허법원, 특허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국회의원 보좌관 등

금융권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생명보험, 한국증권거래소 등

기업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LG이노텍, 인천공항공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KT, CJ제일제당, 경동도시가스, 롯데쇼핑 등

졸업생 진학



법학전문대학원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 최근 3년(16~18학년도) 동안 51명 국내 로스쿨 진학

일반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등



✧ 졸업생 이야기 ✧



**배준성(02) - 법률사무소 하민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Speak up for those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Proverb 31:8)

제가 기억하는 한동대학교 법학부는 탁월한 전공지식의 습득은 물론 짧은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3년의 법학부 생활 동안 교수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간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이었는데, 졸업한지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가르침이 마음 속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이 새로운 구호 아래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김문경(03) - 국회의원 비서관

저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스포츠에이전트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라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법학부를 선택하였고, 졸업 후 FIFA Player's Agent 자격증을 취득할 때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내내 그 선택의 탁월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인 고민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기에 의원실에서 체육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전반적인 감사업무 및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초를 연구하고 울타리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은 어려운 것'이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성(05)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기억 하나. 로스쿨에서 인터넷 강의에 이르기까지 법학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학지식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한동의 법학부가 유일합니다. 법률가를 꿈꾸던 처음의 다짐들이 흔들릴 때마다 한동에서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새로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기억 둘. 한동의 법학부는 한동대학교 내에서도 규모가 작은 학부에 속합니다. 그러나 작은 만큼 서로 간의 정은 끈끈합니다. 졸업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며,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길을 걷어가는 동역자를 만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한동의 법학부에 초대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박은호(16)

저는 대단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법전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전공탐색을 거쳐 처음으로 법률가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우스운 고백이지만, 제가 처음 법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법학 입문' 과목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제 주위의 친구들은 '통일 한국의 법을 연구해보기 위해서', '산업 현장속에서 기업과 싸우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을 품고 법학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비전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과목을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의 비전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을 마친 지금은 '화평케 하는 자'의 비전을 품고 교회 분쟁과 이단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만약 법을 6과목 공부한다면, 사실 우리는 7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6개의 법 전공과목과 1개의 인격성장과목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은 학업량이 많은 과목이기에, 무엇보다 참고 인내하며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면 법을 공부할 때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만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때와 시기는 다르지만, 저처럼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또는 로스쿨에 진학하고 나서 비로소 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학에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지연(17)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는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슬로건이자, 아모스 5장 24절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법학부는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으로 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부입니다.

법학부에서 1년간 공부하면서, 이 가치관을 실제로 따라가며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법을 단순히 세상학문으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동대학교의 법학부만의 특별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도 바른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법학을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자칫 딱딱하고 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부에서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며, 다양한 사례를 생동감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즉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곳으로 오셔서, 그 꿈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학부

"공법을 물같이
정의의 하수같이"



한국법 전공 / US&International Law 전공

UIL (US and International Law) 전공은 한국 최고의 미국법 / 국제법 학사학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과목은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한국법이 속한 조문 중심의 체계와 함께 법의 두 축에 서 있는 논리와 판결 중심의 체계에 속한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조약, 국제기구 등 국제법에 대한 전공지식을 제공합니다. 미국법 분야에서는 미국 내 헌법, 계약법 및 형법이나 소송절차 등 기본법, 그리고 법을 다루는 데 기본이 되는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법철학 등의 수업들을 듣게 되고, 국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기 위한 지식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UIL 전공 내의 과목들은 크게 미국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법은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적용을 다루고, 국제법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질서와 국제공법과 국제사법 그리고 이를 따르는 조약이나 국제기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이 두 가지 대분류 안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목은 Survey of American Law(미국법 개론)과 Public International Law(국제법 개론)입니다.

1학년	Survey of American Law(미국법 개론)
2학년	Legal Research and Writing(법적 자료조사 및 글쓰기), Legal Argumentation(법적사고 토론)
3학년	Public International Law(국제공법), US Constitutional Law(미국 헌법), US Contracts(미국 계약법), US Criminal Law and Procedure(미국 형법), US Torts(미국 불법행위법), International Economic Law(국제경제법), U.S.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미국 상법), Advanced International Law Seminar(국제법 심화연구), American Legal Theory(미국법이론)
4학년	Intellectual Property Law(지적재산권법), Legal Negotiation(법적협 상), Justice: Readings in Moral & Political Philosophy(정치철학의 정의탐 구), Constitutional Dem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비교헌정 민 주주의), Korean Law & Legal System(한국법과 법적체계),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국제환경법), Comparative Legal Systems(비교법 체 계), Law and Contemporary Issues(법과 현시대의 쟁점), Special Topics in UIL@ (특별개설 과목),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국제인권법), Law & Development(법과 발전), Lawyers in Society(법률가사회학), UIL 개별연구 (Independent Study 1), Independent Study 2(개별연구2)

대표 강의



UIL에는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수강해야 UIL을 전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전공의 꽃’들이 있습니다.

1·2학년 과정에서는 미국법의 전반을 공부할 수 있는 개론 수업 ‘Survey of American Law’가 있고, 국제법에 대한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 있는 ‘Public International Law’도 있습니다.

3학년 과정에서는 미국헌법 과목인 ‘US Constitutional Law’와 법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Great Legal Minds: the Men and Their Life Stories in the Law (미국법의 중요인물 탐구)’를 대표적인 강의로 뽑을 수 있습니다.

4학년 과정에 도달하면 ‘Constitutional Dem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비교헌정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깊게 탐구할 수 있고, ‘Legal Negotiation’을 통해 협상 전문가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Justice: Reading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와 같은 과목들을 수강하며 사상 쪽으로 깊이 파고드는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UIL의 무대는 전 세계!

UIL 전공은 100%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일취월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UIL 전공 학생들의 무대는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물론,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들 모두 흥미와 열정만 있다면 UIL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과 미국, 세계를 무대로 하는 멋진 선배님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의 향연!

조문과 이론, 학설 중심으로 공부가 진행되는 한국법 체계와 달리 UIL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판례 또는 유사한 사례, 이성적 사고에 따른 합리적 판단, 그리고 논리의 힘이 중심이 됩니다. 미국법과 국제법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넓은 시야와 단단한 이성과 논리 체계, 그리고 명쾌한 판단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훈련은 훗날 사회의 정의를 꿈꾸고 약자를 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야를 만나도 본질을 꿰뚫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지성을 갖춘 UIL의 학생들은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학회 소개



Handong Academic
Society of International
Law(HASIL)

국제법학회

HASIL is a study group that studies various issu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and prepares for international moot court competitions.

국제공법과 사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국제모의재판에 참여하는 학회입니다.

Law and Advocacy(LnA) 모의재판학회	LnA is Handong's Mock Trial Academic Society! LnA is a society where we gather to study legal procedures at American trial court level. We study a selected case together during the semester(Criminal or Civil Case). At the end of the semester, we have a mock trial based on the case, and there will be juries. LnA는 한동대학교의 모의재판 학회입니다! 실제 미국의 소송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모의재판을 진행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학기 말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배심원을 모집하여 실제 미국 재판처럼 모의소송을 진행합니다.
국제인도법학회	The Good Samaritan Society studie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regulates internal and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e learn what is lawful or unlawful under IHL and elements of the crime. With that rules and spirits of IHL, we discuss the applicability in a real situation. TGSS had hosted ICRC summer workshop twice, where we had ICRC legal advisers and studied IHL in-depth. Lastly, TGSS has finished an assertion paper on the topic of <ISIS's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Iraq> and every member has a chance to try writing a research paper before they finish their required term. 국제인도법학회는 국제사회의 전쟁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을 공부하는 학회로서 국제인도법을 구성하는 법적 요건을 배우고 이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두 차례의 ICRC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제인도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진행한 바 있으며 CK연구지원 사업의 지원 아래 '전시 중의 문화재 훼손'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법학부의 날

법학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선후배, 동기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법학부의 날'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는 BBQ 파티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의재판, 토론대회, 모의유엔대회 등 각종 대회 석권

UIL 학생들은 유엔 모의재판,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국제 모의재판과 모의유엔대회의 영어분과에서는 국제법과 미국법을 영어로 공부하여 언어적 능력과 법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UIL 학생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어왔습니다.

2006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외교통상부 장관상)	2014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최우수상 •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대상(법무부장관상) 및 최우수서면상
2007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우수상	2015	• 유엔인권이사회의 모의대회 외교부 장관상(1등상)
2008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최우수상 • 세계협상대회 우승(London)	2016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및 최우수변론서상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 대학(원)생 공정거래 논문경진대회 우승
2009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KOICA단장상) 및 장려상	2017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 스탯스 국제 환경 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동상 및 최우수 구술변론상, 우수 구술변론상
2010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우수상, 명예상	2018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및 최우수 검찰 변론서상
2011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2012	• 대학 간 모의재판 승리 (한동대vs한양대) • 국제환경법 모의재판 한국대표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우수상 및 장려상		
2013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준우승(한동국제법률대학원 우승) • 모의유엔대회(MUN) 우수상 및 장려상		

※ 졸업 후 진로 ※

UIL을 전공한 학생들의 진로는 경제학, 국제학 대학원 진학은 물론 로스쿨을 거쳐 미국변호사 또는 한국변호사가 되거나 기업과 NGO를 포함한 국제기구로의 진출하는 등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전공 내에서 익힌 미국법 그 자체를 이용하여 미국 로스쿨 또는 한동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HILS)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고,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 변호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특성상 UIL을 경영이나, 국제어문, IT와 복수전공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회계과정을 이수하여 상당수의 AICPA(미국회계사)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같은 NGO로 진출하거나 법학을 기반으로 OECD, UN, The World Bank 등 국제 인권, 경제기구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자신문사, 특허법인, 일반기업 등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한동국제법률대학원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HILS)

미국변호사를 배출하는 법률대학원으로서 2016년까지 337명의 미국변호사를 배출하였고, 71%의 미국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졸업생 취업



UN 본부사무국 법무실, 법무법인 율촌, 대학교 법학교수, 삼성전자 법무팀, 코리아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 미래에셋, 대한항공, 공기업, 특허사무소, UNESCO, 주 시카고 총영사관, 인천공항공사, 한동공익법센터, 핸드스튜디오 등

졸업생 진학



해외 대학원

Georgetown Law School (조지타운대학교 법률대학원),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한동국제법률대학원), George Washington Law School (조지워싱턴대학교 법률대학원), London School of Economics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등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 졸업생 이야기 ✧



김하나(99) - Open Hands Legal Services in NY

뉴욕 크리스천 무료 법률서비스 기관

Open Hands Legal Services 소속 미국변호사 김하나입니다. 저는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미국&국제법을 가르친다는 한동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뉴욕에서 JD 공부를 하고 미국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동에서는 정직을 배우고 연습하였고, 로스쿨 지원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고 실천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절름발이 변호사가 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뉴욕에 입성하였습니다. 뉴욕에 와서는 로스쿨 생활 내내 기독교 법률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그런 기관을 만나길 기도했고 2009년에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유엔에서 경험을 쌓게 하신 후 뉴욕에 처음 문을 연 기독교 법률 센터의 소속 변호사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국의 작은 섬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정에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한동대에서 받은 교육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한동대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곳입니다. 나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품게 되는 학교, 그 이상의 교육 기관입니다.



신다혜(12) -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Juris Doctorate 과정

저는 현재 남동부의 조지아주에 위치한 에모리 로스쿨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에 3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미국 로스쿨을 다니면서 저에게 UIL 학부의 다채로운 수업들이 현재 로스쿨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UIL 의 여러 수업 중 평소에도 관심있었던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수업이 현재 로스쿨에서 선택 관심분야와 세부 진로를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수업을 통해 얻은 기본 법률 지식도 로스쿨에서 관련 분야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수업의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해외활동참가 기회로 스위스의 세계지적재산권 본부(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국가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여름방학동안 무료로 수업과 연수에 참여해던 것이 큰 경험과 배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야 했는데, 특허청에서 근무하시는 면접관님께서 한동대생들은 영어실력이 항상 우수하다고 칭찬하시면서 학교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학부에 있는 동안 계셨던 우수한 UIL 교수님들로부터 인성과 지식 더 나아가 신앙까지 겸비한 인재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깨달음과 배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바라보며 함께했던 학부의 교수님들의 모습이 제가 꿈꾸던 변호사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 큰 밑바탕이 되었고, 현재 로스쿨에 와서도 그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한동대 법학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늘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하며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신입생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예은(15)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라는 법학부의 슬로건은 막연해 보

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정의가 눈부시게 빛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매일 범죄가 판을 치는 현실은 생각보다 참 혹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를 바라보며 달리기에는 조금 버거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법이 더 이상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다고, 썩었다고 말하고, 더 이상 법을 하는 이들을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학부에 들어온 우리들은 그럼에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억눌린 인권을 내 손으로 바로 세우는 것, 다가를 통일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것, 바른 뜻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에 주눅들지 않도록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법학부의 꿈입니다.

매일 같이 벅찬 꿈을 꾸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하라는 말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바람이 불더라도 함께 눕고 함께 일으켜주는 들꽃 같은 이들과 매일을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믿음 나눌 그 곳, 정의가 눈부시게 빛나는 곳으로 이 산을 넘어 함께 걸어갈 이들을 기다립니다.



이준석(17학번)

As growing up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it was challenging for me to choose a major in Korea. Handong Global University has a short list of majors that can be attained fully in English although it has comparatively more classes taught in English than other universities in this country has. However, I found that there's a major taught fully in English that fosters critical thinking, courage in speaking, and faith-driven learning. For I came to know these, I chose this major without any hesitation. It's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Law" (UIL).

When I took my first UIL class, I was astounded by how different the course was. The professor was giving thought-provoking comments to students' each ideas. Many students might feel uncomfortable during the class, but the professor kept inviting students to be challenged.

Furthermore, the UIL department is supported by some professors who teach at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In other words, faculty in this department includes competent professors who has plenty of expertise in this international law field.

Considering the benefits here, this UIL in handong is arguably one of the best and very unique major in korea. To sum it all up, UIL is a major that help you grow intellectually and spiritually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be a good option to students who have international backgrounds but want to study in korea. Hope you all to challenge to be a critically thinking Christian here in Handong.

상담심리 사회복지 학부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상담심리학 전공 / 사회복지학 전공

요즘 뉴스를 보면 살인, 성폭행, 자살, 집단 따돌림, 중독 등 안타까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은 상황입니다. 앞서 나열했던 이슈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이렇듯 심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전공에서는 아동청소년상담, 노인상담, 진로상담 등의 상담 트랙과 발달심리, 성격심리, 학습심리 등의 심리 트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상담과 심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상담 트랙

아동청소년상담, 노인상담,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기독교상담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상담의 공통적인 이론과 기술을 배우게 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상담실습, 심리평가, 고급현장실습 등의 과목을 통해 이론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 트랙

발달심리, 성격심리, 학습심리, 사회심리, 인지심리, 광고 및 소비자심리, 중독심리, 생리심리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나아가 요즘 기업체에서 각광받고 있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심리사회통계학 등은 복수전공을 택하고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다른 전공과 융합하기 좋은 분야입니다.



대표 강의



심리학개론

상담심리 전공의 가장 기초되는 과목으로서 전공선택 전에 주로 들으며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과목입니다. 인간행동에 대한 기초와 감각과 지각, 학습, 기억, 사고, 발달과 같은 다양한 인간 활동을 탐구하며 연구방법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합니다.

상담실습

상담심리전공 고학년들이 듣는 과목으로서 공감, 경청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담의 기본 기술들을 익히고 동료간의 상담실습이나 교실 밖의 실제 상담사례를 통하여 실습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습득해온 상담기술들을 훈련하는 과목입니다. 그외에 상담가로서의 윤리등 상담과 관련된 주 이슈들을 배우는 가운데 상담가로서의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며 정체감의 기초를 쌓는 과목입니다.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심리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담과목들을 배우기 전에 수강하는 전공기초과목으로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다양한 주요 상담이론들을 개괄적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독특하게 제시하는 인간관과 인간문제에 대한 이해및 상담기법 등을 익히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담의 이론적 기초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통합적인 상담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심리평가

상담과 심리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의 역사, 종류, 활용법, 보고서 작성 등을 배우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심리검사 활용능력을 훈련하는 과목입니다. 본과목에서 배우는 심리검사 중에는 지능검사, 객관적 성격검사, 주관적 성격검사 등이 있으며 심리검사와 연관된 윤리 및 검사결과를 기초로한 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연구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전에서 적용해 볼 수 없다면, 배움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 전공의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들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석사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학회 활동

예술심리치료학회, 멘토링학회, 상담학회 등 모든 학회가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Open Seminar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학부생 전체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수님과 학생 간의 관계와 사랑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사제 관계는 돈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교수님들께

서는 각자 한동대학교에 사람을 세우기 위한 소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오피스 아워(Office Hour)를 통해 학업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고,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언제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특징입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시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아름다운 학부입니다.

학회 소개

예술심리치료학회 (FAMM)	Film(영화), Art(미술), Music(음악), Movement(동작) 네 가지 예술치료 분과를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학생들은 모여서 기존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예술심리치료 분과에 대한 확장적인 스터디를 합니다. 또한 외부의 다양한 기관에 예술심리치료 봉사활동을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ON	ION은 Industrial Organizational Network를 뜻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토로 2009년에 설립된 한동대학교의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과 소명의식을 추구하는 심리학적 접근과 사람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학적 접근을 결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심리, 조직심리 등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하위 분야들을 공부합니다.
꿈나무코칭학회	코칭(Coaching)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학회입니다. 함께 코칭을 배우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포항 지역 아이들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추계학술대회

상담대학원의 행사로,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해결중심단기치료, 코칭 등 다양한 주제의 오픈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졸업생 특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격려를 해 주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에 2회 이상 열립니다.

Field Trip(기관 방문)

학기 중 정신병원, 도박치료센터, 건강가정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배우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례발표회

교수님들이 슈퍼바이저가 되셔서 학생들의 상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세미나이며, 발표자는 자신의 상담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한 회기의 상담 내용을 전부 타이핑하여 그것을 위주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한 학기에 4회 정도 진행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상담심리학 전공' 학생들은 전공을 살린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졸업 후 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상담심리학 전공 학부생이 상담기관이나 치료사(음악치료, 미술치료, 특수치료 등)로 곧장 취업하는 것은 어렵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깊이 한 후 석사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석사의 경우 대개 2~3년 동안 공부 하게 되며,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3년 이상 소요됩니다. 대학 원을 마친 후에는 전문상담사로 취업을 하거나, 연구원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상담관련기관

학교상담교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 Center(학생위기상담 서비스), 보호관찰관,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등

기업

기업 상담실(포스코, 삼성전자 등), LG유플러스 인사담당, CJ 브랜드마케팅, 삼성전자 HR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Boston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yracuse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Graduate School 등



✧ 졸업생 이야기 ✧



황혜미(03) -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저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되기 위한 수련과정을 거치고 현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조현병(정신분열병),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치료 및 재활과정을 동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 저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자기열심과 성품으로 헛된 목적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였고, 인생의 방향을 마칠 때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의 수업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수님들의 섬김을 통해 어떤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품고,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명자로서 나눠 줄 것만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키워주는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로 초청합니다.



이영희(03) - 토닥토닥협동조합 대표이사

사람들의 마음 발을 돌보는 심리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토닥토닥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희입니다. 토닥토닥은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석·박사 출

신의 전문상담사들이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한동대만의 특징인 전공과 전공의 연계를 통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품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지해줄 때, 한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치열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닥토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김향기(04학번) - LG유플러스 HR부서 인재개발팀

안녕하세요? 저는 LG유플러스 HR부서(Human Resources) 인재개발팀에서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HR일을 함에 있어서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배우고 경험한 학문적 지식과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도 행복하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담심리학문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학문의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인 방법의 균형 있는 관점을 바탕으로 회사 HR(Human Resources) 조직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기에 이 분야로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주은(15)

마음이 늘 이웃들을 향해 있는 분들! 우리 상담심리 전공에서 온 맘

다해 환영합니다!

저는 상담심리란, 상처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각 사람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공은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한동의 상담심리가 다른 곳에 비해 특별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교수님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크리스천 상담가로서 정립할 방향성과 가치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상담심리를 배우게 되면 먼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로서의 자질을 계속 발전시켜가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한 사람조차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심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공부해 나가야 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년부터 함께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윤소정(15)

상담심리 전공의 모든 수업들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수업마다 교수님들께서는 상담자 또는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방법, 상담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아가게 도와 주십니다.

상담을 실전에서 해보니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배운 전공지식을 직접 적용하기위해 애써보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다고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동에서는 학교의 특성상 사람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한동은 공부하기 좋은 곳이며,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덕분에 평생을 함께 할 친구들도 사귄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많은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게 한동은, 그리고 이 전공은 '사람과 만나며 힘을 주고 받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준비된 상담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잘 배워서, 준비된 모습으로 사회에 나아가는 그날을 소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상담심리 사회복지 학부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상담심리학 전공 / 사회복지학 전공

가난의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 남녀차별, 임금 불평등, 사회의 양극화, 노사 간의 갈등,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모두 다루는 전문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 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도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전공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키워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지정 14과목(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신청에 의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육부 지정 14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3항의 규정)하면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가 사회복지사 공무원 공채나 복지시설 또는 기관의 전문가 임용 시, 사회복지 대학원 진학 시 및 해외 유학 시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사회복지실천론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철학 및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 가치 및 윤리를 살펴보고, 실천 과정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사회문제론

다양한 사회문제와 그 사회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사회문제 분석과 이론적인 관점을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사회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리적, 실천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통해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수행 과정, 정책 비용, 정책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책 대안 제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과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문제 확인, 설계, 실행,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전문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생생한 사회복지 현장 경험!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지역사회복지론 등 많은 수업들에서 강의와 동시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직접 내담자를 만나볼 수도 있고, 현장에 계신 여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보는 것을 굉장히 독려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졸업하기 전에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회를 통한 깊이 있는 전공 공부!

한동대 사회복지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갑니다. 특별히 학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특별한 꿈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함께 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조사분석학회, 정신보건학회 등의 학회에서 전문적인 학습과 조사 실습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학회 소개

사회조사분석학회 (RESSARCH)	한동대학교와 포항시 기관에서 의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사회 현상을 조사, 분석, 해석을 하고, 자료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함께 연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SPSS프로그램을 다루는 법, 데이터를 입력하는 법 등을 전반적으로 배워가는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코칭학회	코칭(Coaching)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학회입니다. 함께 코칭을 배우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포항 지역 아이들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정책학회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등을 공부하여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이 땅의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합니다. 또한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Field Trip (사회복지기관 방문 프로그램)

사회복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 사회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 졸업 후 진로 ※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넓습니다. 특히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상담, 치료, 사회조사, 정책심의, 프로그램 평가 등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개인 개업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을 할 수 있고, 전문대학의 사회복지 교과목 과정의 강사 또는 현장실습 슈퍼바이저가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공직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관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 전문적 기술 개발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회복지기관 및 NGO 기관 정보

월드비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이랜드복지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밀알복지재단, 한국컴패션,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등

졸업생 취업



사회복지기관

산재장애인연합회, 전주하늘나무복지원, 태화 샘솟는 집, 번동 코이노니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좋은 이웃 마을 노인복지센터,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홀트일산복지타운, 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재단,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수지노인복지회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번동 코이노니아,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경북노인보호복지재단, 정신보건사회복지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 용인정신병원 등), 의료사회사업 인턴(신촌세브란스 병원, 부산백병원)

NGO기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컴패션, 기아대책, 가나안 농군학교 등

기업/사회재단

재단법인 두레원, 이랜드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밀알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온누리복지재단, 지구촌 복지재단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 사회복지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Boston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yracuse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Graduate School 등

✧ 졸업생 이야기 ✧



임희주(07) - 5급 사무관(제58회 행정고시 사회복지 직렬 합격)

한동대의 사회복지 전공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을 통해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만으로는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는 이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학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동대에 오시면 마음을 나누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꿈을 꾸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 바로 한동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 학생들을 한동으로 초청합니다.



김종일(09) - 하트하트복지재단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바로 우리 학교의 슬로건이기 때문이죠.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린 것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분야를 전공하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세상을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회복지야말로 다른 어떤 전공보다도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에 닿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멋진 학우들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삶의 체험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사회복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것은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은 ‘사회생활 새내기’의 입장에서 미래의 동문이,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혹은 미래의 저의 동료가 될지도 모를 후배님들을 생각하면 참 설렙니다. 오늘도 각자의 꿈을 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박하나(13)

우리 학부에서는 교수님들께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하나님 사랑까지 배울 수 있어 그 모든 과정들이 먼저는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재단에 취업하여, 제가 배운 것을 토대로 클라이언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학회활동 등과 Field Trip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사회복지학이라는 전공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실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경험들과 이론을 함께 배우며, 제 안의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회복지학과에 오셔서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을 배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박세린(17)

저는 한동대학교의 독특함에 이끌려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도 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체험하려고 하며 제 나름의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갔다면 제가 절대 체험해보지 못했을 경험들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여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한동은 너무나 소중한 학교입니다.

저는 저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슬로건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인데요. 원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슬로건을 본 후, 그저 나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지식과 마음가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사회복지라는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저희에게 학문을 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며 다독여주시기도 하고 때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니다.

또한 옆에 있는 동기들은 자신의 학업과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가기 위해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이러한 교수님들과 동기들을 통해 학부와 학교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같이 서로를 아끼며 ‘배워서 남 주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한동에 와서 제가 느낀 감정과 깨달음들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론정보문화 학부

언론정보학 전공 / 공연영상학 전공

"많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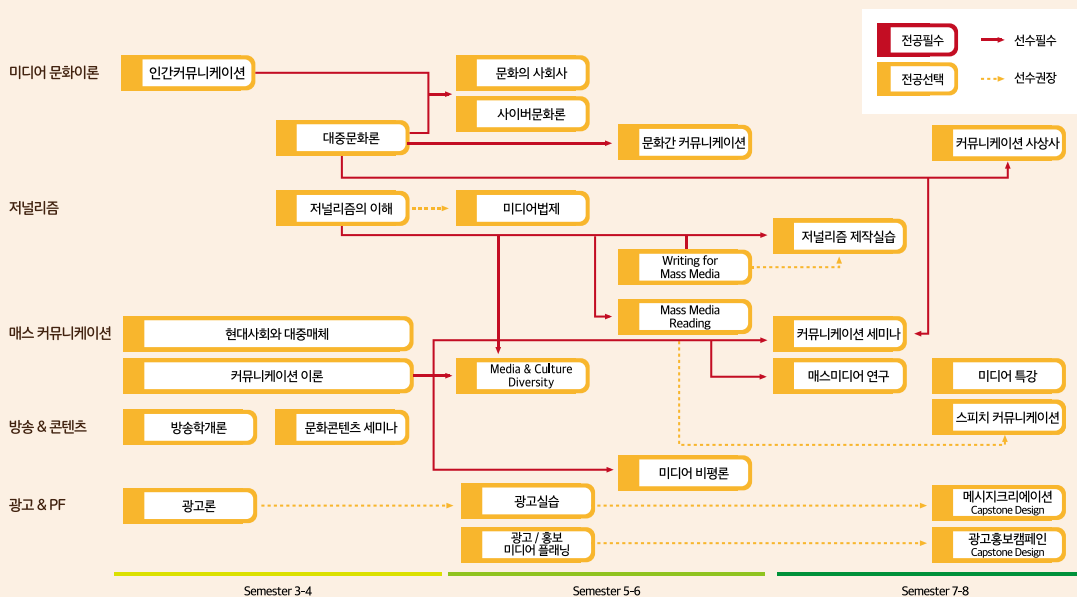
언론정보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관계 형성과 정보 전달, 나아가 사회 전반의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저널리즘, 광고·홍보, 방송, 문화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전개될 4차 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모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정보학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학문적 논의들을 학제간의 융합을 통해 고찰하여 현재의 상황과 문제들을 진단하고, 미래의 미디어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해 모색할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 신문, 방송, 언론
- 광고, 홍보, 문화기획

언론정보 이수체계도



대표 강의



광고홍보캠페인

실제 외부업체를 과목 클라이언트로 초청하여 한 학기 동안 해당 업체의 광고/홍보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한동대의 대표 프로젝트 과목입니다. ‘광고홍보캠페인’에서 그간 한국니베아 ‘데오도란트’, 기아 ‘모닝’, SK 와이번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 숙명여자대학교, 포항 스틸러스, 보리피자 ‘팜스발리’, LG Optimus 핸드폰, 핸드엄 ‘더치커피워터’, FC서울, 포항시 도시브랜딩,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경상북도관광공사 등의 통합브랜딩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널리즘 제작실습

신문, 잡지, 방송용 기사문과 스크립트 구성, 작성, 편집 등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로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대중문화론

대중과 문화의 의미를 진지하게 접근한 영국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전통에 따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대중문화의 의미, 역사, 산업 등에 대해 기호학, 구조주의, 담론 이론, 정치경제학 등의 다양한 사회이론을 통해 학습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깊은 성찰과 뜨거운 토론!

한동대학교 언론정보학 전공은 학생들에게 미디어, 문화, 예술 등의 윤리 문제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즉각적인 성과나 물질적 성공에 집중하기보다 문화컨텐츠가 가지는 근본적인 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물음을 던지는 교수님들께 배운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함께 뜨겁게 토론할 수 있는 선·후배,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언론정보문화학부는 20년의 짧은 역사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학계, 언론계, 일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님(언론정보문화학부), 김창욱 교수님(GLS 학부)과 미국 굴지대학의 교수를 다수 배출해냈으며, KBS 공용조 기자, 최세진 기자, 장성길 기자, 이형일 PD, 박인석 PD, 심인보 아나운서, JTBC 이희정 기자, 이지혜 기자, 국민일보 황인호 기자, YTN 이은지 PD, 연합뉴스 홍지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민지혜 기자, SBS 정재원 PD, kakao뉴스팀 임광욱 등 언론계 일꾼을 배출했고 JYP, SM 등 기획사와 삼성, 현대, LG, SK, 농협, 네이버, 카카오페이, 제일기획, LG애드, 루이까또즈, 언론중재위원회 등 일반기업에 진출한 동문을 배출하였습니다.

학회 소개

CUBE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배움의 열망을 가진 대학생들이 스터디, 공모전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쌓는 광고쟁이 학회입니다.
언로너스(Alone? Us!)	‘혼자’가 아닌 ‘함께’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학회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언정 MT

언론정보문화학부의 학부 MT는 자타공인! 한동대에서 가장 뜨겁고 재미있는 MT입니다. 학부생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밤새도록 각자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언정 WEEK

가을학기마다 열리는 ‘언론정보문화학부 주간’ 행사로 1학년 새내기들이 학부 선택에 앞서 언론정보문화학부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선배들이 기획하는 축제입니다. 선배특강, 진로상담 뿐만 아니라 공연영상학과와 공연이나 영화제를 열어 한동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언론정보문화학부의 졸업생들은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TV, 라디오 등 영상매체 분야와 신문, 잡지, 출판 등 인쇄매체 분야의 기자, 편집진, 프로듀서, 아나운서, 제작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와 홍보 계통의 대행사들과 일반 기업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며, 각종 NGO와 정당 등에서 홍보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졸업생들 가운데, 국내외의 대학에서 교수로 활약하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언론계의 방송사 및 신문사

중앙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MBC, KBS, SBS, JTBC, CBS, CTS, CGNTV, 극동방송, 뉴스1, JTN 미디어 등

광고 기획사 및 제작사

제일기획, McCann Worldgroup Korea, MPR Vision, 미디컴, 원더월드 스튜디오, 공드오션커뮤니케이션즈, 이노레드, 플라잉트리기획 등

NGO기관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탈북여성연대 등

기업 및 정부기관

LG전자, 삼성전자, 국민연금공단, 국회사무처, 현대카드, 현대건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히타치케미컬, 티웨이항공, 지멘스 등

언론사

JTBC, CBS, 한국경제신문, Kakao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해외 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Univ. of Alabama, Univ. of Missouri Univ. of Massachusetts 등

✧ 졸업생 이야기 ✧



**민지혜(00) - 한국경제신문사
취재기자**

언론정보문화학부(이하 언정)는 기사를 꿈꾸던 제게 한동대를 가야 할 이유이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통로였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 영화, 광고, 연극,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던 동료들과 같이 미래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경험도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언정인이었기 때문에 도전했고 가능했던 라디오방송국 아나운서, 포항 지역 방송국 프로그램 참여 등의 경력 역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가 된 언정 선배들이 날카롭게 제 글을 봐주면서 입사 준비를 도와준 것이야말로 합격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폭넓게 공부하고 마음껏 뛰놀아야 하는 대학생 시절, 놀면서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싶다면 언정에 지원하십시오.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으면서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해 넓은 상식도 갖출 수 있는 학부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즐기면서 배우는 즐거움이 언정에 있습니다.



심인보(97) - KBS 아나운서

한동대학교의 '무전공 무학부' 덕에 언론정보문화학부(이하 언정)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며 내 적성에 맞는 학부를 고를 수 있었죠. '언정' 선택 후에도 학부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공모전, 공연 연출 및 출연, 토론회 출전 등 언정 전공 과목과 연계해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4학년이 돼서야 '아나운서'의 진로를 정했던 저에게 폭넓은 언정 공부는 뒤늦게 시작한 언론고시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방송인이 된 지금도 언정에서 배운 것들은 프로그램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정도입니다. 330만 경남 도민을 대상으로 매일 뉴스를 전하는 앵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싶은 분들은 '언론정보문화학부'로 오실 것을 자신 있게 권합니다. 언론, 영상, 광고, 공연이야말로 세상에 전하는 파급력이 큰 매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동 후배에 이어 언론인 후배로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주영은(15)

저는 기사를 꿈꾸며 언론정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읽어내는

글을 쓰고 보도를 하는 기자의 모습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 꿈을 4년간 바꾼 적 없는 저는 언정에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언론 관련 학회에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언정의 강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수업'이 있다는 사실이 제가 꿈은 결정적 강점입니다.

2학년 때부터 3년간 수업을 들으며, 저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론정보 트랙의 수업들은 이 사회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다루고, 분석합니다. 수업에서 들은 내용은 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디어를 통해 내 생각을 매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사회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했습니다.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의 깊은 부분까지 훑을 수 있었습니다.

꼭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희망하지 않아도, 언론정보 전공의 수업들은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원하고, 사회적 이슈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뉴스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나가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의 공부가 저에게 생각의 깊이를 더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말을 걸고 싶으신 분들! 한동대에 오셔서 언론정보 전공을 선택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최선우(17)

한동대학교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

는 '무전공 무학과제도'와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통해 한동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동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저 성적에 맞춰 가고 싶지 않은 학교의 학과에 입학해서, 꿈과 비전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만의 '무전공 무학과제도'는 제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전공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저의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학교의 슬로건인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는 메시지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커다랗고 멀게만 느껴지는 이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한동의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모습에 더욱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정보문화학부는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학부 슬로건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한동의 슬로건에 '어떻게'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큰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향력이 큰 언론과 미디어, 공연과 영상 등을 전공하는 학부인 만큼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과 더불어 인성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쳐 주십니다.

언론정보문화학부로의 진학을 통해 여러분이 저와 같은 꿈과 비전을 품은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바르게 맑은 콘텐츠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언론정보문화학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론정보문화 학부

언론정보학 전공 / 공연영상학 전공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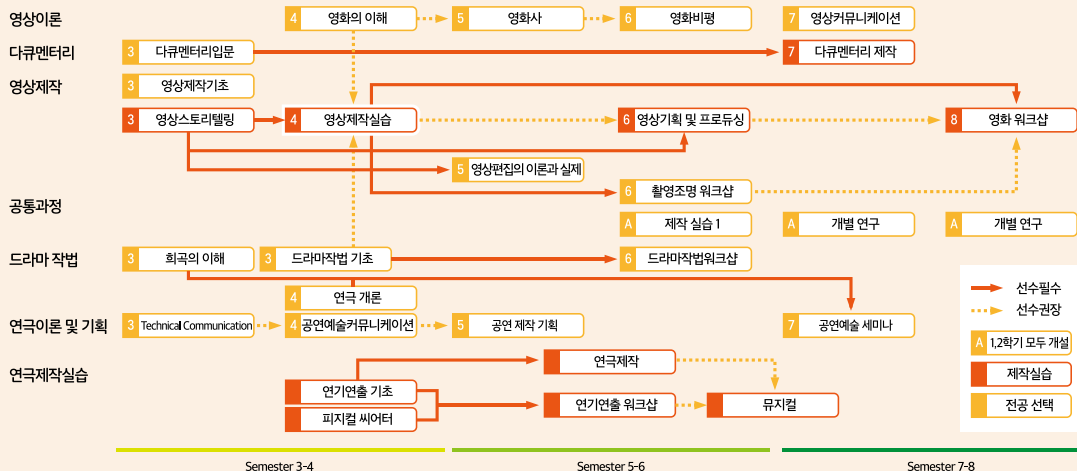
한동대 공연영상전공에서는 공연과 영상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세상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무대 위에서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연으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영상을 단순히 찍고 만드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공연영상전공에서의 작업은 다양한 재능과 성향들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구상해야하고, 그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을 구체화하는 사람, 작품을 무대 위 혹은 카메라 속에 어떻게 담아내고 다듬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관객에게 어떻게 선보일지에 대한 접근법을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협동과 헌신으로 한 편의 멋진 작품이 탄생하기에 공연영상전공은 혼자서 빛나는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사람들과 자신의 꿈과 생각을 소통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더 어울리는 전공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공연영상전공은 공연 트랙과 영상 트랙의 과목들이 분리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두 트랙의 과목들을 이수하다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과 감성이라는 공통점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4학년 때 작업하는 졸업 작품을 위해서는 공연과 영상 중 자신이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2학년 때 기초과목을 두루두루 들어보고 자신에게 더 맞는 분야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공연 트랙은 공연을 위한 극본을 쓰고 기획을 하며 연극과 뮤지컬을 직접 연출하고 출연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영상 트랙에서는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와 다큐를 찍고 편집을 하여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공연영상전공 이수체계도(제작실습과목 4과목 이상 수강필수)



대표 강의



공연수업(연기연출기초, 연기연출 워크샵, 뮤지컬, 연극제작)

드라마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극작의 차원, 공연기획의 차원, 무대연기의 차원, 무대극 제작의 차원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제 공연사례를 학습합니다.

영상트랙 수업(영상스토리텔링, 영상제작실습, 영상기획 및 프로듀싱, 다큐제작, 영화워크샵, 촬영조명워크샵, 영상편집의 이론과 실제)

영상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배워 구체적인 작품제작을 위해 기획을 하고, 영상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보는 영상 트랙의 전공실습 수업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경험을 통해 실전을 배우다!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의 공연영상학 과정은 타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영화학과, 연극학과, 방송학과 등으로 나뉘어 있는 수업들을 공연영상학 전공을 통해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모든 제작 수업에서는 배우, 기획, 연출, 스텝 등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자신의 적성을 살린 진로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각 연극, 뮤지컬 수업에서는 공연을 직접 만들어 내며, 젊은 연극제 등 전국의 우수 공연제에도 참석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영상 제작 수업의 경우 영화, 다큐멘터리를 기본으로 심화 영상 제작 수업 등을 통해 영상 제작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꿈을 향해 공부하십시오. 다행히 우리대학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이과였던 문과였던, 좌뇌가 발달하였다거나 우뇌가 발달하였음을 상관하지 말고 하고 싶은 전공공부를 시작하세요. 언론정보문화학, 특히 공연영상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시작하면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공부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연영상전공, 강두필 교수 인터뷰 中)

학회 소개



CHERK (영화제작학회)	영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영화에 대한 기본적이고 다양한 이론 공부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학회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로 영화 제작을 완성하는 것이 학회의 주요 목적이며 제작한 영화를 영화제 등에서 상영하기도 합니다.
KHAZON (영상학회)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회원들이 영상제작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에 있어 어떤 가치관을 콘텐츠에 담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시네마테크한동 (영화비평학회)	시네마테크 한동은 학부와 학년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다는 공통점 아래 모여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영화를 매주 모여 감상한 뒤, 구성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영화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학회입니다.

시네마베리떼 (다큐멘터리학회)

시네마베리떼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제작을 목표로 학회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자유롭게 공부하며 직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학회입니다.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를 EBS다큐프라임과 함께 제작하여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전공봉사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하였고, 아프리카와 인도와 같은 나라에 파견되어 홍보영상 및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학회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연극 또는 뮤지컬 교내 공연 학기 말이 되면 공연실습 수업에서 한 학기동안 연출로, 배우로, 스텝으로 하나 된 학생들이 그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무대를 펼칩니다.

HDDF한동영화제 한동영화제에서는 매년 봄 지난 일년동안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 작품들 중 우수작들을 선정하여 상영하는 영상트랙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젊은연극제 참여 5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는 연극제로서 한동대학교도 매년 참여해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공연학과 학생들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줍니다.

방학중 대규모 단편영화 프로젝트 워크샵 매년 여름/겨울방학에 이뤄지는 단편영화 실무워크샵으로, 수업때 이뤄지는 통상의 학생 프로덕션보다 더 큰 규모로 다양하고 많은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영화제작과정의 흐름을 익히게 됩니다. 고학번의 학생들이 각 분야(연출/제작/촬영/조명/음향 등)의 책임을 맡아 저학번의 학생들과 실무작업을 하며 교육도 겸하는 워크샵입니다.

※ 졸업 후 진로 ※

공연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방송사, 공연 제작, 기획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으로는 PD, 아나운서, 배우, 작가, 광고 기획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한동의 졸업생들은 공연 제작, 기획사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나 PMC와 같은 극단에서 연출과 기획 또는 배우나 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고 분야에서는 졸업생들이 유수의 광고 기획사, 제일기획, LG AD 등 대행사에서 일하고, 방송사, 프로덕션 등 일선에서 감독과 PD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방송사

KBS, MBC, SBS, 에스비에스홀딩스, JTN 미디어 등

공연/영상/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 로드픽처스, CJ E&M, PBC프로덕션, 극단미추, 나인후르츠미디어, 드림빌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한국연극협회, 한국세라프, 미디컴, 규장문화사, 제일기획, 원더월드 스튜디오 등

※ 졸업생 이야기 ※



김현중(97) - FFC group

한동의 언론정보문화학부에는 아주 특별한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즐거움, 아름다움, 정의, 공정함, 다양한 개성과 존중이 그것입니다.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하는 문화와 언론의 힘은 이런 한동언정만의 DNA에서 나옵니다. 이미 지난 10여 년간 많은 선배 언정인들이 많은 영역에서 우리만의 DNA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배들과 세상을 놀라게 할 차례입니다. 멋진 후배들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양혜영(97) - CJ E&M

저는 뮤지컬, 연극 등 공연콘텐츠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말 그대로 “전공을 살리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필드에서 많이 느낍니다.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PR개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강의들과 연극제작을 실제 경험해보았던 수업들입니다. 강의 내에서 학우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경험들이 현장에서 14년차 일하고 있는 선배로서 뒤돌아보니 과히 우리학부 수업은 현장의 축소판과도 같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해결능력을 사회경험에 앞서 지도교수님들을 통해 잘 배운 덕분에 사회에 나와서 헤매지 않고 역량을 갖춘 인재로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새삼 하나하나 값진 수업, 특별한 기회가 우리에게 참 많았다고 깨닫게 되네요!



※ 재학생 이야기 ※



서지원(13)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

는 언론이나 공연영상은 생동감이 느껴지는 분야였지만, 이것을 책으로 배우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책 읽기를 강조하시는 교수님 덕분에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도 찾아 읽게 되면서 배우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넘기던 부분들의 원리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시기가 다가오면 이 전공이 나와 잘 맞을지,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전공 선택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해보기 전에는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저 또한 관심있는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언론정보문화학부에 와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의 진로 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공연을 연출하고 기획하는 것에도 깊이와 생동감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펼칠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후배님들도 기대가 됩니다. 한동인으로 만날 그날까지, 파이팅!



최주연(15)

언론정보문화학부는 누군가에게는 ‘한동’ 답지 않은 곳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

니다. 개성있고 주관이 뚜렷한 선배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당황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유순하고 남을 배려하는 교회 언니 오빠’들과 함께했기에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언정’이아말로 결과보다 과정을 배워가고, 또한 ‘사랑’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학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공연영상 트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연이나 영화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히며 몇 일 밤을 새곤 합니다. 꿈꿔왔던 일들이지만, 막상 마주해보니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막막함에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순간도 오지만, 십 여명의 스태프들의 고생이 들어간 작품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 다시 일어설 수 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과 서로를 조정해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양하게 교제하고 배우며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늘 반짝이던 결과물을 동경하던 소녀였지만, 이제는 책임을 지고 자신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론정보문화학부에서 사랑 또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며 직면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영상과 언론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단단한 신앙과 실력을 함께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이공계열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 전공
도시환경공학 전공

기계제어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전자제어공학 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전공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전자공학 전공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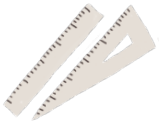
제품디자인 전공
시각디자인 전공

ICT 창업학부

ICT융합 전공
ICT창업 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공간환경 시스템 공학부

"이웃을 위한
공간 환경설계"



건설공학 전공 / 도시환경공학 전공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는 크게 두 전공인 '건설공학'과 '도시환경공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공학은 건축과 토목으로 도시환경공학은 도시와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부적인 개별분야가 아닌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인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설계, 구조지반, 수공학 등을 공부하여 기본소양과 실무 능력을 겸비합니다. 나아가 공간의 역사 등 전공과 관련된 인문학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 또한 전공학습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축은 인류역사의 시작부터 미래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활동이며, 인간의 다양한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면을 통합하여 볼 수 있는 철학적 사고를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목은 생태환경 관련 의 과목들과 환경공학, 구조공학, 지반공학, 유체공학 등의 기본 공학들을 공부하고 도로·철도, 공항, 항만·해안, 교량, 터널, 댐, 하천 등의 토목인프라 건설을 위한 과목들을 배웁니다. 더불어 종합공학설계, 세미나, 인턴십 등을 통하여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공학현상에 대한 직관과 종합문제 해결 능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건축

건축은 U Theory와 같이 건물을 설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사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외형에서부터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과 내부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외형을 결정하는 방법 등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설계 스튜디오마다 접근해 나가는 방법 등을 달리하여 다양한 설계의 방향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특화과정: 전공의 최소 학점인정 기준인 33학점 이상을 건축특화과정의 교과목에서 취득하고, 그 중 건축설계과목의 필수 20학점(건축설계1, 건축설계2, 건축설계3, 건축설계4, 건축설계5)을 이상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건축특화과정은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명이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건축특화과정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

토목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본적인 토목 지식을 폭넓게 배우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탕이 된 커리큘럼으로 토질공학, 해양공학, 구조공학 등 토목 분야의 다양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MATLAB, MIDAS 등 실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루게 됩니다.

대표 강의



건축설계1

건축가는 삶에서 느낀 바를 공간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보고 느낀 것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적절성을 검증한 후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구조역학

구조역학은 건축물의 물리적인 움직임과 구조적인 분석의 기본원리를 배우는 강의입니다.

건축계획총론

건축물은 학교, 병원, 오피스, 도서관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각기 그 성질에 따라서 필요한 포맷이 있는데 건축계획총론은 이러한 포맷들을 배우고 익히는 강의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전공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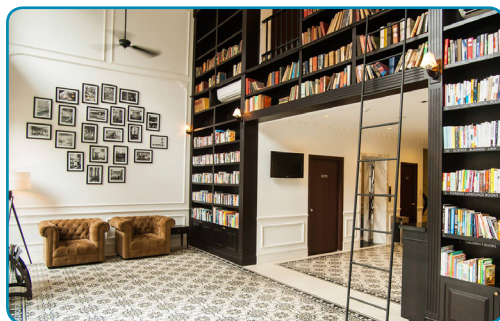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이하 공시)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학부로서 배우고 가르치는 중점 또한 그 가치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건축과 토목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가치를 가르칩니다.

Change the World의 비전을 실천하는 한동대 동문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한동대 동문들이 세상을 바꾸자는 비전을 품고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 나아가 건설회사인 NIBC그룹, 한동E&C 주식회사, NIBI학교 등을 세웠습니다. 특히 NIBC 그룹은 한동대 재학시절 NIBC(Not I But Christ)라는 성경공부 단체에 소속하여 말씀을 통독하고 교육과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세워나간 동문들이 의기투합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정직한 경영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 하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 및 도시개발을 하고 있으며, 수익으로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는 유치원을 세우는 등 교육 사업도 함께하며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서 칭찬받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한동대 동문, 베트남·태국·캄보디아에 보금자리와 교육의 희망을 심다!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Psalm 133:1)



학회 소개

한동건축학회 (HIA)	순수 건축을 공부하는 한동대 유일의 건축학회입니다. HIA는 Handong Institute of Architecture의 약자로 건축에 관심이 많고 색다르게 여러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부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로 건축에 관련한 심화 연구, 토론, 전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공모전 및 실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함으로써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들과의 끊임없는 교류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에 관한 고민 상담, 경험을 통한 조언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쿠아젠	토목공학학회 아쿠아젠은 자연과학의 기초 이론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등의 오염 예방과 소음 및 진동 공해 방지 등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런 환경문제에 직면할 때 필요한 이론과 기초를 공부하고, 수치 모델링에 필요한 툴인 ‘매트랩’과 ‘플루언트’ 등을 교과 이외의 학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천화 방지’ 또는 ‘Bio Sand Filter’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환경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코한울	친환경건축학회 에코한울은 현대건축에 요구되는 ‘생태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를 주제로 활동하는 학회입니다. 자연 친화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건축 설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들을 공부하며, 이를 설계 프로젝트에 적용시켜 진행하거나 친환경 건축 공모전에 참여합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건축 설계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Revit을 활용한 BIM’을 함께 공부하며, 이외의 툴도 1:1 멘토링을 통해 공부합니다. 그 외에도 건축답사와 여러 직무현장에 계신 선배님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전공과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졸업설계 전시회

주로 졸업 전 마지막 설계 수업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교내 뿐 아니라 포항, 서울 등의 지역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만원의 사랑 프로젝트

졸업생들이 소정의 금액을 모아서 재학생들이 뜻있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사입니다. 학회 지원금이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스톤

학생들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동안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고 내용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수학캠프

주로 토목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선배들과 교수님께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행사입니다. 보통 겨울방학에 팀을 짜서 진행하게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졸업생의 진로는 크게 대학원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미국과 유럽 상위 대학원에 진학 중이고 건축과 토목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현장에 있는 졸업생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적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정부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공기업 LH공사, SH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사기업 건설회사,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회사

졸업생 취업



건축 관련 기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건설, 서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PARK, NIBC, 건보엔지니어링, LK엔지니어링, 태조엔지니어링, 유앤디엔지니어링, 포항아스콘, 문화건축사무소, ENO건축설계사무소, 솔빛건축사사무소, DSK엔지니어링, Mott MacDonald 등

연구소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촌개발공사, 수자원개발공사, 인천개발공사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학교 건축학 대학원, 토목 및 도시공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동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UCLA),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Manchester 등

✧ 졸업생 이야기 ✧



이병희(05) - 이랜드 건설

안녕하세요? 새 가족 한동인 여러분!
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건축공

학과 도시설계를 전공한 05학번 이병희입니다. 이랜드그룹 건축디자인실을 거쳐 지금은 기획실에서 부동산개발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한동대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한 06학번 김지연 동문이에요. 한동 팀제도로 만난 이끄심이 이제는 평생을 함께 사랑하는 인연이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있어서 한동은 대학 그 이상의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 20살의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천방지축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에 입학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비전을 꿈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한동인들이 외치는 'Why not change the world?'의 힘을 아시나요?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 시절 여러 회사 최고경영자들 앞에서 제가 한결같이 나누었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마스터 디벨로퍼가 되고 싶습니다."였습니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을 갖고 주어진 비전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경영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감하며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에서 배운 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잡고 당당히 세상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

다. 새가족 한동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비전을 꿈꾸는 인생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한동의 사랑을 함께 나눌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최성우(03) - HGI (Holistic Growth Initiative)

한동에서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던 저는 사라지고 '공동체', 즉 '커뮤니티'로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은 단순히 건축, 도시에 대한 지식적인 가르침만 주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가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 나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워싱턴동아리 GO, 선교공동체 NIBC라는 두 공동체를 통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터키, 대만 등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험들도 쌓고, 팀워크도 배웠습니다. 현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이를 실천하는 체인지메이커(사회적기업가, 크리에이터 등)들이 함께 일하고, 살고, 노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효경(16)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라 하시니라.(창세기 1장 28절)’

안녕하세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건축과 도시를
전공하고 있는 16학번 김효경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
조하신 이 세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더럽혀져가는 환경과 국가의 분단 등 창조 당시
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픈 날
들이 많아져만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
민을 처음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는 건축공학과 도시환
경공학, 두 전공학문을 통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
간환경을 설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
라 공간을 만들어 식막해진 이 곳,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의 사랑과 기쁨을 불어넣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는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하나님
을 닮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
키며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서 함께 공부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지혜(17)

안녕하세요. 이웃을 위한 공간환경
설계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최지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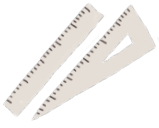
저는 고등학생때부터 건축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선택했습
니다. 자신만만했던 1학년 때와는 달리, 전공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내가 과연 건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과도 고민하게 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설계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이 격려해주며 응원해주었고, 이에 힘입어 다시 전공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해야 하는 대상일
테지만, 한동에서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서로
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서로 성장하는 나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전공지식도 얻었지만, 함께하는 사
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 손꼽을 수 있는
감사한 일로 다가옵니다. 혼자 밤을 새워 설계를 했더라
면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버티며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한동인들께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변에 같은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
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남을 돕
는 건축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
질 때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꿈이 많은 한
동인, 그리고 예비 한동인 여러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꿈이 많
은 저 또한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
의 크기가 어떻든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한동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공간환경 시스템 공학부

"이웃을 위한
공간 환경설계"



건설공학 전공 / 도시환경공학 전공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원절약적인 삶, 빈부차이 및 지역격차해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계획 등의 시각에서 도시환경공학은 실용적이고도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도시환경공학 전공을 통해 학생들은 생태환경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 토지 이용계획, 도시구조론, 주택 및 주거론, 환경영향평가, 환경공학 등에 대해 배웁니다. 도시계획 및 설계는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한 학문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할 영역이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공간학, 경제학, 개발경제학 등 전공 관련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세부적으로 도시환경공학은 크게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분야, 나아가 우리 학부의 특성화 교육인 국제개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도시계획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면 교통, 소음, 범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국제개발 분야 우리 학부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거대도시문제, 빈곤문제, 불량주택문제, 경제개발문제, 환경정책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기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도시설계 분야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면 도시설계는 그에 맞는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학문입니다.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것에서 크게는 계획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 강의



국제개발계획 세계의 여러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인구, 도시·주택문제, 개발·환경문제 등 국내·외적인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 이론, 해결 방안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로 이루어진 지리데이터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기초적인 개념과 운영방식, 활용방법을 익힘으로써 지형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전공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공간분석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시 및 지역계획론 도시를 계획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고, 기존의 터전 위에 최소한의 재구성을 통한 개발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에 대한 설계, 계획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전공 공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이하 공시)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학부로서 배우고 가르치는 중점 또한 그 가치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한동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도시 및 환경에 관한 전공 지식과 더불어서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매년 교수님과 함께 베트남,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 답사를 가서 현지의 도시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대학교의 교수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동대학교 공시 졸업생들은 베트남에서 NIBC Group이라는 기업을 창업하고,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도입하여 도시 개발, 단지 계획, 주택 건설을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일반카페	Urban Cafe는 도시를 공부하는 학회로써 도시의 새로운 이슈나 문제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한 답사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도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과 알지 못했던 도시의 모습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젠	토목공학학회 아쿠아젠은 자연과학의 기초 이론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등의 오염 예방과 소음 및 진동 공해 방지 등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런 환경문제에 직면할 때 필요한 이론과 기초를 공부하고, 수치 모델링에 필요한 툴인 '매트랩'과 '플루언트' 등을 교과 이외의 학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천화 방지' 또는 'Bio Sand Filter'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환경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졸업설계 전시회 주로 졸업 전 마지막 설계 수업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교내 뿐 아니라 포항, 서울 등의 지역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만원의 사랑 프로젝트 졸업생들이 소정의 금액을 모아서 재학생들이 뜻있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사입니다. 학회 지원금이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스톤 학생들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동안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고 내용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수학캠프 주로 토목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선배들과 교수님께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행사입니다. 보통 겨울방학에 팀을 짜서 진행하게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건축가, 도시계획 및 설계가, 토목기술자, 시공기술자, 수자원전문가 등으로서 커리어를 쌓아 갈 수 있습니다. 한동대 졸업생은 국내는 물론 빈곤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개발도상국가의 도시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국내·외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 과학기술연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그린에너지, 수자원 정책 및 기술개발, 해안공학, 산업 및 지역개발 정책, 대도시 정책개발, 건설용 첨단소재개발, U-City 개발 등 관련 분야의 IT접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건축 관련 기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건설, 서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PARK, NIBC, 건보엔지니어링, LK엔지니어링, 태조엔지니어링, 유앤디엔지니어링, 포항아스콘, 문화건축사무소, ENO건축설계사무소, 솔빛건축사사무소, DSK엔지니어링, Mott MacDonald 등

연구소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촌개발공사, 수자원개발공사, 인천개발공사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학교 건축학 대학원, 토목 및 도시공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동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Harvard Kennedy School, Aalto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TEXAS A&M University 등

* 졸업생 이야기 *



**서덕수(95) - 하버드대학교대학원
졸업(Urban Planning and Design
전공), NIBC SYPM 프로젝트 디렉터**

현재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건축가로서 건축도시건설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시공의 완성을 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최종 목적은 창조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좋은 디자인의 건물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창조하는 건축가, 이런 창조인을 부르는 곳은 세계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한동대 공간시스템공학부(이하 공시)는 건축가라는 꿈과 비전을 제게 심어준 곳입니다. 다양한 이론과 기술 관련 수업을 통해서 매뉴얼을 익히고,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디자인하며 실험해봅니다. 밤을 새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디자인하며 모형을 만들다보면 어느새 동이 트던 한동 시절이 참 소중했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던 한동 정신에 세워진 건축가는 구별됩니다. 남들처럼 돈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건물

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보니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은 한동대 졸업생이 세운 NIBC 기업을 통해 동남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큰 촉진제가 되고 있지요. 공시는 지역개발의 선두주자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와보니 사람과 도시에 제일 필요한 것이 두 발 뺀고 잘만한 집, 편하게 걷고 다닐만한 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만한 공원 등입니다. 이런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커뮤니티 변화의 큰 핵심이지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에 가슴이 뛰고 뭔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공시에서 여러분의 꿈과 인생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가야할 곳은 우리 도시 너머 북한 및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박성은(11)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협동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에 입학하여 2015년도에 한동을 졸업한 박성은입니다. 저는 1전공으로는 도시계획 그리고 2전공으로는 건축을 공부하였습니다. 처음 한동대를 입학할 때는 사실 도시계획이나 건축전공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국제어문학부를 선택하였으나 결국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로 오게 되었는데, 직접 내 생각과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고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는 분야라 좋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전공을 하면서는 이론도 열심히 했지만 설계에도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시간을 설계에 투자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졸업할 때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전공분야가 도시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각자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건축을 함께 다루는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협동과정의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도시설계 협동과정은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모여 도시단위의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으로 저는 대학원에서 작은 동 단위에서부터 신도시 단위의 프로젝트들을 여러 분야의 학생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도시 프로젝트는 2016년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 및 학생이 함께 모여 작업한 10일간의 서울리빙랩 워크샵입니다.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상지 향상을 위한

큰 개념 정립에서부터 유희 공간 활용과 같은 작은 아이디어까지 짜임새 있게 기존 도시조직을 만지는 독일의 도시 관리 기법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도시설계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70년대부터 기존 도시를 개선하는 관리기법을 적용시켜 왔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자동차로 뒤덮인 광장을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광장으로 바꾸어 도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외에도 여러 가능한 작업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건축가이자 도시설계가인 지도교수님의 설계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올 가을 독일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입학허가를 받았고 그곳에서 건축설계 및 도시 관리 기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물론 그곳 유럽에서 다년간 실무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래의 얘기지만, 그 이후 귀국하여 포항과 같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민관사업과 연구에 참여하여 '지역 공간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이 제 일차적인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정광식(15)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부는

타 대학에서 하나의 학과로 존재하는 건축, 도시, 토목 등의 분야가 융합된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다 살기 좋은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도시환경공학과 건설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환경공학은 도시계획과 설계, 그리고 환경공학의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구분짓는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그림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택, 토지, 경제, 인구 등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의 분석과 미래 지표의 예측을 통해 정책을 설정한다면, 도시설계는 신도시 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설정 등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획도시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위한 공간 환경 설계'가 우리 학부의 슬로건인 만큼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주택, 인구, 환경, 범죄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개발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물리적인 공간을 설계하는 법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공간 환경을 설계하는 것은 '배워서 남 주자'라는 한동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과 공학의 범주를 넘나드는 도시환경공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모든 분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로의 발걸음을 추천 드립니다.



한승주(17)

고등학교 재학 당시 건축과 도시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입학 후 다양한 교과목들을 수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로 진학하였습니다.

저희 학부는 '이웃을 위한 공간환경설계'라는 슬로건 하에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건설공학과,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도시공간과 환경에 대해 배우는 도시환경공학을 공부합니다. 학부 교수님과 학생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수님께서는 전공 지식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게 지도해줍니다. 또한, 저희 학부에 들어오면 학부생들이 학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건축설계를 목표로 하였으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진학 후, 전공수업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함께 개발도상국을 방문하여 지식을 교류하는 'UNITWIN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이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 곳과, 내가 흥미있어 하는 분야를 찾아 저만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 들어와 함께 공부할 친구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주는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이 소중한 공동체와 함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가족처럼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성장하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기계제어 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 전자제어공학 전공

"생각대로 움직인다,
낭만기계"



기계공학은 다양한 기계장치의 설계, 구조 및 재료의 역학적 특성 등의 문제와 관련된 물리적 원리를 다루는 학문분야입니다. 기초분야로는 재료의 강도와 변형을 다루는 재료역학, 외력에 의해 야기되는 운동 혹은 진동을 다루는 기계역학, 기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상호운동을 다루는 기구학, 열·유체의 특성을 다루는 열·유체역학 및 에너지의 전달 현상을 다루는 열전달 등이 있습니다. 응용분야로는 다양한 구속 조건 하에서 기계를 최적 설계하기 위한 기계설계, 기계제작법을 다루는 기계공작법 등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자는 기계설계 및 제조부문, 기술관리 및 용역부문, 에너지 이용, 유체기계,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듯 기계공학은 공학 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 또한 매우 넓습니다.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기술이자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기술을 지원하고 있어, 그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기계공학 복수전공 프로그램

기계 및 이에 관련되는 장치설비의 설계·제작·운전 등에 대하여 기초 및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기계공학 이론과 더불어 다양한 소그룹 실험 실습과제를 통해 각종 기계 및 장치 설계를 직접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역량있는 기계공학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MART 기업설계융합트랙(스마트 생산제조, 스마트 모빌리티 인증과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SMART(Smart Mobility and Advanced Robotics Technology & Design) 제조업 R&D 인력양성을 목표로 대학교수의 전문지식과 협약기업 전문가의 실무 노하우를 공동으로 교육함으로써, 재교육이 필요 없는 진정한 의미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철강/발전플랜트 자동화 등 스마트 팩토리 개념과 기반기술 교육에 특화된 '스마트 생산제조' 및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모빌리티 시스템의 자율이동 및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 역량교육에 특화된 '스마트 모빌리티 인증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 학생에게는 취업희망 기업 맞춤형 진로지도, 기업탐방, 기업융합개발실(ICL) 내 포스트캡스톤, 현장 연구개발, 스마트기술 집중강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졸업 전에 협약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표 강의



열역학

열과 일 및 물체간의 관계와 변환 문제, 가스동력 사이클 및 시스템, 냉동 시스템의 기본 사이클을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열 시스템에 대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및 설계 능력을 배양합니다.

정역학 및 동역학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의 해석능력을 배양합니다. 벡터 해석, 힘의 해석, 모멘트 해석의 기본을 쌓은 후에 자유물체도를 기반으로 구조물의 지지부 모델링, 외력(하중) 부여, 반력 계산, 내력 계산 및 마찰력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형상과 관련된 무게중심과 면적 및 질량 관성 모멘트에 대해 학습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좌표계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모멘텀 보존의 법칙 등을 통해 동적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유체역학

다양한 유체기기와 에너지 시스템의 설계와 분석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합니다. 유체 정역학에서 출발하여 유체 동역학을 설명하는 지배영역과 이에 해당하는 비선형 보존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무차원화를 통한 상사성, 내부유동, 외부유동 및 경계층 이론에 근거하여 사물과 유체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며, 이를 통해 유선형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합니다.

고체역학

재료의 기계적 성질, 응력, 변형에 대한 개념을 학습합니다. 구체적으로 축력, 굽힘, 비틀림을 받는 부재의 응력상태, 응력변환, 변형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비틀림 봉에 대한 스트레인 게이지 실험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응력을 해석하는 도구를 실습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우수한 학부생 연구성과

- 종합 설계 교과목과 연계한 학부차원의 학부생 연구 지원
- 특허출원, 공모전 출품 제도화
- 학부생 중심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행 (현대자동차, 고려제강 등)
- 학부생 SCI급 11편 게재 이상(최근 3년) 등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공모전 수상

2016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1건(해외 11건)
2017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8건(해외 13건)
	• 산업통상부장관 논문상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부생 논문상
	• 효성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등
2018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7건(해외 17건)
	•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동아리 대회에서 기술아이디어부문 장려상

실험실 소개

로봇기구 및 동역학 연구실	본 연구실에서는 로봇의 각종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기구적 메커니즘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보행, 그리고 손발의 움직임으로부터 보행 로봇과 산업용 로봇 Manipulator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링크 및 조인트의 기구학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이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고속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회전 기계의 동역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속회전축의 동역학적 해석을 통해 회전 중 발생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더욱 정속하고 안전한 작동이 가능한 기계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동 제어를 위한 각종 부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연구실	본 연구실에서는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인체에 적용하여 지능형 기기를 개발하는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는 기계, 전자, 계측, 제어, 컴퓨터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해 미래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주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알약을 의사가 원하는 부위로 이동시킨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Pill Camera Actuator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 메커니즘 및 액추에이터 개발, 역학 시뮬레이션,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구동기와 센서 인터페이스, 초음파 영상 촬영, 무선 신호전송 및 충전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3D 프린터 등 정밀 가공기기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 열 유체 연구실	본 연구실에서는 이상유동현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의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유동이란 보통 기체와 액체상태가 혼재하는 유동을 말하며 열에너지가 교환되는 시스템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유동 경계면 전달 현상분석 및 가시화(양력, 경계면적밀도, 임계열유속, 단층이미지 LDV), 에너지시스템 및 플랜트 공학(초고온가스 및 가압 중수형 원자로, 원자로 중대사고, 플랜트 최적화, 증기플라즈마 인조석유 생산 시스템), 미래에너지 개발(연료전지, 태양광 펄핑 레이저 이용 수소생산, 음파발광 현상 이용 나노입자 생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수학캠프

수학캠프는 매년 겨울방학에 개최되며, 전공 진입 첫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는 학부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전공 수업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기전공학의 기초가 되는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등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Peer tutoring 프로그램입니다.

CATIA 캠프

CATIA 캠프는 매년 여름방학에 개최되며, 기계제어공학부의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CATIA는 프랑스 Dassault사에서 개발한 3차원 CAD 프로그램으로 자동차나 항공기를 설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캠프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단품 설계에서부터 솔리드 모델링, 어셈블리, 드래프팅, 곡면 기능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설계(GSD, FreeStyle, Imagine&Shape, IECM) 등을 실습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 기술인 기계, 에너지, 플랜트, 전자제어, 계측, 실시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부하므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 조선, 공작기계, 플랜트, 에너지, 철강 등의 전통적인 기계, 에너지 산업, 자동차, 항공우주, 공장자동화, 로봇 등 국가 신 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산업, 전자정보기기 및 가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 전기전자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계제어공학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산업계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LG 넥스원,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에는 국가 및 산업체 연구기관 연구원 혹은 교수가 되어 기전공학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자격시험을 거쳐 기계, 전자제어 분야의 공무원이 되거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전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기전공학 엔지니어에게는 창업의 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중공업 POSCO,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어, 삼성테크윈, 엘아이지넥스원, 자이벡, 한국델파이, 고려제강 등

자동차 볼보그룹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발레오 전장 시스템 등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LG화학, 한국서부·남부발전, 경남·영남에너지, 장한기술 등

플랜트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창업 SOSLAB, enSalt, OHFATech 등

공기업/연구소/정부 변리사,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전 KPS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대학원, KAIST 대학원, POSTECH 대학원, 서울대학교대학원, GIST 대학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연세대학교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Texas A&M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University of Tennessee, Georgetown University, 동경공업대학 등

✧ 졸업생 이야기 ✧



조재한(08) - 한국수력원자력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발전팀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열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자로와 이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발전소가 과도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기계/전기/계측 등 여러 정비팀들과 협업하여 설비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부시절, 전공지식과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였던 경험이 제게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큰 자산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정성으로 가르쳐주셨던 교수님들과 함께 배워나갔던 동기들의 소중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밝게 웃고, 최선을 다하는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희성(08) - 현대중공업

저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특수선 설계부에서 군함의 기관실장비 설계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관실에 들어가는 장비가 연료유, 해수, 전력, 제어 등 함정을 이루는 수많은 계통의 운용개념을 만족하고, 유사시 생존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성능요건들을 충족하도록 장비의 용량과 사양 결정, 장비선정 및 장비 간 인터페이싱하는 업무를 합니다. 업무 특성상 기계, 배관, 전기의 다양한 설치도면과 계통도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계제어공학부에서 역학과 회로, 로직 등을 함께 배워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직과 성실, 학문적 탁월함을 지향하는 기계제어공학부에서 교수님의 열정적 가르침과 동료와의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 엔지니어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 재학생 이야기 ✧



홍다니엘(11)

생각대로 움직인다, 낭만기계. 저희 기계제어 공학부에서는 타 대학의 기계

공학과와는 달리, 기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을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학업을 수월히 해 나가기 위해선 역학, 전자회로 등 비교적 넓은 물리초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학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론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해보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배움의 고통을 수반하는 실험 수업을 병행하게 되고 프로그래밍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은 공부를 하는 기계제어공학부에 과연 낭만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계제어공학부가 “함께”하는 학부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물리와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공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고 하는 공부도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만심에 빠져 시험을 망치기도 하고, 삶과 학업에서의 부담이 겹쳐서 휴학이 간절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절망에서 벗어나 학기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동고동락하며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또 같이 고민하며 함께 해나갔던 시간들을 통해 저는 평생을 함께 할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아 주시고 기도해주시며 열정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꿈을 가지고 한동에 오신 여러분, 신앙과 실력을 겸비하여 여러분 자신부터 ‘Think as you move’가 아닌 ‘Move as you think’ 할 수 있길 바라며,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강현(14)

문과 출신이었던 저는 자율전공이라는 점을 살려서 이과 과목에도 도전해보고 싶었고, 물리와 calculus 1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해당 과목들을 재미있게 수강했던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꿈과 부푼 기대를 안고 과감히 기계공학부로 전공을 정하였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 이후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전공 첫 학기 당시, 모든 수업 하나하나가 외계어같이 다가왔고, 저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에겐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감을 잃어가며 학기 중반까지도,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미안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 같이 수업을 듣는 한 학우에게 머뭇거리다 질문을 했을 때, 이때 돌아온 것은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이 도움이 저에겐 너무나도 크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며,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기계제어공학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금의 각오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엔지니어로써 접근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함께하고자 하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곳에서 저와 같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승연(15)

제가 처음 전공 선택을 하였을 때 모두들 의아해하거나 걱정의 눈초

리를 보냈습니다. 11살때부터 미국에서만 살았던 저에게 기계공학과 전자제어공학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 한번도 변하지 않고 수학과 과학만 좋아하며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망설임 없이 전공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문과, 이과, 해외 출신 관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동대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수학과 과학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튜터 세션, 스터디 그룹, 수학캠프, 기초 선수과목 등을 통해 교수님들은 모든 학생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학교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의 특성상 끝없는 과제와 시험으로 인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전공을 포기하거나 전과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많은 과제와 시험들을 거치며 결국 함께 성장의 길을 걸어간 귀한 인연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4학년인 지금은 '배워서 남 주자'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로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곁에서 늘 격려와 도움 주시는 교수님들과,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비전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동료들과 함께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어떠한 두려움에 구애 받지 않고 정말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계를 구성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 여러분!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에서 그 첫 걸음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기계제어 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 전자제어공학 전공

"생각대로 움직인다,
낭만기계"



전자제어공학은 전기 및 기계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최적의 동작을 하게 하도록 하는 제어이론, 신호처리 등 지능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하드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전자제어공학은 전기전자공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기계공학과 융합 될 때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어공학-기계공학 융합학문을 흔히 기전공학 (Mechatronics Engineering)이라 명명합니다.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특성 해석 및 설계를 다루기 위한 제어시스템 이론, 제어시스템의 실시간 구현을 위한 제어회로 및 임베디드컴퓨터 이론, 정보처리 및 융합을 위한 계측이론 등이 전자제어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자제어공학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시스템과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컴퓨터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로봇, 무인 자동차/항공기, 자동화기기, 첨단 의료보조/재활기기 등이 전자제어공학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개념 기술입니다. 전자제어공학자는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의 지능화/고부가 가치화 추세에 따라 진출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전자제어공학 복수전공 프로그램

전기 및 기계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최적의 동작을 하게 하도록 하는 제어이론, 신호처리 등 지능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하드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제어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위한 이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어회로, 임베디드 컴퓨터 및 실시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균형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어공학 이론과 더불어 다양한 소그룹 실험 실습과제를 통해 각종 제어시스템을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그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찰력 있는 전자제어공학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MART 기업설계융합트랙(스마트 생산제조, 스마트 모빌리티 인증과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SMART (Smart Mobility and Advanced Robotics Technology & Design) 제조업 R&D 인력양성을 목표로 대학교수의 전문지식과 협약기업 전문가의 실무 노하우를 가 공동으로 교육함으로써, 재교육이 필요 없는 진정한 의미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철강/발전플랜트 자동화 등 스마트 팩토리 개념과 기반기술 교육에 특화된 '스마트 생산제조' 및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모빌리티 시스템의 자율이동 및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 역량교육에 특화된 '스마트 모빌리티 인증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학생에게는 취업희망 기업 맞춤형 진로지도, 기업탐방, 기업융합개발실(ICL) 내 포스트캡스톤, 현장 연구개발, 스마트기술 집중강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졸업 전에 협약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표 강의



자동제어

다양한 기계 및 전자제어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고전제어이론을 소개합니다. 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을 위한 동적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과도 및 정상상태 응답, 주파수 응답, 상대안정도 등에 관한 기본 개념 및 해석방법을 학습합니다.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 실험

수동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제어회로의 특성, 등가회로, Node/Mesh 해석, RLC 회로의 시간응답 및 주파수 응답, op-amp를 활용한 필터회로의 구현 등 회로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합니다. 다양한 제어계측 장비, PSpice 및 MATLAB 등 회로 설계 및 해석 S/W 활용방법을 익힙니다.

신호 및 시스템

기전시스템 설계 및 해석을 위한 수학적 방법론 및 기초 시스템 이론을 학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호 및 시스템의 특성, LTI 시스템 이론과 더불어 시간/주파수영역에서의 시스템 해석을 위한 convolution 정리, Fourier 급수, Fourier 변환, Laplace 변환을 학습하고 그 물리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고전제어 이론의 설계철학 및 통찰에 관한 본질적 이해를 돕습니다.

아날로그 회로 및 아날로그 제어회로 설계

아날로그 제어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능동소자들(Diode, Transformer, Transistor, Op-amp, MOSFET, PWM Driver 등)을 다룹니다. 제어시스템 설계 및 해석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모터 속도 및 각도를 제어하기 위한 페루프 아날로그 제어기 설계, 제어회로 구현, PCB 제작 방법을 학습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우수한 학부생 연구성과

- 종합 설계 교과목과 연계한 학부차원의 학부생 연구 지원
- 특허출원, 공모전 출품 제도화
- 학부생 중심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행(현대자동차, 고려제강 등)
- 학부생 SCI급 11편 게재 이상(최근 3년) 등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공모전 수상

2016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1건(해외 11건)
2017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8건(해외 13건)
	• 산업통상부장관 논문상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부생 논문상
	• 효성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등
2018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7건(해외 17건)
	•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동아리 대회에서 기술아이디어부문 장려상

실험실 소개

지능형 자율이동시스템 연구실	본 연구실에서는 무인 비행체(무인 항공기, 유도탄, 우주 발사체 등)의 유도제어를 위한 제어계측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의 위치·속도·자세를 정밀 제어하기 위한 유도제어 기법의 설계·해석 및 실시간 구현 기술, 무인 비행체 탑재 레이더(탐색기)를 이용한 목표물 탐지·추적 기술, 유도제어 성능 분석을 위한 M&S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대비행하는 다중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Cooperative Sensing 기술을 연구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조난구호 등 다양한 민수·군수 응용분야에 무인 비행체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안전주행을 보조하기 위해 차량용 FMCW 레이더를 활용한 차세대 충돌방지 시스템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휴먼 인터페이스 연구실	본 연구실에서는 두뇌의 제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지능형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운동할 때 발생하는 근전도(EMG : Electromyograph), 뇌전도(EEG : Electroencephalogram)와 같은 생체신호를 계측하고 운동 제어에 필요한 Kinematic/Dynamic Parameter를 추출함으로써 사용자가 조작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인간-로봇 상호작용, 생체신호 기반 근전도의수(Prosthetic Limb), 직감적인 Vehicle Simulator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로봇 연구실	본 연구실에서는 외부의 데이터나 전력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고속 열차, 고부가가치 선박, 항공기, 로켓, 유도탄, 플랜트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기계·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 지식을 통합하여, 첨단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베디드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자체 판단력을 가지는 각종 로봇에 관한 연구와 실시간 운영시스템 상에서의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수학캠프

수학캠프는 매년 겨울방학에 개최되며, 전공 진입 첫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는 학부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전공 수업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기전공학의 기초가 되는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등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Peer Tutoring 프로그램입니다.

PSPice 캠프

PSPice 캠프는 매년 여름방학에 개최되며, 기계제어공학부의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PSPice는 Cadence사의 전기, 전자 및 디지털 회로 등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며, 최적의 기능을 갖춘 아날로그-디지털 혼재회로 시뮬레이터입니다. 본 캠프에서는 PSPice의 기본 사용법 및 시뮬레이션의 종류에 따른 해석 방법, 보다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한 해석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PCB Editor를 이용해 다층, 고속, 고밀도 PCB 설계에 필요한 Artwork 기법 및 Floor Planning을 통한 부품 배치, 세부 회로의 Driven Rule을 지정하여 설계 특성을 부여하고, 부품 또는 회로의 Design Reuse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rtwork 실무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 졸업 후 진로 ※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주요 국가기간 산업의 핵심 기술인 기계, 에너지, 플랜트, 전자제어, 계측, 실시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부하므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 조선, 공작기계, 플랜트, 에너지, 철강 등의 전통적인 기계, 에너지 산업, 자동차, 항공우주, 공장자동화, 로봇 등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산업, 전자정보기기 및 가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 전기전자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계제어공학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산업계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에는 국가 및 산업체 연구기관 연구원 혹은 교수가 되어 기전공학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자격시험을 거쳐 기계, 전자제어 분야의 공무원이 되거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모빌리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발레오 전장시스템, 현대중공업 SL그룹사 등

전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방위산업 LIG, 넥스원, 한화테크윈 등

의료기기 삼성메디슨, 바이오스페이스 등

창업 SOSLAB, enSalt, OHFATech 등

공기업/연구소/정부

변리사,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전KPS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졸업생 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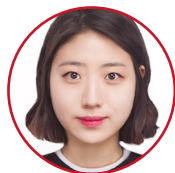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대학원, KAIST 대학원, POSTECH 대학원, 서울대학교대학원, GIST 대학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연세대학교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Texas A&M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University of Tennessee, Georgetown University, 동경공업대학 등

※ 졸업생 이야기 ※



정유정(10) - 현대오토론

저는 현대오토론 제어평가팀에서 차량의 바디·샤시 제어 시스템을 검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전자제어공학을 복수전공한 경험은 자동차에 탑재되는 제어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전공이었기에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고 함께 밤새며 공부한 기억과 제자들의 가능성을 항상 믿어주셨던 교수님들의 믿음은 엔지니어로서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학생이 되어 어떠한 업무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멋진 엔지니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원식(08) - 포스코

저는 현재 POSCO에서 열간 압연된 금속의 냉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설비에 대한 기계적 지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설비 구동에 대한 제어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기계제어공학 복수 전공은 제게 폭넓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고, 여러 방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제어공학 부에서 교수님들께 그리고 같이 수학하는 동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전공 지식과 삶의 태도 위에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 가는 첫걸음을 뚝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혜진(07) - 현대자동차
법규인증팀**

저는 현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안전, 환경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자동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차량관련 법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해야 할 것 같지만, 이 법규들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공학 전공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는 법규인증팀도 팀원의 2/3 이상이 공학 전공자입니다. 재학 중에는 몰랐지만, 기계제어공학 전공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졸업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기계제어공학부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재현(12)

저는 고민 끝에 19살에는 한동대 학교를, 20살에는 기계제어공학부를 선택했습니다. 타 대학 및 학부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저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할 만큼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기계공학과 전자제어라는 쉽지 않은 학문을 모두 공부하여야 하기에 어려움에 자주 부딪히고, 한계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서로 아낌없이 알려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에서는 ‘어려운 학업’이라는 공공의 적 앞에 하나 되어 이를 함께 해쳐나가는 기계과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년별로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에 힘써주시는 학년별 담당 교수님들, 한 제자와 한 선생으로서의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더욱 힘내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계제어공학부를 고민한다면 신입생 분들이 어려움에 겁먹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관을 함께 해쳐나갈 ‘우리’를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 뛰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기계제어공학부 식구가 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훗날 학교 밖에서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다혜(15)

기계제어공학부는 기계, 에너지, 제어시스템 설계에 대해 배우는 학부로, 기계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공학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수학/물리/프로그래밍/역학/기계설계/회로이론/제어이론 등 공학 적 지식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과였지만 물리엔 흥미가 없던 저 또한 엄청난 공부량에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중도 휴학을 할까 고민한 적도 있고 잦은 밤샘에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을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계제어공학부를 통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열정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기계제어공학부는 학생, 교수님 모두 ‘함께’하는 학부입니다. 기계제어공학부의 수업은 대부분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실험해보고 그 내용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기계제어 친구들과 밤을 새며 토론하고 실험하면서 함께 공부합니다.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공부한 친구들 덕분에 저는 힘든 기억보다 즐거운 기억이 더 많이 남는 학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만약 전자제어공학 전공을 고민한다면 공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겁먹기보단 ‘함께’ 극복해 나갈 동역자들을 만날 기대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 나가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생명과학부

"생명의 지혜!
생명을 살리는
열정!"



생명과학 전공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탐구하고 자연 속에서의 생명과 관련된 현상 또는 생물의 기능을 탐구하여 의료 및 식품, 환경 등 인류 복지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여러 학문과의 융합을 통하여 생물체의 연구를 다른 학문에 적용 시키는 등 상당히 넓게 사용 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 현재의 많은 의약품들이 생명체의 증식, 운동, 조절, 대사 등의 현상 연구를 통해 나오게 된 결과물이며, 생명체의 연구를 통해 암, 에이즈 등의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한동대학교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에 정말 맞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그 영향을 좁은 범위부터 세계로까지 넓힐 수 있으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식품 등 인간 생활의 많은 곳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학문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최신 생명과학 동향에 발맞춘 문제해결 중심의 교과과정

생명과학부의 교과과정은 최첨단의 생명과학 연구 및 산업 동향에 맞추어 핵심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명과학 관련 교과를 바탕으로 두고 질병 연구 및 바이오 신약개발 분야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이 강화되어 있으며, 컴퓨터 공학과의 융합을 통해 방대한 양의 생물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초를 다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부 교수님들의 실험실 시설 및 대학원 연구 인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타 대학 유사 학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실험실습 교과목을 심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캡스톤 설계 형식의 학부생 연구 교과목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연구수행 경험과 능력을 쌓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최첨단 생명과학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재교육 없이 활약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길러준은 물론, 졸업 후 진출 분야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대표 강의



일반미생물학

일반생물학 이후에 기본적인 생명과학의 기반지식을 탐구하고 여러 미생물의 특성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생화학

기본적인 생명 현상에 대한 강의입니다. 생화학에서는 몸을 구성하는 기본물질과 생물체의 신호전달 체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배우고, 생화학2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생물체에서 여러 물질을 만드는 대사과정을 총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은 생명현상을 분자적 수준에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위한 실험 기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우는 강의입니다.

면역학

생명과학부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4학년 과목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 이 기본이 되어 생물의 복잡한 면역체계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강의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우수한 커리큘럼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커리큘럼은 한국의 뛰어난 여러 대학과 비교하여도 좋을 만큼 체계적이며, 생명현상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론과 실험의 비율이 적절하게 되어있어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닌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많은 실험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학자로서 학회나 소속 대학원에서 성과물 발표 시 꼭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세미나’ 과목이 1~4까지 필수로 되어 있어 학부 때부터 미리 수준 높은 발표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명과학 교육

훌륭한 교수님을 통해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본 진화론 뿐 아니라, 기독교의 창조론에 기반한 창조과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팀티칭(Team Teaching)

한 전공과목에 여러분의 교수님께서 전공분야로 나뉘어 팀 티칭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배울 수 있으며, 교수님들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의·치학 전문대학원 진학률

졸업생의 1/3이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했으며, 1/4이 박사과정을 밟을 정도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며 현재에도 상당히 높은 의·치학 전문대학원의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학부!

어떤 학부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부이며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학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학회 소개

LUCAS	새로운 스마트 헬스케어 가치를 창출하는 학회입니다. 우리 학회는 LINC 사업단에서 프로젝트, 견학, 강연 비용 등을 지원 받아 지역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저널클럽을 열고,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스마트 모바일 케이스 프로젝트, 지역 기업과 체성분 측정기 개선 프로젝트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 운동 제안 프로젝트입니다. LUCAS의 장점은 생명과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산학연계를 통해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직 디자이너스	학부과정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토대로 전공논문을 읽고 논문에 담긴 논리적 사고방식을 학습한 후 세미나를 통해 발표합니다.
슈바이처를 꿈꾸며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여 함께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생명과학부 커리큘럼과 병행하여 학습하고, 그룹 스터디를 통해 의·치학 교육입문검사를 준비합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생명과학 캡스톤 설계 발표회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생명과학 캡스톤 설계’ 교과목을 통해 학부생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포스터 발표 등으로 전시하고 서로 평가하고 토론하면서 전공 분야의 지식을 나누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홈커밍데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재학 중인 후배들이 모여 나눔을 갖는 시간입니다.

생명과학 진로 탐색 세미나

‘생명과학 미래기술 세미나’ (1학기)와 ‘생명과학 진로개발 세미나’ (2학기) 교과목에서는 생명과학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유명 인사 또는 선배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분야를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년한동 소개



청년한동은 한동 동문 보건의료인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약 300명의 한동 출신 의료인들이 ‘Why not change the medical society!’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한동 정기모임 및 학교별 모임 등으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있고, 격월로 안산 온누리 M 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한동 세미나’를 통해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멘토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의 후배들을 위해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배 후원사업 등을 통해 졸업생으로서 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 한 가운데서도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가슴에 품은 청년으로 살기 위해 혼자가 아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에서 배운 “사랑 겸손 봉사”, “공부해서 남주자” 같은 가치들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청년한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생명과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인 만큼, 생명과학부의 졸업 후 진로는 매우 전망이 밝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관련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과정 연구를 통해 연구자로 훈련을 받고 기업, 국책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적인 연구원 또는 교수가 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약, 식품, 화장품, 환경, 농업 등 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기업에 취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도 있고, 의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육특성인 전공 융합 또한 상당히 용이하여 생명영상을 찍는 자연다큐 촬영 기사, 디자인과 접목하여 생물학 관련 그림이나 도표를 만들어 주는 생물학 관련 디자이너, 경영학과 연계하여 생물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으며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터공학과 연계하여 생물체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어 생명과학도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바이오 관련 회사

제일제약, 삼성 바이오 로직스 등

일반기업

삼성정밀화학, CJ제일제당, 코오롱 생명과학, LG화학, LG전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삼성증권 등

연구소

스크립스 코리아항체연구소,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등

졸업생 진학



의학전문대학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

생명 관련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주대학교 대학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해외 대학원

Chicago Medical School, Ohio State University,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University of Cape Town 등

그 외

치과대학, 약학대학원 등

* 의대 및 의치학 대학원 진학자 281명 (05년도~현재)

✧ 졸업생 이야기 ✧



**조용혁(05) - 아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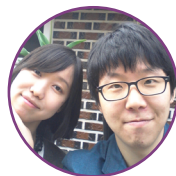
저는 한동대에 올 당시에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키운 학부가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부는 학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학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장점은 학문으로서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갈급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생명과학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생명과학부에 있을 때 보다 의전에 있을 때 공부를 더 적게 하더라도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닌 타 대학에 진학한 동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측면을 넘어서 이곳은 공부하다 모르면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는 곳입니다. 학생 여러분 한동대학교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열정으로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절대 부족하지 않게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승현(08) -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한동대학교를 통해 배운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꼽으려면 '배워서 남주자'라는 협동과 나눔의 가치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나만이 가진 지식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 나눔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정보가 더 풍부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

로는 손해를 보고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할 때 생각의 지경은 깊어지고 또 다른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한동의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많은 그룹스터디와 모임을 통한 지식과 생각의 나눔을 해왔었고, 모두 과정에 제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동대 생명과학부의 인텐시브한 커리큘럼과 발표수업, 교수님의 열성적인 지도와 상담은 학생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동대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 받은 학생은 어딜 가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주영(07) - 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스터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며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와서 느낀 한동대 생명과학부의 최대장점은 창조론적인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소속된 곳도 기독교 학교지만 과학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을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리 속에서 힘들어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고, 제가 의학을 창조론에 입각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큰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동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여러분! 저희 생명과학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했지만 생명과학부에 있었을 때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생명과학부를 전공하실 생각이라면 꼭 운동을 하셔서 체력을 키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찬송(15)

저는 특별히 면접을 통하여 한동대 학교에 처음 들어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의를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한동인들의 따뜻함 속에서 치른 면접이었기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자체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생명과학부의 첫 수업이 끝난 직후를 잊지 못합니다. 이유는 수업이 끝났음에도 많은 논의와 토론을 이어가던 교수님과 학생들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명과학부에 있는 로직 디자이너스라는 학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부생이 대학원생 수준의 발표를 들으며 그 주제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하여, 생명과학에 대한 열의를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곤 제가 여기 온 것이 다시금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생명과학을 전공하며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격주로 치르는 전공 시험과, 논문을 읽고 영어로 발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저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실패도 맛보고 또 방법을 터득하기를 반복하면서 매 학기 발전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에 온 순간부터 전공을 공부하고있는 지금까지 이 열정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버텨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한동을 꿈꾸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진영(16)

한동대학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Why not change the world?” 입니다. 사실 처음 학교에 입학 했을 때는 과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계속되는 시험에 지쳐 힘들어 할 때 나를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던 친구, 바쁜 시험기간에 밥은 먹었는지 챙겨주던 후배, 느헤미야 4층에서 밥을 새면서 함께 공부했던 시간들.. 그리고 응원과 격려해 주셨던 교수님, 지나왔던 시간을 떠올려 볼 때 혼자였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사랑과 감사 그리고 겸손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더이상 시험 점수와 학점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하루의 배움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 한동대학교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사람과 함께하는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암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하고자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만약 생명과학부를 전공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려울 거라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산전자 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 전자공학 전공

"하나님의 마음,
미래기술의 심장"



컴퓨터 공학은 컴퓨터 SW 및 HW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컴퓨터공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SW와 디지털 HW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모든 기술을 포함합니다. 응용 분야로는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 클라우드, 스마트카/드론/로봇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서로 다른 분야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때문에 융합의 핵심 고리가 됩니다. 컴퓨터공학 교과과정은 프로그래밍은 물론이고 HW나 SW R&D, IT 및 융합 응용 시스템을 설계/구현하고, SW융합 시스템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능적 활동을 모델링하고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머신러닝, 지식의 획득/표현, 추론, 영상 및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등을 포함합니다.

빅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의 효율적 저장 및 이용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인터넷 / 클라우드 컴퓨팅 / 컴퓨터 보안 인터넷을 통해 사람 또는 컴퓨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모바일 / 임베디드 시스템 스마트폰, 스마트카, 로봇, 가전, 게임기 등 휴대가능하거나 다양한 장비에 부착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가상현실 /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 또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 구현,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툴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를 설계,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플랫폼 등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대표 강의



데이터구조(Data Structure)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구조의 이론을 배우고 구현하며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강의

실전프로젝트1(Practical Project1)

4대 특성화 분야(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의 개론 및 실습을 통해 특성화 분야를 입문하고 자신이 집중할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할 수 있는 과목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신경망 등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주요 모델과 학습 알고리즘, 딥러닝 기초 등을 배우는 강의



한동인의 전공 자랑



특화 랩실 운영

특화된 실험실을 구축하여 대학 학부생이지만 대학원생처럼 공부하고, 연구하며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을 시작하면 학생들은 각각의 Lab (랩)을 배정받아 그곳에서 교수님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등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 멀티미디어 & 임베디드 컴퓨팅 S-LAB
- 가상현실&게임 S-LAB
- DEEP LEARNING S-LAB
- MACHINE INTELLIGENCE S-LAB
- 오픈소스개발 S-LAB
- SPEECH & AI S-LAB
- 지능형 시스템 S-LAB
- BRAIN-COMPUTER INTERFACE S-LAB
- SOFTWARE ENGINEERING S-LAB

전공 팀 제도

컴퓨터공학과에는 '전공 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전공 지도교수님 팀으로 소속됩니다. 전공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며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졸업 후의 계획을 교수님과 나누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 차원의 행사를 진행할 때, 주로 전공 팀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같은 학부생들과의 친목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국제화

- 공학교육인증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 품질을 확보합니다.
- 캡스톤 설계 특화 랩을 기반으로 해외 대학의 학생들과 국제 협력 프로젝트 및 제 3세계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전공 기반의 해외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OECD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Software 중심대학!

사업개요 및 인재상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IOT 전문인재와 기술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한동대학교는 'SW중심대학'으로 지정되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SW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문성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특성화
머신러닝 산학 취업연계형 트랙
학부생 R&D강화 (S-Lab 운영)



실전개발능력

프로젝트 교과목 대폭 추가
산학 프로젝트 의무화
오픈소스SW 개발교육



프로근성 및
기업가 정신

자기분야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
정직성 및 협업능력
시제품/특허/논문 중 하나 의무화

HONOR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 SW중심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활동과 노력을 기울인 학생에게 마일리지 부여
 - 개강총회, MT, 특강, 전공캠프 참가, SW교육봉사단 활동
 - 수강 전공과목 수, 산학 R&D 프로젝트 참여
 - 대내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참가 및 수상
 - 논문, 특허, 시제품제작, SW등록, 국내외 인턴십 참가 등
- 마일리지 평가를 통해 학기당 100~400만원의 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생 뿐만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돌아가는 장학 제도

해외 인턴십/연수 지원

- 해외대학 연구 인턴십 지원
 -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생 생활
 - 방학 및 자유학기 중 (2~6개월)
- 해외기업 인턴십 및 연수 지원
 -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이스라엘 기업 인턴십 (2~6개월)
 - 미국, 중국, 독일 IT 창업 연수 (방학 중 3주)

취업연계 산학 장학생 트랙 운영

- 머신러닝 분야 인재확보를 위한 취업연계 산학 장학생
- 최대 2년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산학연구 프로젝트 참여
- 졸업 후 지원 기업에 바로 취업

전공 캠프 운영

- 전공새나기를 위한 SW기초교육 캠프 개최
 - 코딩의 기초를 잡아주는 코딩캠프 (Java, C++, Python 등)
 - 아나두라 (안드로이드+아두이노+라즈베리파이) 캠프
- 전공자를 위한 SW심화교육 캠프 개최
 - 인공지능 (머신러닝) 캠프 / 드론, IOT 캠프
 - OpenCV, 가상/증강현실, Open Source 캠프

프로젝트 중심의 SW전공 교육

- 최강의 개발환경 제공
 - 개발자용 MacBook Pro 무상 대여 (선정 기준 제시)
 - 개발 공간 제공 - 스마트혁신실(S-Lab), Coding Space
- Always Coding & Always Thinking
 - 지속적인 코딩 몰입교육과 개발능력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 4대 특성화 트랙 운영

인공지능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R
게임

- Goal-Driven Project Pipeline

공학설계입문

실전프로젝트 1,2

산학 캡스톤디자인

공학프로젝트기초

학회 소개

Linux Hackers	리눅스, 임베디드 시스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 등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소그룹 스터디를 하고, 공모전 참가 등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CRA (Computer Research Association)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을 기본으로 전산 분야의 신기술을 공부하고,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i7이라는 한동대학교 대표 인트라넷을 구축 및 운영 중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간의 개발과 운영을 경험 삼아 웹 및 모바일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HOST (Global Handong Oriented Security Team)	2000년 7월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보보안 동아리입니다. 신입생들에게 방학 6주간의 교육 기간을 통해 기본적인 Unix, Network, Linux, 보안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가르칩니다. 삼성 Friendship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동아리 지원을 받았고, 현재는 넥슨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어플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기짜기	한동대학교 개교년에 창설되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산동아리로서 다양한 학부생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학기 중에 전공과목 스터디 모임과 각종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SNYM(슬기짜기 신년회)를 통해서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사람냄새 나는 동아리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Mac OS 기초활용 one day 캠프

- MacOS 활용 팁
- Keynote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 Xcode 개발자의 길
- 필수 앱 활용법

Problem Solving in Python 캠프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

- Python 객체 활용법
- Python 으로 주요 알고리즘 구현 기법
- Python으로 데이터 가공/처리/분석 연습
- Python으로 데이터 시각화 연습
- 문제해결 연습

Unity 캠프

- 1일차: Unity기본 (C#기본, Unity Interface, 간단한 실습)
- 2일차: 간단한 게임 만들기
- 3일차: 나만의 프로젝트

C++ 집중 캠프

- 1일차: C 포인터 복습
 - 2일차: C++ STREAM IO, reference, C++ functions, memory allocation
 - 3일차: C++ 기초 (class 및 member function), 생성자, 소멸자, function overloading
 - 4일차: C++ 기초 (상속 및 polymorphism)
 - 5일차: overriding, virtual function, template
- 나머지 5일은 팀프로젝트 진행.

C프로그래밍 캠프

실습 위주의 강의, 팀 활동, C강의 및 DS 강의

머신러닝 캠프

머신러닝 입문 학생, 캡스톤프로젝트 및 R&D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머신러닝 이해와 프로그래밍 능력 증진

음성인식 캠프

음성인식 입문학생, 캡스톤프로젝트 및 R&D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음성인식 이해와 프로그래밍 능력 증진

※ 졸업 후 진로 ※

IT 분야의 진로는 다양성, 채용 인원, 그리고 대우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풍부합니다. IT 기술의 응용 분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전망도 밝습니다. 그래서 IT 영역은 물론이고 IT와 인접한 영역에서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카/드론/로봇과 같은 여러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등 대부분이 IT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T와 다른 학문 분야를 접목한 융합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어 진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졸업생 취업



인터넷/통신

Google, Naver, Daum, KT, KT DS, LG U+, SK, LG Telecom, ETRI(전자통신연구원), 롯데정보통신 등

S/W 및 보안

Microsoft, Oracle, 안철수연구소, 티맥스 소프트, TSB, Infobank, 포스코 ICT, 산업은행 보안팀, 한국 IBM, 기업은행 보안팀 등

게임

NC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등

IT 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LG전자, LG Display, LG 실트론, 한화 테크엠, 포스코(POSCO), 팬텍, 핸드스튜디오 등

비공학분야

한동대학교, 대우증권, 핵융합연구센터, 정부기관, 미래에셋증권, GS리테일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 KAIST(한국과학기술원), ICU(정보통신대학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POSTECH(포항공대),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해외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Michiga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Rensselaer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Pittsburgh, Arlingto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

※ 졸업생 이야기 ※



정진영 (97) - Amazon Web Service (AWS) 본사 (Tepper MBA, Carnegie Mellon University 졸업)

한동대학교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서 학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은 저의 커리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오라클에서 DB Engineer와 기술컨설팅을 거쳐 현재 미국 Amazon 본사에서 AWS Cloud 제품전략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의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과 한동공동체에서 익힌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천성(01) / 서유진(03)- LG전자 CTO 직속 연구소

저희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선후배로 만나 함께 카이스트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재 LG전자 CTO 연구소에서 부부 연구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님의 탁월한 지도로 배운 전공 지식,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문제해결 능력 및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원 및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서 더 큰 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한서령(09) - 삼성전자

저는 고교 시절 문과를 선택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것을 조금 망설였지만,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었고,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문과생 친구들이 선뜻 우리 학부를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스스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졸업 후 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앱 개발 부서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에서 전공지식을 배웠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동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유상재(17)

고등학교 때 문과였고 심리학을 전공하려던 저는, 전공 탐색 기간인 1학년

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듣고서 컴퓨터공학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어려워했던 저에게 공학 전공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는 학생이 학생에게 가르쳐주는 TA세션 등을 통해 공부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학 때 선배님들께서 진행하시는 ‘C언어 캠프’를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인 C언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은 학교에서 선배님들께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캠프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100%영어로 영상 처리에 관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위해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었고, 모두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를 다니며 이와 같은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이를 통해 한동대 학생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동역자로 생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은 단지 “사랑하세요, 정직하세요”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준 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혜원(17)

한동에 와서 제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 중에서,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전산전자공학부를 저의 학부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인문계열을 졸업하고 공학자로서의 삶은 단 한번도 고려해본 적 없던 저에게 ‘C 프로그래밍’ 수업은 완전히 새롭고 재밌게 다가왔고,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하는게 너무 재미있었던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저의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전공에 대해서 한번도 후회해본 적 없고 한동에 와서 저의 전공을 찾을 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산전자공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든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4대 특성화 분야인 인공지능/스마트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가상 현실/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지도해주십니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공부를 옆자리의 친구와, 든든한 교수님과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전산전자공학부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자신이 배운 전공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기술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을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로 초대합니다. 단순히 전공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평생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료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얻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전산전자 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 전자공학 전공

"하나님의 마음,
미래기술의 심장"



전자공학은 물질 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Free Electron)의 운동 현상과 그 응용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현대의 거의 모든 산업, 특히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기반 공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가전, 컴퓨터, 로봇 등의 기본적인 기기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기기, 통신시설, 방송장치 등 대부분의 첨단 기기들이 전자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은 매우 넓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따라서 타 분야와 융합의 기회가 많고, 여러 분야에서 전자공학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주요 기술 분야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향후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주도해 나갈 핵심이 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회로설계 디지털회로, 아날로그회로, RF회로 등 다양한 전자회로를 설계 및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메모리, SoC 등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분야입니다.

무선통신 및 네트워크 이동통신과 인터넷 장비, 홈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유·무선 통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디지털 신호처리 다양한 신호를 여러 목적으로 가공하거나 분석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영상 압축/처리, 음성 처리/인식, 의료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고성능 저전력 컴퓨터 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 자동차나 의료 분야의 텔레메트릭스, 유·무선 통신기기, 가전기기, 게임기 등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제어 Robot, 공장설비, 항공기 등 대상 시스템의 상태나 출력이 원하는 특성을 따라가도록 입력 신호를 조절하는 분야입니다.

대표 강의



전자회로1

소자들의 특성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로를 해석하고 디자인합니다.

신호 및 시스템(Signals and Systems)

시스템과 신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입력 신호의 주파수 분석 및 처리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디지털 시스템 설계(Digital System Design)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툴들과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방법을 공부한 뒤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디지털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특화 랩실 운영

특화된 실험실을 구축하여 대학 학부생이지만 대학원생처럼 공부하고, 연구하며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을 시작하면 학생들은 각각의 Lab(랩)을 배정받아 그곳에서 교수님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등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 센싱 및 무선통신 S-LAB
- IOT & NETWORKED SYSTEM S-LAB • IOT 응용시스템 S-LAB
- RANGING & COMMUNICATION S-LAB • COMPUTER GRAPHICS & VISION S-LAB
- NANO SEED S-LAB

전공 팀 제도

컴퓨터공학과에는 '전공 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전공 지도교수님 팀으로 소속됩니다. 전공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며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졸업 후의 계획을 교수님과 나누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 차원의 행사를 진행할 때, 주로 전공 팀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같은 학부생들과의 친목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국제화

- 공학교육인증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 품질을 확보합니다.
- 캡스톤 설계 특화 랩을 기반으로 해외 대학의 학생들과 국제 협력 프로젝트 및 제 3세계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전공 기반의 해외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OECD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술 혁명 주도!

-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딥러닝) T-커머스 방송편성 시스템 실용화(2017.1)
 - T-커머스에서 각 상품의 시간대별 매출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 방송을 자동으로 편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용화하였습니다.
 - 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김인중 교수님, ICT 창업학부 최혜봉 교수님과 전산전자공학부 학부생 8명이 함께 개발하여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 * 딥러닝(Deep Learning)이란? 심층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로부터 고수준 정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



김인중 교수님

우리나라 인공지능 딥러닝 연구의 선두주자!

- 2012년 국내최초로 딥러닝 CNN 엔진 개발
- 2001년 세계최초의 모바일 한글인식기 개발
- 학회/기업/대학/연구소에서 60여 회의 딥러닝 강연(2017년 3월 기준)
- 2001년 KAIST 우수논문상 (박사논문), 2005년 IR52 장영실상, 2014년 SW산업발전유공자 국무총리상 수상

• IT for Everyone! 미래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솔루션 개발

- 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학생들은 교수님과 함께 '배워서 남주자'는 슬로건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기술을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술 개발은 그들의 소소한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중심 개발 프로그램부터 VR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개발까지 다양합니다.
- 전망자와 저시력자를 위한 신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신호 감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페 주문완료 확인 시스템
- 안구추적,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체장애인 컴퓨터 접근 시스템
- VR을 이용한 장애인 직무교육 시스템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시설 검색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황성수 교수님

- 젊은 공학교육자상 수상(2016.11)
- 미래사회를 위한 IT기술 연구
-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솔루션 개발 학회 '시선' 운영
- CGV(Computer Graphics and Vision) Lab(실험실) 운영
-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기념품, 스토리텔링 캠퍼스 개발
- 실내 택배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드론 개발
- 영상지도 개발

교수님 Says! "한동대학교는 나 자신의 소중함과, 이웃의 소중함을 배우며 여러분의 꿈을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려나갈 곳이 많습니다.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소개

Chips Chips (칩스칩스)	Chip Design에 관련된 연구, 토론 및 Chip 설계, 제작을 통해서 회원들의 실력 향상과 한동대학교 내 Chip Design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나아가 관련 단체들과의 정보 교류와 협동 연구를 통해 Chip 관련 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론 (e論)	팀을 결성하여 기업공모전 참여를 위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고, 전자공학 학술지 스터디 및 연구 과제에 참여합니다. 또한 졸업한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학 및 취업준비 과정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 준비를 관리합니다.
시선	시선학회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특히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IT 기술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특정한 기술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장애인들의 필요에 따라 앱 개발, VR, IoT, 컴퓨터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캡스톤 축제

3~4학년 때 그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하나의 작품을 설계 및 제작합니다. 그 결과를 캡스톤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고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이 진행됩니다.

증강현실 캠프

증강현실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고 뷰포리아, UNITY, OPENCV 등을 활용하여 실습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의공학 기술, IT 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지능형 로봇 등 대부분의 기술에 전자공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공학이 기본이 되는 기술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후 회사를 선택하거나 진학을 할 때 자신이 흥미를 갖고 공부했던 분야나 융합할 수 있는 다른 분야 등 다양한 진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전자회사, 임베디드/모바일 전문업체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IG 넥스원, 팬텍, Cisco, Intel, Motorola, Texas Instruments, 핸드스튜디오, 캐논코리아, 전자통신연구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전력, 에너지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경남에너지 등

공학분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기아자동차, 삼성 엔지니어링, STX 조선, 대양상선 등

비공학분야

대우증권, 핵융합연구센터, 정부기관, 미래셋증권, GS 리테일, 바이오스페이스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 KAIST (한국과학기술원), ICU (정보통신대학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POSTECH (포항공대), G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등

해외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Michiga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Rensselaer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Pittsburgh, Arlingto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

✧ 졸업생 이야기 ✧



하동현(01) -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대학원

최근 과학기술발전의 추세는 IT (정보통신기술), NT (나노기술), BT (생명공학기술)의 융합에 있습니다. 각 영역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와 같은 기술 혁신 가운데 IT, NT 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자공학/컴퓨터공학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졸업생들로 하여금 전자공학/컴퓨터공학 계열은 물론, 이와 관련 있는 확장된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수많은 취업과 진학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도 합니다. 전산전자공학부는 여러분의 상상력과 향후 인생 진로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은(04) - KAIST 박사과정

KAIST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한동에서의 학부생활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전자공학에 대한 성취 동기와 비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폭넓은 연구활동을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전공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있지만, 한동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동을 경험하게 되면 같은 고백을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박해수(09) - 현대중공업

전자공학은 인류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자, 정보, 통신 기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되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전자공학이고,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심해저 석유 시추를 위한 계측제어 기술 분석과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저는 저 스스로 세계를 품고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서부터, 태평양 바다 깊숙한 곳에 이르기까지 전자공학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여러분만의 영향력 있는 '가치'를 키워보세요!

✧ 재학생 이야기 ✧



김광철(12)

저는 처음부터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부에서 시행하는 공학인증 프로그램 소개를 본 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부를 직접 방문하여 훌륭한 커리큘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선배들과의 상담을 통해 전자공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회로 설계,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전자 분야의 공부들은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으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멘토가 되어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졸업 이후에도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연구하며 이 시대 전자공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저 또한 이 시대의 전자공학자로서 정보통신기술과 나노기술 등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최권석(14)

전자공학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학문 중 하나입니다. 스마

트폰을 이용해 직접 만날 수 없는 친구와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소중한 사람들과 사진 한장의 추억을 남기는 것도 전자공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전자공학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때론, 전공 공부가 힘에 겹쳐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한동에서 키운 꿈과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교수님, 그리고 열심히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이 있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 미래기술의 심장'이라는 학부 슬로건이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전자공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는데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전자공학전공을 강력히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같은 전공을 넘어서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갈 미래의 한동대학교 전자공학도들을 기다리며,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융합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 전공 / 시각디자인 전공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품디자인 전공은 사회에서 디자이너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기초과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대부분의 한동대 제품디자인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미술이 아닌 일반적인 대학 입시공부를 한 학생들로서 순수예술의 한 갈래라기보다는 예술과 학문 사이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제품디자인과 관련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UX & UI Design

기초적인 기기 UI부터 시작하여 최근 큰 수요가 있는 스마트 기기 앱 개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품디자인

간단한 소제품부터 컴퓨터, 핸드폰, 가구, 나아가 자동차까지 이르러 제품의 형태, 색상, 성격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 분야입니다.

대표 강의



UX Design

핸드폰 앱 UI의 버튼배치나 화면 구성 아이디어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가지 불편함이나 개선점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Design Studio

프로 제품디자이너가 되어 제품디자인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과목입니다. 제품을 구상하고, 스케치하고, 3D 렌더링을 거쳐 실제 1:1 제품 Mock-up 까지 진행하면서 필드에 나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미리 공부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무실기 선발!

한동대학교 제품디자인 전공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는 역시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생들이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제품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 스케치 실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강의 과정에서 기초적인 드로잉을 공부하게 되어 입학 후 연습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수준의 스케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표현보다도 아이디어에서 그 수준과 탁월함이 결정됩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개성은 실기시험은 물론 필기시험으로도 평가할 수 없겠죠? 한동대학교 제품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좋은 수준의 표현력과 더불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디자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연계전공

제품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를 동시에 연계전공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같은 디자인 학과지만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에서 배우는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서 두 가지 디자인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디자인 경력과 실력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됩니다.

교수님의 제자사랑

한동대학교 제품디자인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과의 잦은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제품디자인 전공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거리감을 두고 강의시간에만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모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 제품디자인 전공 교수님들은 필드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십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크리틱과 컨퍼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학부와의 손쉬운 융합

한동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바로 타학부와의 융합입니다. 학부나 학과 내에서 주로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되는 타 학교들과는 달리 한동대 디자인학과는 기계, 전산전자, 경영경제 등의 다른 학부 학생들과 손쉽게, 그리고 수준 높게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The Answer	제품디자인 학회로서 UX(사용자 경험)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UX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합니다.
Magic	매직은 제품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제품디자인 프로세스 진행을 통해 제품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부 수업으로는 심도 있게 공부하기 힘든 스케치, 렌더링, 실물 Mock-up과 공모전 출품을 위주로 활동합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디자인 캠프

디자인 캠프는 디자인학부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장 큰 학부행사입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큰 전시회를 중심으로 교수님과 학부생들이 함께 캠프를 가게 됩니다. 캠프에서는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의 만남, 평소에 디자인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유명디자이너들의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UX/UI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등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맞는 분야를 찾아 디자인 분야를 특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의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도 있고, 디자인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하거나 직접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IT 서비스업

엔씨소프트, 핸드스튜디오, SK Communications, 삼성SDS, 스와이프코리아, 에이메일, NHN (네이버), 라인플러스, 휴머노피아 등

기업

삼성테크윈, SK플래닛, 알티캐스트, 원아이네트웍스, 팬택, Global CTM, LG전자, 삼성전자, 아이리버, 휴맥스, 조안, 이명산업, 아비바코리아, 위즈워드, 그랜드하얏트호텔

졸업생 진학



한동대학교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등이 있습니다.



✧ 졸업생 이야기 ✧



정한솔(08) - 삼성SDS

한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다수의 친구들처럼 저도 입시미술을

공부해본 적이 없지만, 제품디자인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막연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공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디자이너가 단순히 예쁜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든 개발도상국에 필터와 빨대를 결합한 제품을 만들어 식수를 공급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염리동 소금길처럼 범죄율이 높았던 동네를 개선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 모두 디자이너의 문제해결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학 중에 자전거 악세서리에서부터 스마트TV, 직장인 스트레스 완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디자인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매번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 경험들은 모두 졸업 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따뜻한 가슴과 말랑말랑한 머리를 가진 디자이너가 되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을 꿈꿔보지 않으실래요?



장기도(10) - UNIST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대학원

한동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은 디자인의 대상의 범주가 매우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서비스 디자인 수업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혼란과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손으로 그리는 디자인에 익숙했던 저는 왜 이런 내용을 디자이너가 배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 담당 교수님께 저의 고민을 담아서 장문의 이메일을 드렸고 디자인의 대상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까지 매우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UNIST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대학원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함께 전공하면서 쌓을 수 있었던 폭넓은 경험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승수현(13)

저는 먼저 노력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
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글

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입시 미술을 전혀
접하지 않고 디자인학부에 왔습니다. 학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간단한 디자인
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전공 새내기들의 눈에는, 능숙한 선
배들이 저 높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선배들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4학년
이 되었고, 이제는 전공새내기들이 저에게 어떤 수업이 쉬운
지, 아니면 어려운지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든 수업
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디자인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수업들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다고 말씀드리
고 싶어요. 힘든 만큼, 노력한 만큼 실력은 늘게 되어있습니
다.

때로는 자신의 실력이 뒤쳐지고, 전혀 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미래에 할 디자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될지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
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화이팅!



전은우(14)

학부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수많은 노력 끝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 입니다. 교수님들께선 용기를 가지고 도
전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훌륭한 제품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고 늘 격려해 주십니다.

전공을 탐색하던 1학년 시절, 저는 입시 미술을 경험해본 적
이 없어서 제품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이나 부모님들께서 입학 전에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자인 전공을 망설이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제품디자인은 우리
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외형적
인 아름다움만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 제품의 기능과 실용
성까지 고려하여 제품의 효용가치를 총체적으로 높이는 것
이 이곳에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제품의 이
용 전부터 이용 후까지의 경험을 분석하는 법은 물론 미적인
부분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
끔 공부에 집중해서 빠져있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
은 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은 제게 단순히 학
업 능력뿐 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
으로서 이 디자인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
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뿐만 아니라 한동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자
신만의 비전을 찾아가시리라 믿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디자
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바꿔봅시다!

콘텐츠융합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 전공 / 시각디자인 전공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각디자인 전공에서는 광고, 편집, 그래픽디자인과 21세기 디자인의 최대 소사 이어티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분야를 공부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디자인을 동시에 공부를 하는데, 신문이나 잡지광고, CI(Corporation Identity), BI(Brand Identity), GUI(Graphic User Interface), 소비자 행동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디자인 등은 오프라인디자인으로 배우고, CF나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의 영상 디자인은 온라인디자인 과목을 통해 공부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실용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었다면, 지금은 시각적으로 대중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과 예술, 사회학, 인문학,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적 요소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시각디자인 전공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트, 인문학,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발상과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훈련을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와 콜라보레이션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

Package Design

상품에 맞는 브랜드 개발에 대해 배우고, 상품 패키지의 형태와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고 실습합니다.

Editorial Design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통해 편집디자인을 공부합니다. 책자나 발행물의 텍스트 배치와 이미지 배치와 관련한 구조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

Digital Motion Graphic Design

영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며 After Effect를 이용하여 기초영상 편집 틀을 배우고, 시각적으로 뛰어난 영상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Graphic & Advertisement Design1

그래픽디자인과 광고디자인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디자인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둡니다. 기본 이론과정과 응용학습을 통하여 모든 디자인의 기본이자 중심인 다양한 타이포그래피의 표현과 철학, 기법 등을 학습하고 실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또한 현 시대의 그래픽디자인과 광고디자인의 영역과 역할을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을 훈련합니다.

Graphic & Advertisement Design2

모든 디자인, 경영, 마케팅, 광고 홍보 등의 통합적 개념인 브랜딩을 이해하고 C.I (Corporation Identity), B.I (Brand Identity)를 배웁니다.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을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하여 현장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키웁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무실기 선발!

한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는 역시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 스케치 실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강의 과정에서 기초적인 드로잉을 공부하게 되어 입학 후 연습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수준의 스케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표현보다도 아이디어에서 그 수준과 탁월함이 결정됩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개성은 실기시험은 물론 필기시험으로도 평가할 수 없겠죠? 한동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좋은 수준의 표현력과 더불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디자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연계전공

제품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를 동시에 연계전공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같은 디자인 학과지만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에서 배우는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서 두 가지 디자인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디자인 경력과 실력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됩니다.

교수님의 제자사랑

한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과의 잦은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거리감을 두고 강의시간에만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모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님들은 필드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크리틱과 컨퍼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학부와의 손쉬운 융합

한동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바로 타학부와의 융합입니다. 학부나 학과 내에서 주로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되는 타 학교들과는 달리 한동대 디자인학과는 기계, 전산전자, 경영경제 등의 다른 학부 학생들과 손쉽게, 그리고 수준 높게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GYM	디자인의 특성 중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나아가 한동대의 복수 전공제도를 바탕으로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은 물론 다른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DOT	점을 뜻하는 도트(DOT)는 평면과 입체, 텍스트와 이미지 등 그래픽디자인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입니다. 그래픽디자인학회 도트는 무한한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 DOT에 Design Optical Truth 라는 뜻을 담아 그래픽디자인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디자인 캠프

디자인 캠프는 디자인학부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장 큰 학부행사입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큰 전시회를 중심으로 교수님과 학부생들이 함께 캠프를 가게 됩니다. 캠프에서는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의 만남, 평소에 디자인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유명디자이너들의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콘텐츠융합디자인 학부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송국, 디자인 전문회사, 기업 연구소, 뉴미디어, 대기업, IT업계,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계, 광고업계, 영상 분야 등의 업계에서 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본 전공을 이수한 한동대 졸업생들은 대기업, KBS방송국 외 기타 방송국,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공연/영상/방송/IT KBS, 연합뉴스, 문화방송,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삼성, LG, SK, 다음카카오, NC소프트, 나인후르츠미디어, 루덴스미디어, 뮤지컬창작터 하늘에, 산돌커뮤니케이션, 매스씨앤지, SWYP(스 와이프) 등

광고 나인후르츠미디어, Grey Worldwide Korea, Vinyl X, 네무스텍디자인, 모티브플렉스, 뷰애드디자인컨설팅, 선광커뮤니케이션스 등

사업지원서비스 DESIGN CONTINUUM, FEIT, 대광실업, 렉스코드, 씽크유저, 유저랩

출판 비룡소, 두란노, 모라비안유니타스, 예수전도단 출판사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SD), School of Visual Arts (SVA),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ratt Institute 등



✧ 졸업생 이야기 ✧



**이나경(07) - 라인플러스
(Line+) 브랜드 디자인팀**

만화가 좋아서 종이에 낙서하던 제가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림은 서툴지만 다양한 툴을 이용하여 머리 속에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며 말이 아닌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면서 때로는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감동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밤을 새며 고민하고 포기할까 갈등도 했지만 완성된 작업을 보고나면 참 좋습니다. 또한 학부시절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면서 함께 밤샘작업 했던 것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두려워마시고 끝까지 즐겁게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웰컴!



**최미라(04) - 프리랜서 디자이너
/ 기획의 정석 실전편 저자**

한동에서 시각/제품 디자인을 전공하였습니다. 디자이너는 단순한 그래픽 스킬을 익힌 사람이 아닌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디자인전문회사, IT회사를 거쳐 지금은 스타트업 서비스 제작 전반에 참여하고 있고, 관련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꿈꾸는게 두려운 청년들에게 세상을 바꿀 용기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한동에서 배운 “Why not change the world? + 배워서 남주자” 입니다.



**최동인(07) - SWYP(스와이프)
그래픽 디자이너**

예비 후배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공대를 목표로 수학, 과학 위주의 이과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온 후 1년간 다양한 전공기초를 듣고 나서, 결국 전혀 다른 시각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미대 가는 학생들이 빠짐없이 한다는 입시 실기능력이 없어도 수업에 참여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각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 저것 무엇이 더 좋을지 실험해본 뒤, 손에 만져지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학교는 시각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일러스트/편집/브랜딩/광고/모션그래픽/공공디자인/웹)를 두루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비슷한거 해봤으니깐 일단 해보자”는 도전적인 태도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수님, 선배, 친구들을 통해 배운 신앙관과 가치관, 팀워크가 지금 사회생활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박계수(14)

최근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어 놓은 이슈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회에서 사라질 직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긴 하지만, 창의력 부문에 있어서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과 정리를 넘어서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끊임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개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 믿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겨낼 우리만의 무기로 ‘창의력’이 대두되고 있다면 우리가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수학이나 과학과는 다르게 정해져 있는 답이 없기에 다양하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동대학교 콘텐츠 융합디자인학부는 우리가 끊임없이 상상하고 창의력을 키워 나가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실기’, ‘실적’이라는 눈 앞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우들이 학부에서부터 다양한 전시물로 창의력을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학우들과 함께 배우고, 늘 학생들을 위해 중보해주는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를 받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는 말씀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창의적인 일에 함께 동참할 학우들을 항상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채유리(15)

그동안 이곳에서의 삶을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스스로

고민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동에서의 생활들은 단순히 학업 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에서는 입시 미술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디자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경과 상관없이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포용해 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틀에 박힌 듯 비슷한 디자인이 아니라,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따라, 개성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단순히 보기에만 아름다운 단편적인 디자인보다는, 디자인을 통하여 그 안에 숨은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나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디자인을 강조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의 관점을 넓힐 수 있었고, 힘든 과정도 이겨내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모든 영역에서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은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통하여 사회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길 원하시는 분들, 미술을 배우지 않았어도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학부를 추천합니다. 더불어 바쁜 한동의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ICT

창업학부

ICT융합 전공 / ICT창업 전공 /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Creation beyond Technology:

Forging the future
with Stewardship
Innovations

(기술 너머의 창조)"



교육목표 미래산업의 동력이 될 ICT를 기반으로 다학제간 융합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실습을 통한 융합 경험을 목표로 하는 전공입니다.

전공소개 인문사회 및 문화 분야의 인간중심 감성과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지식인 ICT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이론과 실재를 교육합니다. 타 학부 전공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융합분야의 지식·정보서비스 기획자 및 ICT기반 분석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중점역량: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개발, 전산학적 사고, 데이터분석, 요구사항 분석, 기술문서 작성
- 중점분야: 빅데이터, 모델링&시뮬레이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비주얼미디어 (VR/AR)

전공 더 깊이 알기



ICT융합전공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의 교육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검증/분석/시각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다뤄봄으로써 융합 인재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난 대피, 식당 서비스 개선 등의 문제부터 국방, 물류, 자연환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컴퓨터 활용에서 찾습니다. 컴퓨터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표현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분야 인간(사용자)가 스마트폰, 가전기기, 자동차 등의 컴퓨터 기반 정보통신기기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즉, 인지(심리학)공학, 감성공학, 사용성공학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경험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ICT제품과 서비스를 기획, 설계, 구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합니다.

비주얼 미디어분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증강현실 등과 같은 다양한 비주얼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통찰력과 과학적 해결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ICT융합전공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활용 교과목 이외에 다양한 전공과 융합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강의



ICT 융합입문

ICT 입문은 제품에서부터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융합에 있어서 그 도구가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가치와 의미를 점검하는 과목입니다. 특별히 ICT를 도구로 활용하여 융합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요한 윤리와 가치관, 철학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ICT와의 융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ICT를 활용한 융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얻게 됨과 동시에 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I

프로그래밍은 IC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프로그래밍 기초를 습득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프로그래밍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수업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문법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이를 컴퓨터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계산과학적 논리사고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래밍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로봇 프로그램, 레고(LEGO), 사진 합성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각 프로그램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정보화 사회에서는 방대한 정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정보는 정보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지만 분석을 통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 과목은 방대한 무의미한 정보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내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를 위하여 빅 데이터 분석 과목에서는 방대한 정보 수집 방법, 통계적 분석 방법 및 도구를 활용한 분석법,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빅 데이터 분석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회 소개



Handong Media Lab (한동 미디어 랩 및 연구그룹)	Computer Graphics Lab (컴퓨터 그래픽스 랩 및 연구그룹)
Data Science Lab (데이터 사이언스 랩 및 연구그룹)	Cognitive Engineering Lab (인지공학 랩 및 연구그룹)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통계캠프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기본 역량을 학습합니다. 통계 프로그램 학습, 기초 통계 이론, 고급 다변량 통계,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골고루 학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수학캠프

고교 인문계학생 또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공학 관련 수업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등수학(기초수학) 과 고등수학(기본수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강의형 캠프입니다.

프로그래밍 캠프

프로그래밍 개발언어, 게임 개발언어 등 ICT 관련 제품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비교과 캠프입니다. 지원 여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나 개발 툴에 대한 인증활동까지 포함합니다.

3D 프린터, IoT 캠프

ICT 관련 제품 및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의 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비교과 활동입니다.

* 모든 프로그램들은 학부내의 타전공(ICT창업전공, ICT융합전공)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ICT융합전공은 이전 “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15년도에 개설되고 운영이 시작되어 2018년부터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ICT융합전공과 한동대 기타전공을 연계전공하였을 때, 예상되는 진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지역학 전공	데이터기반 국제정세 분석가	기계공학 전공	자동차, 선박, 항공 UI/UX전문가, 인간중심 엔터테인먼트 로봇개발
영어전공	지능형 번역/대화 서비스 전문가	전자제어공학 전공	데이터기반 자동차 제어 전문가, 인간중심 VR장비 개발자
경영학 전공	경영정보시스템 기획/개발/운영자, 데이터/VR기반 마케팅 전문가	시각디자인 전공	정보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전문가, AR기반 시각디자인
경제학 전공	데이터기반 금융분석가, 금융공학	제품디자인 전공	UX& 서비스 디자인 기획자, 프로토타입 개발자
한국법 전공	법정보서비스 기획자	생명과학 전공	뇌인지과학, 유전자데이터 분석가, 계산학적 뇌영상분석/생물학 전문가
US&International Law 전공	데이터기반 판례분석 전문가	상담심리학 전공	데이터기반 심리분석가, VR기반 심리치료 전문가
공연영상학 전공	Novel 영상기법 기획자, 문화·기술 융합 공연기획자	사회복지학 전공	지능형 복지 설계전문가, 텔레프레전스 기반 복지 전문가
언론정보학 전공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기반 저널리즘 전문가	IT 전공(100% 영어)	글로벌 SW기획자, 개발자, 분석가, 운영자
건설공학 전공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전문가, VR기반 건축가	전자공학 전공	IoT 제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운영
도시환경공학 전공	도시/교통 계획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VR기반 도시설계전문가		

✧ 졸업생 이야기 ✧



**강준혁(12) - KAIST 지식서비스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2018년도 봄에 학부를 졸업하고, KAIST 지식서비스 공학대학원에 국비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시절 ICT창업학부에서 ICT융합 전공을 공부하면서 데이터과학과 HCI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심화된 공부와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생활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전공 공부 이외에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구보조활동을 하며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학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제약없이 공부에 매진한 결과, 성공적인 대학원 입학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4년간의 학부생활 중 가장 잘한 선택은 ICT융합 전공을 저의 1전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전공으로 선택할 당시 학부의 역사가 짧아 졸업생도 적고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별로 없었지만, ICT융합 전공에서 제시하는 방향성과 커리큘럼이 제가 추구하는 학문적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묵묵히 열심히 공부하며 그 다음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처럼 누구든지 ICT창업학부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훈(12) - KEB하나은행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한동대학교는 여러 대학 중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유일한 대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신앙 및 인성교육, 무전공 무학부 제도, 팀제도 문화 등 한동대학교만이 가진 장점들 때문에 한동대학교만을 지원해서 큰 기대를 품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시점에서 저는 한동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심을 두고 있던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으면서 미래기술인 ICT 전공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ICT창업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학부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배웠고, 4차산업 혁명시대를 이끄는 ICT 기술인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학습하는 전공 공부를 넘어서 학부의 든든한 지원으로 교수님들의 지도로 산학연계 프로젝트, 국내외 논문을 투고하며 전공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는 KEB하나은행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배웠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ICT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입생분들도 한동에서 주변 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가는 귀한 대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진이(14)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에 우리의 일

을 바꾸는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4차산업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저는 20살, ‘전공 선택’이라는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고민없이 ICT 창업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과의 커리큘럼이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의 말씀 중,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Difference Maker’를 양성한다는 목표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ICT창업학부에서는 지식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촉망받는 전공지식들을 배우기 때문에, 매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이 생겨납니다. 이것들을 토론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찾아야 하기에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경쟁관계를 넘어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아이디어 촉매제가 되어주는 귀한 동료들이 있기에 저는 새로운 분야를 구축해나가는 이 길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저희 학부는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가 끈끈하고 정말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빅데이터, HCI, 인공지능까지 미래 지식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 너무 즐겁습니다.

아직 학부생이기에 배움의 길이 많이 남아있으나, 나중에 ICT창업학부에서 배운 사랑과 열정, 지식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문제 해결사, 세상의 ‘Key’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계시지만 도전에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ICT창업학부에 오셔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문주혜(15)

저는 지금 ICT창업학부에서 ICT융합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학부설명회때 교수님께서서는 개발자를 이해하는 기획가를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때 들은 이 한 문장은, 제가 ICT융합 전공을 선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의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을 합하여 세상을 바꾸는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에서는 3D프린터, VR, AR, MR, 드론, 햅틱 장비, 모션 캡처 등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여 저의 비전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으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ICT융합전공은 공학적 사고(논리적 사고)를 기본 바탕으로 응용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하여 코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배운 코딩 능력은 이후 수업에서 다양한 문제해결을 기획하고 장비들을 활용하는 곳에 기초로 사용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길러갑니다.

특별히 학부에서 다양한 장비들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장비들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맞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팀을 이루어 진행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방법 또한 실전처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과 공학의 두가지의 역량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기에, 저는 ICT융합 전공이 좋습니다. 다소 생소해 보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이 전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ICT

창업학부

ICT융합 전공 / ICT창업 전공 /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Creation beyond Technology:

Forging the future
with Stewardship
Innovations

(기술 너머의 창조)"



교육목표

ICT창업전공은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 즉 국제화교육, 창의융합교육, 인성교육, 공동체교육, 국제협력, 전인교육을 전위적으로 구현하는 전공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기반 미래동력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융합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Global Entrepreneurship) 을 함양하고, 이에 첨단 ICT기반기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극대화하여 인간과 사회를 더욱 정의롭고 풍요롭게 개척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공소개

- 다음과 같은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창업역량: 기업가적능력, 모험심, 치밀성, 경영이해, 도전정신, 개척정신
 -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 문제원인 분석 및 해결대안 도출능력, 전략적 계획수립능력
 - 조직이해 능력: 공동체의식, 주인의식, 비전공유
 - 팀워크: 팀 목표 공유, 갈등관리, 발전적 관계 구축, 리더십
 - 기술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수집관리, 정보 분석 능력
 - 유연성, 적응 능력: 외향적·친근한 성격, 재치와 요령
 - ICT역량: 프로그래밍 능력,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자·구두 소통능력, 열린 의사소통, 유연한 사고
- 이러한 역량 교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진취적 창업가: 미래지향적 도전의식과 열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개척함
 - 혁신적 기획자/경영자: 다양한 역량과 분야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실현시킴
 - 글로벌 정보전문가/분석가: 정보기술활용 역량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식산업을 선도함

전공 더 깊이 알기



창업전공이라고 해서 모두가 창업을 해야 하는 전공은 아닙니다. ICT창업전공은 창업 활동 자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창업가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하는 전공입니다. ICT창업 전공 학생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기업가적 능력과 도전정신, 개척정신,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ICT활용 능력을 우리 주변의 실제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형/실습형 강의를 통하여 습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ICT창업전공의 학생들은 3D 프린팅 활용 경진대회 중 창업 부분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하며 논문을 작성하는 등 학술분야부터 공모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 강의



공동역량 교과목 비전개발 1~4, 글로벌 기업가정신 입문, ICT융합입문, 제품기획 및 개발, ICT창업세미나, 캡스톤 디자인 1&2

창업역량 교과목 문제해결방법론, 프로젝트 관리실습, 글로벌 경영 및 기업 개발, 창업영어 커뮤니케이션, 창업법 실무, 창업캠프, 창업실습, 스타트업 재무회계 및 가치평가, 비즈니스 문화 영성, 현대사회문제와 창업, 고급 마케팅 실무, 모의투자 및 핀테크

ICT역량 프로그래밍 1&2, 데이터과학 입문, 데이터 관리와 활용,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모델링 입문, ICT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 ICT문제해결 방법론,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감성 및 인지의 이해와 활용, 비주얼 미디어 입문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ICT창업학부내의 GE전공에서 소개된 활동 (비전캠프, 현장견학, 콜로키움, 창업캠프 등)과 ICT융합전공에서 소개된 활동 (통계캠프, 수학캠프, 프로그래밍 캠프, 3D 프린터&IoT캠프) 등을 공유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외 창업경진대회 참가, StartUp Demoday참가, 관련학술대회 참가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 ICT창업학부는 (GE전공, ICT창업전공, ICT융합전공)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PRIME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3년간 국고지원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부 및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ICT창업전공은 2016년 2학기부터 개설되고 운영이 시작되어 2018년부터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 내의 기타 학부&전공을 연계전공 하였을 때, 개척할 수 있는 진로의 예는 'ICT융합전공의 졸업 후 진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GE전공의 졸업생 진로 내용은 GE전공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생 이야기 ✧



**박상운(14) - 외국계 IT기업
(클라우드 가상화 소프트웨어부문)**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공대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2016년 한동대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심리에 관심을 가졌지만, 산업과 기술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 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CT창업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ICT창업학부에 있으면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해외 탐방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졸업 직전에는 해외 경험과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OECD에서 반년 동안 인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대의 자유학기제를 통해 1학기를 인턴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이것은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이었던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첫 직장은 클라우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외국계 IT기업이 되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취업에 급급하고 성적에 얽매는 것보다 기회를 찾아 도전하였던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동대학교의 편입은, 그리고 ICT창업학부에서의 공부는 모두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이런 변화들을 보시며 지금은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해갈 제 삶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망설임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한(14) - ICT창업 전공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석사과정**

2018년 8월, 한동대학교 ICT창업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실제 공장 운영 업체와 함께 공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보편화되는 한편,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 한 칸 규모의 작은 공장에도 복잡한 전자기기들과 시스템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교육을 위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실무자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능력과 기술활용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한동대학교의 ICT창업학과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역량을 기르는 GE전공과 ICT역량 및 기술활용역량을 갖춘 ICT융합전공이 합쳐져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입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팀프로젝트 수업을 여럿 수강해 유통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실무 경험들을 수행하고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배운 ICT역량을 기반으로 현재도 필요에 따라 컴퓨터 비전 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ICT창업학부 안에서 함께 밤을 지새며 회의하고, 울면서 코딩하던 동기들이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만나서도 여전히 서로의 비전을 묻고, 한동의 가치관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그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신입생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서은빈(16)

‘혁신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
비로소 혁신이 된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아이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획기적이고 흥미롭다 해서 모든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니, 그 동안의 간혀있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ICT창업학부생이 되기 전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ICT창업 전공을 통해 여러 실험과 과제를 접하면서,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실현해낼 기술이 없다면, 그 아이디어도 사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ICT창업 전공이 갖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말에는 주장과 근거가 있습니다. GE전공이 주장이라면 ICT전공은 강력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게 할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ICT창업전공은 학부생들이 기술력을 갖추 수 있도록 확실한 실험실이 되어주었습니다. 학부의 진취적인 환경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가르침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세상에 내보낼 날을 기대해봅니다. 아직은 학부생으로서 실험중인 아이디어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한효정(16)

제 비전은 ‘통일을 준비하는 기업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

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mindset을 정비하고, ICT기술에 대해 공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수업은 실무, 현장 중심적입니다. 교수님들이 겪었던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이론만 있는 전공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문제와 해결과정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팀프로젝트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고등학교 때 같은 암기를 벗어나 체득하는 공부를 경험합니다. 또한 학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들, 창업캠프나 3D프린팅 캠프, 해외(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등) 청년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킹은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저는 중국 심천에서 소셜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창업가, 투자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우리 사업계획서를 피칭해보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위챗 페이를 보고 돌아와 핀테크 개발 관련 수업을 들으며 블록체인과 핀테크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의 교수님들께서는 학생이 하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십니다. 이 학부는 단순히 4년 간의 배움을 넘어 삶의 비전을 고민하고 모든 과정에 배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사회의 문제들을 지나칠 수 없고, 지나치기 싫고, 바꾸어 나가고 싶은 한동인이려면, ICT창업 전공을 추천합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역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ICT

창업학부

ICT융합 전공 / ICT창업 전공 /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Creation beyond Technology:

Forging the future
with Stewardship
Innovations

(기술 너머의 창조)"



교육목표 GE(국제 기업가정신) 전공은 창의, 융합이 키워드가 된 시대의 흐름에 가장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전공입니다. 타전공의 역량과 함께 GE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연구 역량을 쌓고,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래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인재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GE전공은 지성, 인성, 영성 세 가지 차원에서 탁월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각자에게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공소개 기업이 정신과 비즈니스 운영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자신의 주변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업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공입니다.

- 중점역량: 기업가정신, 시장/문제분석, 프로젝트 기획, 비즈니스 개발, 문제해결, 아이템개발
- 중점분야: 창업실행, 실무 마인드셋, 시장조사 및 분석, 회계 및 투자, 마케팅, 법/윤리적 경영 기법

전공 더 깊이 알기



창업 전공이라고 해서 모두가 창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학 중이나 졸업 후에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창업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학생들이 창업가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공입니다. 즉, 기존의 교과서적인 지식을 넘어서 기업가적 능력과 도전정신, 개척정신,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각종 프로젝트형, 실습형 강의를 통해 습득하고, 졸업 후 진학, 취업 및 창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대표 강의



제품기획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 향상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 발상 및 아이템 개발활동을 합니다. 실행 결과물로 공모전 수상이나 대학 프로젝트 개발, 지자체 프로젝트 진행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Go To Market (고급 마케팅 실무) 말 그대로 “시장으로 가자!” 라는 주제의 수업입니다. 즉 기업이 신사업을 기획하고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고민하게 되는 소비자조사, 유통, 판매증대 등의 활동들을 실제 사례연구와 팀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합니다.

기업가정신 입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 수업으로 혁신적 사고를 배우게 되며, 미래 지향적 도전의식과 열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신감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GE전공의 교육을 받은 학부생은 다음의 네 가지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즉 자신의 비전(미션)발견과 개발능력,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균형 잡힌 사고능력, 스타트업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도전적이며 체계적인 실행능력입니다.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각종 성적과 스펙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GE전공의 학생들은 우리 주위에 산적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우수성보다도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할 것인지 찾기 위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Why not change the world?”에 답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GE전공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핵심역량장학금, 우수학생유치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

- 각종 교내외 캠프 운영 및 지원: 통계, 수학, 프로그래밍, 창업, 진로 캠프 등
- 역량향상 행사 운영: 명사초청 세미나, 특강
- 연구실 운영 및 연구 활동 지원: 연구실 운영 및 연구원 활동지원, 학술논문 집필 및 발표 지원
- 산업연계 활동 지원: 관련 산업체 현장 답사, 인턴십, 자유학기, 산업연계 프로젝트 지원
- 체험형 학습 활동 지원: 해외 단기 연수 및 교환학생 지원, 글로벌 창업현장 체험
- 다양한 학생활동 지원: 동아리, 교내 학회, 공모전, 경진대회 지원, 관련 전시회, 박람회,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가 지원

학회 소개

Enjoy The Problem	컨설팅 학회로 Mckinsey & Company의 “Problem Solving 7 Steps Tool”을 스테디 및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하여, 학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는 학회입니다.
세이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심도 있는 학술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통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북한인권학회입니다. 세이지는 청년의 눈으로 북한 주민이 받고 있는 고통의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전시회 활동을 통해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 일깨워주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비전캠프

매 학기 시작 전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곧 진행될 학기의 수업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미리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장견학

학생 각자의 비전에 맞춘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학생이 기획하고 찾아가는 '비전 찾기 견학'과 다양한 기업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의 최전선의 전문가들로부터 특강을 듣는 기업 탐방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쿨로키움

다양한 분야의 선도자, 실무자, 사업가를 초빙하여 현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문하며 전문가와 멘토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캠프

국내와 다양한 창업전문 멘토 그룹을 초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래밍, 스타트업 마케팅, 창업 행정법, UI/UX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 모든 프로그램들은 학부내의 타전공 (ICT창업전공, ICT융합전공)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GE전공에서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 졸업생들의 진로는 창업, 대학원 진학, 취업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졸업생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진로 속에서 GE전공을 통해 배운 기업가정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치를 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GE 졸업생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현대자동차, 네이버, LG CNS, LG U+, CJ대한통운, LG H스애드, SK플래닛,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중견기업

바이오스페이스 등

벤처기업 및 개인창업

모노테스크, 핸드스튜디오, 비움소프트, 앤벗, Cafe4M, New York Oven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HILS(한동국제법률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Rosalind Frankli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University of Pittsburgh, Chicago Medical School, I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졸업생 이야기 ※



이태훈(07)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비전이 없는 삶은 있지만, 삶이 없는 비전은 없습니다. 비전은 한 사람이 겪어 온 인생의 맥락과 줄거리를 압축적으로 요약해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삶의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인생의 방향성들을 조정해주는 조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순종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GE전공에서 배우는 교육의 본질은 세상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갈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한 명의 안트러프러너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러한 견지에서 GE전공의 모토인 ‘빈곤 속에 희망을’, ‘Make something from nothing’은 단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세상적인 성공, 출세, 영광과는 무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었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며 비전을 이루어갈 여러분의 매 걸음을 축복합니다!



박현성(08) - 한국경제연구원 (KERI)

2009년, 제가 GE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생소했던 ‘기업가 정신’이 9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동대학교의 GE전공을 통해 만나는 기업가정신은 보다 더 특별합니다. 경제 성장, 혁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성을 바탕으로 비전을 품고 어느 분야에든지 뛰어들어 선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각기 다른 연계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오며, 개개인의 지식 베이스를 넓히는 동시에, 향후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람과의 협업에도 두려움보다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가지며 유연한 사고와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GE전공에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유진(13학번) - 서울시 9급

일반행정 공무원

GE의 최대 강점은 “배운 것을 바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곧바로 활용하기 위해 배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전공과 비교했을 때 프로젝트나 팀 플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 하다 보면 책에서는 볼 수 없던, 교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영역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팀원과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탐구해야 하는데, 매 학기가 지나갈 때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GE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다 같이 브레인 스토밍을 할 때 뿔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니즈를 충족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E를 통해 만난 친구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시는 교수님들, 졸업을 한 후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GE에서 배운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배님들까지, 모두들 제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던 것을 펼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GE에 오신다면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이라는 슬로건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도희(14)

대개 ICT창업학부의 GE전공이라 하면 창업을 위한 학부라는 이

미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책에서 나오는 이론만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었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제게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해보고자 GE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GE수업들에서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를 적용시키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법,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디어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GE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학기 동안 GE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예림(16)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한 한동대학교, 대가없이 새내기들을 도와주

는 새내기 섬김이, 공동체 문화의 꽃인 RC제도, 팀모임 등을 통해 새내기 시절에 저는 한동의 '사랑'과 '섬김'을 배웠습니다. 선배들과 교수님들, 친구들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나도 받은 사랑과 섬김을 돌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3학년이 되어서는 직접 새내기 섬김이로 활동하며 한동의 가치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한동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알아가도록 돕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 역시 1학년 때 'GE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매력을 느낀 GE의 핵심 포인트는 '소통'과 '문제해결'이었습니다. GE의 대부분의 강의는 '팀프로젝트'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Creative Something from Nothing'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고민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소통'과 '문제해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 차원에서 HCI 학회 참석, 외국 탐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ICT 트렌드를 읽는 힘을 길러주고, 학부 워크샵, 졸업생 특강을 통해 학부생들과 졸업생 선배들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가능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꿈을 가진 친구들과 선배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글로벌한 시각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우고 훈련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GE전공이야말로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가치의 축소판이라 생각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수학통계 전공

TEP (Teacher Education Program)

*계열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교육목표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학생 개별의 적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전공으로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공소개

학생설계융합전공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전공의 틀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전공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전공으로는 발휘할 수 없었던 학생 재능 발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한 전공명

학생설계융합전공은 글로벌융합전공과 마찬가지로 학생 스스로가 설계가능하며 3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구성하지만 한동대학교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은 불가능합니다. 학위명 역시 한동대학교에서 수여가능한 범위에서 수여 가능합니다.

제2전공만 이수가능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한국인국적 학생에 한하여 제2전공(33학점)으로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당시 전체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만 신청가능하며 학번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공 신청과 절차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학기말에 온/오프라인으로 전공신청을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학생설계융합전공 지원서와 전공변경신청서(3학기 이상의 경우만 제출)입니다. 제출서류는 학생설계융합전공위원회에서 지원서류를 심의 후 합격 학생에 한하여 개별안내를 합니다.

전공 설명회 및 커리큘럼 구성 워크숍

학생설계융합전공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 학기말과 학기 초에 전체학생대상으로 전공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학기 말에는 전공 희망자 및 관심자 대상으로 학생설계융합전공위원회 교수님과 함께 전공 커리큘럼 구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교육목표

글로벌융합전공은 학생 스스로가 100% 영어강의로 전공설계를 주도하고, 공부하여 창의적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공소개

현대사회는 특정 전공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여러 전공과 화학적으로 융합된 복합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융합전공은 이런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한동대학교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전공이 아닌 창조적인 전공발전의 플랫폼의 역할을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제공합니다. 특히, 반드시 100% 영어강의로 운영되는 교과목으로 전공구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 및 재외 학생들이 좀 더 쉽도록 1:1 형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한 전공명



글로벌융합전공은 한동대학교에서 존재하지 않는 전공을 학생 스스로 만드는 전공이며, 필수적으로 2개 이상의 전공을 포함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합니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전공명을 부여할 수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전공과 유사한 이름 명명은 불가능합니다. 학위수여의 경우 한동대학교에서 수여가능한 학위명 내에서 수여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제1전공 이수가능

글로벌융합전공은 기본적으로 제2전공(33학점)으로 운영되며 한국인과 외국인학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1전공(33학점), 제1전공 심화전공(66학점)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한국인학생의 경우 신청 당시 전체 평점평균 3.0이상만 신청가능(학번제한 없음)하며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학점제한이 없습니다.

전공 신청과 절차

글로벌융합전공은 학기말에 온/오프라인으로 전공신청을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글로벌융합전공 지원서와 전공변경신청서(3학기 이상의 경우만 제출)입니다. 제출서류는 글로벌융합전공위원회에서 지원서류를 심의 후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개별안내를 합니다.

전공 설명회 및 커리큘럼 구성 워크숍

학생설계융합전공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 학기말과 학기 초에 전체학생 대상으로 전공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학기 말에는 전공 희망자 및 관심자 대상으로 학생설계융합전공위원회 교수님과 함께 전공 커리큘럼 구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박예은(14) - 학생설계융합 전공 / 산업공학과

저는 창의융합교육원 학생설계전공으로 산업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교수님의 연구 조교로 활동하면서 생긴 호기심 때문입니다. 2학년 때부터 약 3년간 활동하면서 제조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덕분에 일찍부터 산업 공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전공하고 있었던 경영학과 경제학으로는 한계를 느꼈고, 산업공학에 좀더 집중하고자 경제학을 학생설계전공을 통해 ‘산업공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전공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다 학생과 지도교수님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었고, 내가 만든 전공이라는 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무시받지는 않을까, 같은 과 동기들 없이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산업공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공을 통해 한동대학교 정해진 전공의 한계에 벗어나 내가 진정 원하는 공부에도 전할 수 있어 후회 없는 대학생살을 하였습니다.

저는 ‘산업공학’ 전공을 통해 저의 1전공인 경영 분야의 문제를 공학적인 기술과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스마트 공장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경영학과 산업공학을 융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설계전공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한동만의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김범진(18) - 글로벌융합 전공 / Musical Theater

한동대에는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몇몇 관심 있는 전공들이 있었지만, 뮤지컬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조금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Davidek 교수님을 통해 ‘글로벌융합전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전공을 만든다는 말이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 교수님은 매주 한 번 이상씩 면담을 해주시며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왜 뮤지컬 연출가가 되고 싶어하지?”라는 교수님의 질문은 제 꿈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였고, 뮤지컬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공설계 방법과 커리큘럼 구성, 나아가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충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융합전공으로 전공을 설계한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학부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100프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통해 미국에 가서 다음학기부터 1년간 뮤지컬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글로벌 융합전공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외국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전공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2학년부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융합전공은 저에게 큰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들을 접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이라면, 글로벌융합전공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오셔서 함께 도전을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교육목표

창의융합교육원은 심화된 수준에서의 다학제적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설립되어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글로벌한국학 전공'을 신설하여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글로벌한국학을 연계하여 전공함으로써 다학제 융합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전공소개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 학생들에게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거나 각종 해외 관련 사업에 진출하여 활동하는데 필요한 한국학 지식을 제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 기간에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의 성공 요소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교육하여 이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과 자국의 상호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한국학 전공 내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설치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 학생들이 세계 각처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학과 한국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화하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일반 한국학 과정과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일반 글로벌한국학 과정과 글로벌 한국어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글로벌한국학 과정은 한국의 인문학(언어, 문학, 역사,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사회과학(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국제)을 더하여 융복합적 관점에서 한국학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이수자들이 한국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어교육 과정은 내국인 혹은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제공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국내 혹은 국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정으로 21학점(부전공)을 취득하면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심화 과정으로 45학점(전공) 이상을 취득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학생은 위의 과정 외에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서 6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내국인 학생은 제2전공만 가능, 외국인 학생은 제1전공도 가능

글로벌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은 제1전공(33학점)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내국인 학생은 제2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심화, 전자공학 심화, 생명과학을 제외한 우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전공과 연계전공 및 부전공(21학점)이 가능합니다.

한동대 재학생이면 누구든 선택 가능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한동대 재학생이면 누구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적어도 4학기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공 설명회 및 커리큘럼 구성 워크숍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2017학년도 1학기에 신설되기 때문에 매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기 말에는 글로벌한국학 전공 희망자와 관심 대상자 및 글로벌한국학 운영위원회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전공 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컨설팅 및 진로 지도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표 강의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의 이해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와 가족, 근대화, 성, 노동과 인구, 환경, 종교, 정치제도 등에 나타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공부하는 글로벌한국학 전공의 기본교과목입니다.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한국의 고전 및 현대문학에 대해 깊이 공부합니다.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한국어의 다양한 문법현상과 문법교육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한국어의 다양한 음운현상과 발음교육 방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 직업 전망 및 진로 개발 ※

제2전공으로 글로벌한국학 전공을 선택하여 경제학-한국학, 경영학-한국학, 국제학-한국학, 어문학-한국학(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과정), 한국법-한국학, 언론학-한국학, 공연영상-한국학, 사회복지학-한국학, 상담심리-한국학, 디자인-한국학, 건축학-한국학, ICT-한국학 등과 다양한 학문을 복수로 이수하면, 국내외의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학생은 국내외의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국내외 공사립학교,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어 학원 등), 국내 기업, 외국 기업, 국내외 NGO, 선교단체 등에서 한국학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학에 대한 연구과정을 추가적으로 이수함으로써 한국학 분야의 전문 연구원, 교수 및 교사(국내 공사립학교의 내국인 대상 국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제1전공 혹은 제2전공으로 IT-한국학, GM-한국학, UIL-한국학 등과 같이 연계하여 복수로 이수하면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국학을 기본으로 하는 발전된 형태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K-pop, 드라마, 뷰티, IT, 새마을운동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韓流) 열풍을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국인 또는 외국인 학생이 글로벌 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세계 각처에서 한국어 교사와 한국 문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전공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과정을 TEP(Teacher Education Program)와 함께 이수하면 대안학교 및 해외 선교지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반하영(16)

SNS에서 황당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외국인인 돈뭉치를 들고 해바라기은행

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아이들 놀이용 종이돈이었고, 사람들이 그 돈은 못 쓰는 돈이고 그런 은행은 없다고 알려주었는데도 그는 일해서 받은 돈이라며 해바라기은행만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난 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 속의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법외에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움과 동시에, 올바른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7년도에 한동대학교에 글로벌한국학이 신설 전공으로 개설되었고 저는 한국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학을 전공하며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 사회 등을 배우며 저도 알지 못하였던 한국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한국학과에서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사를 꿈꾸시는 학생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과입니다. 한국 문화 알리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한국어 교사의 꿈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전공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윤정우(16)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선택을 잘한 것은 한동대학교 입학을 해

서, 1학년 동안 전공에 상관없이 수업을 들었는 것입니다. 한동에 오기 전까지, 제 선택 기준은 “어떤 과목을 잘 하는 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전공 기간동안 “무엇을 좋아하는 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심지어 싫어했던 분야도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했던 저에게, 팀교수님과 새내기섬김이, 새내기, 팀 언니, 오빠들이 “실패해도 괜찮다”며 항상 격려를 해주었고, 저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혼자라면 금방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내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조언해주는 한동의 교수님과 선배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전공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트랙과 글로벌 한국학 트랙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트랙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외국인인 TOPIK 6급이 있으면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희 전공은 교육학, 한국어 교육학 과목과 한국 문화와 관련된 과목도 수강합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트랙은 한국의 정치, 경제, 대중문화, 역사, 법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트랙입니다. 최근 한국의 K-POP, 드라마, 뷰티, IT, 새마을운동 등을 중심으로 한류(韓流) 열풍을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글로벌 한국학을 전공하면,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교사와 한국문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전문가가 되는 길, 글로벌 한국학 전공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인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여 존재하지 않던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내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수학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창조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 수학적 통찰과 방법론으로 교육받은 인재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던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분야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학은 전문가들의 기본 도구요, 핵심적인 방법론입니다. 통계학 전공을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수학통계전공은 2학년과 3학년 때 순수수학, 응용수학, 통계학의 기본 과목을 이수하고 4학년 때 산업체의 과제 중 수학과 통계학의 방법론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 봄으로써 이론과 응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 강의



해석학

미적분학에서 직관적으로 사용했던 사실들의 이론적 이유를 탐색하는 과목입니다. 수학적 증명을 본격적으로 배움으로써 수학 전공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인 논리적 추론 능력을 배양합니다. 아울러 현대적 관점에서 추상화를 통해 함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념과 방법론을 배웁니다.

대수학

대수적 구조 안에 숨겨진 패턴 및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수학적 개념을 추상화 하는 과정 및 수학적 논증을 배웁니다(기본적인 대수 구조인 군, 환, 체 이론에 중점을 둡니다).

수치해석학

수치해석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과정의 기본 개념과 기법들을 습득하고, 수치해석에 요구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수치해석 방법들을 이공계 분야의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공계 분야의 문제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본 개념과 그의 응용을 소개하며, 다루는 주제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 구하기,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기, 선형/비선형 회귀분석, Fourier 해석(DFT 와 FFT), 수치적분 등

확률론

확률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정의를 이해하고 확률분포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현상에서 도입되고 있는 확률적 사고 및 접근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수리통계학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의 백그라운드 이론을 습득합니다.

수리통계학

확률변수의 정의와 종류 및 분포,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분포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기초로 추정 및 통계적 가설 검정과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량에 대해 학습합니다.

회귀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자료를 통하여 밝히는 통계적 방법으로 모형을 적합하거나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통계기법을 배웁니다.

※ 졸업 후 진로 ※

수학통계 전공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신설된 전공입니다. 졸업 후 더 심도 깊은 공부를 위해 수학 및 통계학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 진학이나 TEP프로그램과 병행을 통해 수학교사의 길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및 통계학 전공을 한 경우 IT 계통의 회사, 보험회사, 금융회사 등에 취업 할 수 있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민혁(14)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은 그 책에 쓰여 있는 언어를 아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다. 그 언어는 수학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수학의 중요성을 잘 설명한 말입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할 때도 수학과 통계는 필수적입니다. 현상을 진단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제학자를 지망하는 저는 경제학과 더불어 수학통계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 상에서 수학통계학은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1전공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에게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하기 보다는 제 전공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수학적 사고능력과 통계적 지식을 얻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 수학이나 통계를 복수전공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담없이 수학통계를 타 전공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한동대학교만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수학통계학과는 가장 최근에 생긴 전공이지만,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수학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교수님들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설명해주시고 이해할 때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교수님들의 세심함 덕분에 수학 전공 과목들을 따라가는데 어려움 보다는 즐거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 전공에서 수학통계를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알려도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선택을 망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대학교 수학통계학과에 오셔서 세상을 읽는 제 3의 언어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박유정(15)

수학통계학과는 2018년도 1학기에 새롭게 개설된 전공입니다. 수학통계학과가 새롭게 개설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 저는 6학기로 전공을 변경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민 끝에 2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수업에서 배운 수학과 통계의 식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고 싶었고, 더 나아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구로 전공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통계학과에는 경제, 전산, 생명, 상담심리 등 다양한 전공이 모여있습니다. 어떤 전공이든 수학과 통계가 쓰이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학적 통찰과 통계적 지식은 여러 학문에서 더 깊이 있는 탐구와 응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저는 수학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수학통계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업이 증명 위주이며 개념 또한 낯설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전공이기에 친절하고 부족함 없이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주고 계시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과 따로 또 같이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어려움에서 한 발짝 벗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학통계학과에서는 전공과 관련하여 유익한 강연이 자주 열리기도 하고, 통계프로그램과 그에 관련한 지식을 심도 있게 배울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수학통계학부에서 이러한 장점들을 잘 기른다면 대학생활에 좋은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TEP 기독교사 특화 프로그램은 기독교대안학교와 해외 선교지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참 교육의 회복과 변혁을 주도하는 기독교사와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창의융합교육원 내 특화 트랙입니다. TEP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육에의 소명확인, 교육의 회복과 변혁을 추구하는 태도와 인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 TEP 기독교사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 총 6개 과목 18학점을 이수요건으로 하며 교육학개론, 기독교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공학 및 방법, 교육현장실습 과목이 운영됩니다.
- 한동대학교는 2015년에 미국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협력 대학 인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TEP 이수자들은 졸업 시 ACSI 기독교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표 강의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교육과 학생 및 교육현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교육 대상의 특성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갖춰야 할 역량과 태도를 함양합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학교라는 현장 속에서 이 배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통합적 안목을 키우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관점과 철학, 학교 교육의 역사, 교육의 사회적 이해, 학습자 이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향후 세부 교육영역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기독교교육철학

기독교교육철학이란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한다는 것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Pazmino가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교육자의 과제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기독교철학의 기본적 요소를 검토하고 이러한 요소들과 기독교 신앙이 교육이론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교육심리

교육심리는 학습자의 발달 및 학습이 발생하는 원리를 배우며, 구체적으로 인지과 기억, 학습 기술, 정신발달, 개인차, 학습동기, 교육환경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교육심리 교과목은 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과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며,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과정이나 교육과정개발, 교육행정 및 학생상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과정 및 평가 교과목은 교육의 계획된 내용이자 학습 경험이 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중등학교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시각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도 시도합니다. 교육평가 분야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교육평가의 유형과 평가모형, 수행평가, 문항 제작과 분석, 검사도구 개발 및 해설, 그리고 교육현장의 평가 문제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과목에서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교육공학을 이용해 교육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업의 계획과 방법을 분석하고, 현장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수업 매체의 원리, 절차, 활용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현장실습

TEP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교육현장실습에서는 학생교사의 자격으로 교육현장 실습 협력학교에 가서 교육실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업 관찰과 실습 뿐 아니라 학생 상담과 지도, 학교 행정체계, 교사공동체의 특성과 운영을 살펴보고 TEP 특화프로그램 및 타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하도록 합니다. 교육현장실습에서의 경험과 분석, 숙고의 내용은 티칭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에 담아내도록 합니다.

학회 소개

한동교육학회

한동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학을 함께 공부하며 학문적인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육으로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사랑, 겸손, 봉사를 계승하는 한동 최초의 교육학회입니다.

※ 졸업 후 진로 ※

- TEP 프로그램 이수자는 전공과 관련된 중등 교과목의 기독교사로서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해외 선교지 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TEP 교과목을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아 대학원의 수학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TEP 프로그램 이수자는 교육컨설팅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벤처의 아이디어 개발과 진로 개척에 용이합니다.

✧ 졸업생 이야기 ✧



송다원(12) - 꿈의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TEP 1기 졸업생, 12학번 송다원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봉사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의 꿈을 품었습니다. 당시 한동대에는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TEP과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졸업을 1년 미루고 TEP를 이수하였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교육 관련 과목들은 너무나도 흥미로웠고 교육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다' 생각하며 졸업을 하자마자 꿈의학교에 지원했고 현재 2년차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TEP 수업을 통해 실제 경험한 다양한 수업 방식과 TEP과정 속에서 읽은 책들,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일 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TEP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얻는 것도 교육 전공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모든 과정에 임하시면 분명 졸업하고 많은 열매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교생실습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동대의 전례 없는 첫 교생이었고 준비된 것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실수투성이었기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후회없이 모든 열정을 쏟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교제하며 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아이들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다른 어느 직장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정인(11) - 한동글로벌학교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동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따라 한동대에서 영어 전공 및 기독교사 특화 프로그램인 TEP (Teacher's education program)를 이수하였습니다. 졸업을 준비하면서 한동글로벌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게 되었고, 졸업 후 동일 학교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nglish Communication 과 Creative Writing을 가르치는데,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주셨더라?"하며 기억을 떠올려 그 귀한 가르침을 모방해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어라는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한동대에서의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학생들을 가르친 지 오래되지 않아 기독교적 관점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 또한 계속 고민하며 실천하려 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슬기(13)

저는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문 제야 학생을 사랑과 헌신으로 변화 시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교육자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특화프로그램(TEP)은 저에게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을 알았던 친한 친구는, 저에게 어떻게 기도했길래 TEP가 생겼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TEP과정을 통해 단순히 교육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섬기며 가르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TEP의 장점을 세 가지로 꼽자면 먼저, 교육학개론부터 교육 평가, 교육 공학, 교육심리 등의 교육학적 기본 지식을 배움과 동시에, 기독교 교육철학을 통해 '예수님의 교육'이라는 차별화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커리큘럼을 넘어 각 수업 안에서도 전공 수업과는 다른 분위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학생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며, 능동적인 수업이 가능한 것이 매우 큰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교육을 꿈꾸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비전을 나누고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여느 공부보다 값진 것임을 배웠습니다.

TEP과정을 통해 교육학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필드에 나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서주은(13)

저는 한 때 꿈이 없어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약사를 꿈꾸던 저는 생명과학을 선택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꾸어 왔던 꿈이기에,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여 휴학을 결정하였습니다.

휴학을 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드라마의 한 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 아이의 삶은 바뀔거죠. 그리고 그건 그 아이에겐 세상이 바뀌는 일일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울려서, 저는 한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꾸는 좋은 교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학교에 복학했을 때, 새로 TEP 기독교 교사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뭇 듯 기쁜 마음으로 TEP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EP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입니다. TEP 친구들에게는 교육을 시작하게 된 분명한 동기가 있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에 대해 배우는 6개의 과목을 통해 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TEP 친구들과 매학기 만나고 교제하며,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을 나누는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멘토가 되어주시는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TEP의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서로 의지하고 나누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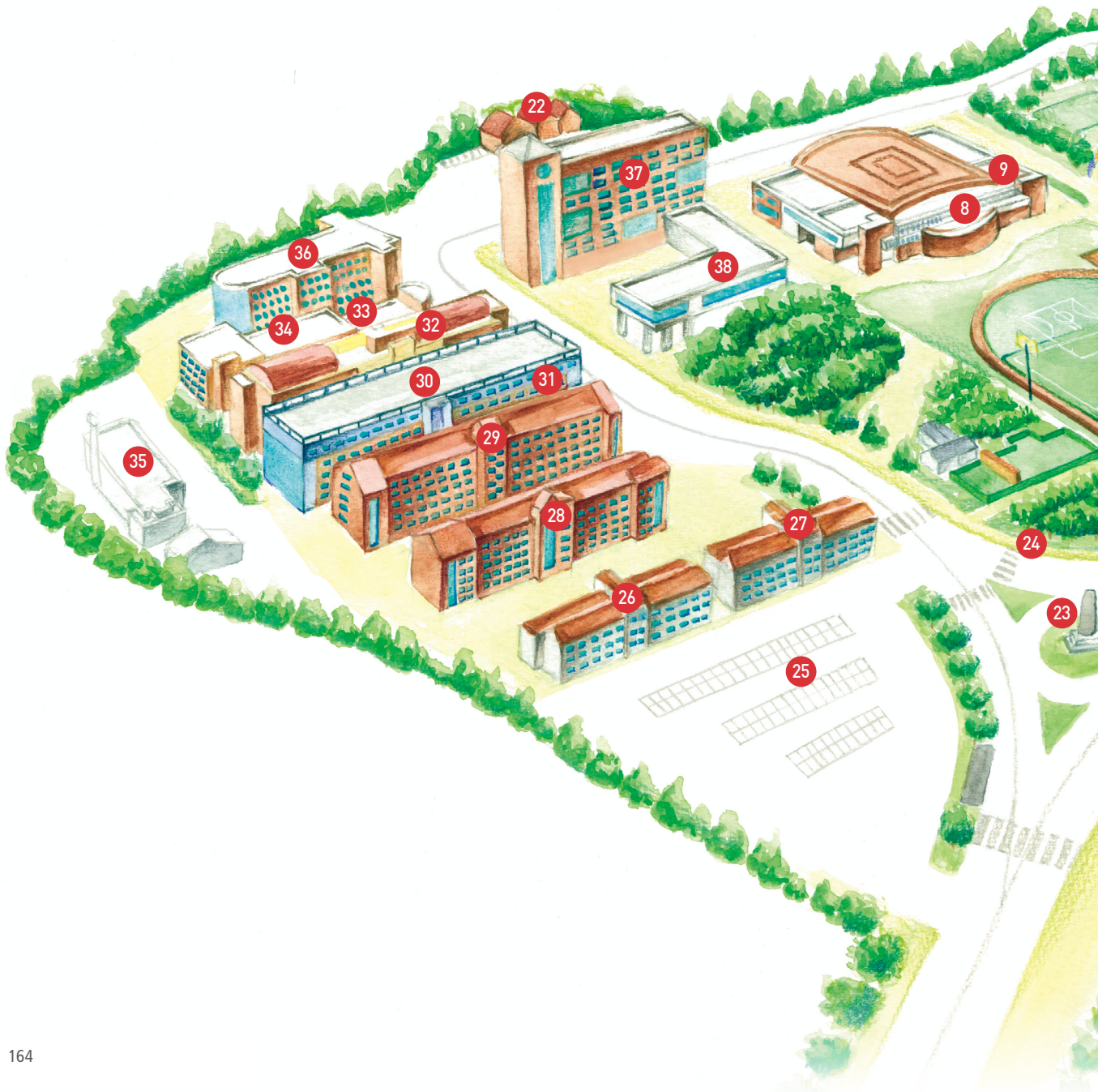
교생 실습을 하며, 교육은 자질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혹시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함께 사랑을 배우고 나눠가는 TEP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직접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밝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Handong Global University

MAP

- 01 현동홀
- 02 비전광장
- 03 느헤미야홀
- 04 뉴턴홀
- 05 올네이션스홀
- 06 오석관
- 07 생태공원
- 08 학생회관, 학생식당
- 09 맘스키친(식당)



- | | | |
|------------------------------------|------------------------------------|----------------------------------|
| 10 나눔평봉필드 | 19 창업보육센터 | 29 창조관 |
| 11 효암관(채플) | 20 Global Green Development Center | 30 벤셀관 |
| 12 교목실 1F/ 효암별관 2F,3F | 21 히딩크 드림필드 | 31 복지회(매점) |
| 13 언어교육원 | 22 Handong Guest House | 32 로덤관 |
| 14 International Faculty House 9 | 23 교비 (사랑, 겸손, 봉사) | 33 International Faculty House 8 |
| 15 International Faculty House 4-7 | 24 버스정류장 | 34 국제관 |
| 16 한동글로벌학교 기숙사 | 25 주차장 | 35 파워플랜트 |
| 17 International Faculty House 1 | 26 ICT창업학부 전공관 | 36 은혜관 |
| 18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 27 산학협력관 | 37 하용조관 |
| | 28 비전관 | 38 복지동 |



한동과 나의 연결고리



HGU 입학 홈페이지

<https://admissions.handong.edu>
 예비 한동인의 필수 방문지!
 한동대학교의 모든 입학정보와
 전공안내, 학교생활을 만나보세요!
 캠퍼스투어, G-IMPACT 체험활동도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GU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dong.edu>
 하나님의 대학, 한동을 소개합니다.
 한동대학교에 대한 모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세요!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원, 산학협력, 국제교류 협력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HGU 카카오톡 상담

Yellow ID: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 클릭 ⇨
 ID/플러스 친구검색 ⇨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 추가!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한동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입시부터 전공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HGU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gu.admissions>
 페이스북에서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를 검색해보세요.
 소소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한동인의 일상부터
 최신 입학정보와 입학상담까지 가능한 만능 페이지!
 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손 안의 핸드폰으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오픈캠퍼스

한동대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캠퍼스 투어, 입학상담,
 재학생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일시: 학기 중 매월 2주차, 4주차 토요일 오후 1시~오후 3시까지
 * 장소: 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입학 홈페이지에서 방문 8일 전까지 신청

찾아가는 입학상담

입학사정관이 전국 주요도시에서 입학상담을 개최하여 한동
 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및 입학전형 안내,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일시/장소: 4~7월 중 국내외의 주요도시
 * 상세 일정은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방문 입학상담 및 전화상담

한동대학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평일 근무시간동안 상시
 입학상담 제공
 * 일시: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 한동대학교 현동홀 105호 입학사정관팀
 * 참여방법: 전화 예약 후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054-260-1084~6)

G-IMPACT 체험활동

한동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체험, 한동 문화 등을 미리
 체험하고 한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인성 체험 프로그램
 * 대상: 고등학교 1~3학년
 * 일시/장소: 2019년 7월 말, 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5월 말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동대학교 진로가이드북

발행일	2019년 3월 28일
펴낸곳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
주소	(375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입학상담	054-260-1084~6
팩스	054-260-1809
이메일	admissions@handong.edu
입학홈페이지	https://admissions.handong.edu



Honesty changes the world.
Integrity moves the world.

정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사야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 방법으로 · 하나님의 · 인재를 · 양성하는 · 하나님의 · 대학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입학처